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37454

2009년 2월

박사학위논문

광주 · 전남 現代詩文學 연구

-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황 하 택

광주 · 전남 現代詩文學 연구

-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

A Study on the Modern Poetry in Gwangju and Jeonnam

- From 1960s to 1980s -

2009 년 2 월 25 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황 하 택

광주 · 전남 現代詩文學 연구

-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

지도교수 한 옥 근

이 논문을 문학박사 학위 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10 월 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황 하 택

황하택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호남대학교

위　원　전북대학교

위　원　조선대학교

위　원　조선대학교

위　원　조선대학교

2008 년 10 월　　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ABSTRACT ····· ii

제 1 장　서론 ····· 1

제 2 장　광주 · 전남 지역 시문학 연구의 당위성 ····· 5

제 3 장　광주 · 전남 60년대 ~ 80년대의 문학사적 특성 ····· 8

제 1 절　전통적 소재와 순수서정(1960년대) ····· 8

제 2 절　사회참여와 현실비판(1970년대) ····· 13

제 3 절　민중시와 포스트모더니즘(1980년대) ····· 17

제 4 장　광주 · 전남 출신 시인들의 시 세계 ····· 22

제 1 절　1960년대 등단한 시인들의 시 세계 ····· 25

제 2 절　1970년대 등단한 시인들의 시 세계 ····· 71

제 3 절　1980년대 등단한 시인들의 시 세계 ····· 103

제 5 장　결　론 ····· 133

참　고　문　헌 ····· 136

ABSTRACT

A Study on the Modern Poetry in Gwangju and Jeonnam

- From 1960s to 1980s -

Author : Hwang, Ha-Taek
Dep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Advisor : Han, Ok-Geun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plan on desirable development of local poetic literature, targeting poets from Gwangju and Jeonnam in 1960s, 19700s, and 1980s. Gwangju and Jeonnam have gone through the most serious disturbances and fever in history. In comparison with Yeongnam where academic base is remarkably developed, Gwangju and Jeonnam as a literary mecca has literary factors of poetry everywhere from the beginning as seen from tradition and achievements in literature.

As local literary persons from late 1950s to early 1960s made literary debuts through literary competitions or the recommendation system, poetry circles in Gwangju and Jeonnam had favorable trend, which activated local literature. The expanded base of poetry circles induced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to have enthusiasm about poetry and local literary circles to have energy.

With April 19 Revolution as a peak, the existing poets or new poets had new desire to write and in particular, new ones tended to represent the existential subject of the 4.19 Revolution.

The 4.19 Revolution which had broken fetters of 1950s was at the political peak in 1960s. Changes were connected with social conditions of disturbances after the Korean War. On December, 1961, the 1st national

literature competition for high school students was organized by Chosun University, and the following three students won the prizes: Yoo, Young-Boo (3rd grade of Joseon University Affiliated High School) in novel, Choi, Seong-Il (3rd grade of Busan Haedong High School) in poetry, Go Jae-Pil (3rd grade of Gyeongnam High School) and Jo, Young-Sil(1st grade of Supia High School). The competition was replaced by national composition contest named Baekiljang, which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enhanced students' enthusiasm on literature as well as literary exchange between students in other local areas.

In an event to honor the 4.19 in 1961, Gwangjuilbo organized a literary festival at an auditorium of Chonnam Girls' High School where poetry was recited and illustrated poems by the following poets were exhibited: Kim Hyeong-Seung, Huh Yeon, Lee Soo-Bok, Kim Ak, Jeong So-pa, Lee Hae-dong, Lee Hyo-rye, Lee Young-gwon, and Choi, Seung-ho.

In 1960s, many changes happened with many literary activities.

At that time, Yun, Sam-ha, Gwon, Il-song, Jung Gyu-nam, Bum Dae-soon, Kim Jae-hee, Kim Jeong-suk, Jung, Il-jin, Yun, Jong-seok, Choi Gyu-cheol, Kim Song-hee, Kim, Sang-kil, Wei Jeung, Jo Jeong-ja, Kim Seok-tae, Kim Ji-ha, and Kim, Il-ro joined the activities.

In 1970s, a military regime gave much stress on us. Under this situation, poems in Gwangju and Jeonnam internalized their rhythm and senses. At one time, they elaborated their lyricism hiding thunder and lightening that could explode like a live volcano. Literature was pushed by the logic of economic development and neglected. At this time, national literary persons society was organized, which was a chance to develop pure literature and the following poets were engaged in literary activities: Jin, Hun-seong, Yang, Sung-woo, You, Su-chang, Jung, Ryeo-seong, No, Hyang-rim, Guk, Hyo-moon, Oh, Myeong-gyu, Jeon, Won-bum, Jo, Byeong-ki, Jo, Young-hee,Song, Sang-wook, Song, Su-gwon, Lee, Jeong-ryong, Baek, Choo-ja, Choi, Yeon-jong, Choi, Jae-wan, Jung, Eul-sik, Hwang, Kuk-san, Choi, Gyu-cheol, Cha, Eui-seop, Kim, Ji-cheol,

Park, Young-june, Park, Sun-bum, Choi, Gyu-chang, and Park, Duk-jung.

In 1980, the most tragic event happened in Gwangju since the Korean War. Poets organized a poetry circle and tried to represent the spirit of literary persons by publishing collections of poetry to let the truth be known. Poetry circles in Gwangju and Jeonnam were full of energy and ambition in 1980s. They showed positive drive to break through pressure of reality in economy. And they represents distress to speak for emotion of the public through language, that is, poetry on labor, national unification, destruction of political and social absurdity, the truth of rural life, the isolated under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and being out of the fetters of ideology. The poets who finished military services and made literary debut in 1980s are: Hwang, Ha-taek, Park, Sang-hun, Lee, Lee-haeung, Son, Dong-yeon, Gwak, Jae-gu, Na, Jong-young, Ba다, Woo-seon, Go, Hyeong-ryeol, Na, Hae-chol, Lee, Ji-yeop, Park, Gwi-hye, Kim, Seon-ki, Oh, Jae-dong, Lee, Seong-gwan, Jung, Ki-seok, Hwang, In-tae, Jeon, In-sook, Yun, Gyeong-jung, Park, Rok-dam, Mun, Du-geun, Lee, Chung-ee, Kim, Jeong-sam, Lim, Ji-hyeon, Jung, Hyeong-taek, Cha, Jeong-mi, Song, Myeong-jin, Oh, Ki-il, Lee, Jin-young, Choi, Seung-gwon, Kim Jung, Kim, Ji-won, Min, Gyeong-tae, Park, Sun-kil, Yun, Sang-hee, Joo, Jeong-yeon, Chon, Byeong-tae, Sin, Byeong-eun, Kim, Jeong-sook, Kim, Han-sik, Lee, Seong-hyeok, Lee, O-bong, and Kim-In-seok.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and activities of the poets in each period in detail and the context of modern poetry literature in Gwangju and Jeonnam.

First, modern poetry literature explores traditional emotion through configuration of aboriginality and lyricism - through materials on hometown and childhood -, describes daily life in rural area, identifies original problems in life and provides the source of prosperous life by excavating consciousness on life.

Second, in respect to historical anger and restorative recognition on

world - representation of reality of suffering through unusual feelings and vivid languages - modern poetry literature focuses on abstraction of universal tradition of the public at that time through their specific life. It describes nihilism and identification with nature - targeting specific, personal and live encounter rather than abstract encounter, and the place where sorrow and optimism meets. To live is to have repetitive sorrow and optimism. Such feelings are configured through poetry.

This study categorizes the poetry by poets in 1960s, 1970s, and 1980s in Gwangju and Jeonnam into three sectors: configuration of aboriginality and lyricism, historical anger and restorative recognition.

제 1 장 서 론

본 논문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광주 · 전남의 시문학과 시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 특성을 밝히고, 각 시인들의 개별적 작품 활동상을 통하여 광주 · 전남 시문학 변천 현상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 논문을 진행함에 있어서 연구사를 서술하기는 매우 힘이 드는 일이다. 그 이유는 부분적으로 개인 시인에 관한 연구는 다소 있었지만 광주 · 전남 시인들을 전체 대상으로 하는 시문학 연구는 전혀 없는 상태기 때문이다. 본 시문학 연구 접근방법으로서 시문학이 일반성과 보편성에 근간을 둔 연구라면, 광주 · 전남 문학적 전통의 특수성과 지역을 바탕으로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광주·전남지역 시문학은 지역여건이 월등함에 있어서도 한국문학이 그러하듯 중앙이라는 서울 중심이 문학과 문단의 최고인양 바라보면서 지역경시 풍토와 서울우월성 경향으로 바라본 패러다임이었다. 작가가 시집출판이나 잡지에 등단함에 있어 지역에도 충실한 문학지와 출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발행한 잡지에 등단하면 마치 지방에서 발행한 잡지보다 우월감을 느끼는 사고가 팽배한 작금의 현실이라 하겠다.

오랜 전통적 문학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로서 지역문학과 지역문단이 바로 설 수 없다는 것 역시 이러한 인식착오로 인한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과 풍토에서는 광주·전남 시문학의 주소를 밝힌다는 것 역시 매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기에 지역 시문학에 대한 관심마저 끌어낸다는 것이 더욱 무척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광주·전남은 자연적 지리적 공간과 문화적 풍토의 인식을 인문·사회적 인식과 같이 할 때 비로소 시문학 연구의 방법은 훨씬 구조적이며 힘찬 출발점이 될 것이다.

자연의 유형은 시요, 시의 무형은 자연이라고 하였다. 예부터 인간의 삶의 정신적 요체인 문학을 우리는 더욱 중시해 왔다. 지역 시문학사 연구는 왜 필요하느냐에 있어 과거와 오늘날의 문학적 모든 상황들을 돌이켜보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농경사회로부터 산업민주화로 발전하는 근대

화에 성공된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러한 빠른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오늘날 황금만능주의에 심취되어 저질문화 선호에 안주하고 있는 사회현상이 깊어지면서부터 민족정신을 담아온 저력의 문학은 예술의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이 계속 이어진다면 문학은 스스로 소외되며 예술의 장르에서마저 열등의식 숲에서 헤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관계가 광주・전남지역 시문학을 문학메카로서 키워 나갈 주체적인 연구가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문학적 자양이 풍부한 광주・전남은 한국의 격동기와 혼란한 사회상을 극복하고 시대의 변화때마다 문학에로의 창작활동 양상을 가일층 높여 왔다. 그런 특수성이 개인적 문화공간에서 시문학적 공간으로 확충되어 문학성을 향상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본 고에서는 광주・전남 시문학의 참모습과 시대에 따라 이어지는 맥락상을 중심으로 하여 196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등단한 시인과 시작품으로 범위를 제한하여 그 상황과 문제들을 제기하고 이를 대상으로 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런 관점에서 양영길은 “지역문학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역문학사를 이끌어 나갈 전망을 제시하지 못하고 열등의식과 선망의식의 근간인 중앙 지향적 심리를 조장하여 진정한 지역문학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함은 물론 진정한 지역문학사의 전망을 어둡게 만들뿐이다”[1]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리고 양영길은 “제주지역 문학사 서술성격”논문에서 박태일 주장을 다음과 같이 ‘문학 연구는 지역공동체에 대한 실천문학임과 아울러 지난날의 문학연구 인습에서 벗어나려는 대항문학이며, 굳어진 문학소통 관행을 깨뜨리는 혁신문학이어야 한다’고 기술하였다. 이러한 의견들은 지역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함이라 할 것이다.

광주 · 전남지역 시문학에 대한 연구의 필요는 결국 지역문학의 집중적이고도 역사적 관점에서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광주 · 전남지역 문학을

1) 양영길, “제주 지역문학 서술의 성격 - 근·현대 문학를 중심으로”, 『白鹿語文』17(白鹿語文學會,2001) p.67.

경쟁력 있게 키워나가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결국 한국문학메카의 인식 전망을 새롭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광주 · 전남 현대 시문학연구의 대상을 전통적 소재와 순수서정 시대였던 60년대, 사회참여와 현실 비판시대였던 70년대, 민중시와 포스트모더니즘시대였던 80년대를 근간으로 하였고, 광주 · 전남 시인들의 시세계를 논하였다.

그리고 광주 · 전남 현대 시문학 연구 방법으로서 통상적인 시문학이 일반성과 보편성에 근간을 둔 개념을 타파하고, 광주 · 전남 문학메카 전통의 특수성과 광주 · 전남만의 역사성과 독자성을 바탕으로 연구가 되어야 광주 · 전남 현대 시문학이 확연히 드러날 것이다.

이러한 지역문학의 연구 방법에 대하여 양영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 바 있다.

> "우리들은 지역문학사를 역사서술의 수단인 통시성을 극복하고 공동체 사관(史觀)의 하나로 인식해야 한다. 근대화 패러다임과 발전이론에서 탈피하고 대안적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 지역의 생활을 재구성할 수 있는 생동하는 문제를 골간으로 파악된 문제 중심의 역사를 통하여 지역문학의 문학상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자리매김하는 적극적인 이론 구축이 시급하다. 지역문학의 든든한 뿌리는 독자적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의 생명력을 제대로 인식하는 이론 구축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 이러한 이론 정립은 본질적으로 해당 지역의 현지 연구로부터 발견되는 것이며, 실천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은 반드시 환류할 수 있는 이론이라야 한다. 환류를 통하여 그 지역의 문학 담당자 모두가 공유할 수 있을 때, 지역문학은 인식에 이르지 못하던 것들로부터 하나 둘 본연의 얼굴을 드러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역문학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2)]

광주 · 전남은 다른 지역에 비해 역사적으로 문학적 기반이 튼튼하였고 이러한 전통에 따라 현대에 와서도 훌륭한 작품이 많이 산출되었다. 그러므로 광주

2) 양영길, 앞의 논문 , p.72.

· 전남 지역문학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전제해야 할 내용과 해결해야 할 과제는 첫째, 광주 · 전남 지역만이 갖고 있는 문학적 전통의 특성성과 독자성을 바탕으로 한 현대 시문학 연구가 되어 독자적인 학문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둘째, 광주 · 전남 현대 시문학은 한국 격동기와 혼란한 사회상을 극복하고 시대적 급격한 변화의 시기마다 다양한 문학적 공간을 통해 현대시 향상을 도모하였다. 이러한 것들을 총망라 분석을 토대로 연구하여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한다.

셋째, 광주 · 전남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 전통과 역사적 맥락으로 광주 · 전남 현대 시문학이 총정리 되어 새로운 창작이라는 실천적 가치 창출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만연되어 가고 있는 보편적인 문학형성을 경계하면서 광주 · 전남 특수한 전례적인 문학 뿌리를 일궈 지역문학 형성을 체계화 한다. 그러므로 미래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문학메카' 로 터전을 굳혀 문학사 정립과 창작의욕을 높이는데 동기 부여가 되어야 한다.

다섯째, 광주 · 전남은 오랜 역사를 이어오면서 시문학을 대변할 수 있는 문학 테마로서의 '대한민국 문학메카' 성지조성이 이뤄져 대한민국이 문학입국으로서 21세기에 기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구들을 이루기 위한 광주 · 전남 시문학 서술방법은 일반적인 것보다 특수개념에서 새로운 장을 여는 서술적인 입장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문학 창작은 작가 몫이라 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문학의 전부는 아니다. 언제부턴가 거대화 되어버린 중앙이란 문단 구조와 지역문학사를 고려하지 않는 현실이 오늘의 큰 과제라 하겠다.

'역사는 세워가는 자에 의해 역사가 존재한다' 하듯이 본 논문은 광주 · 전남 문학적 역사를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광주 · 전남의 시문학과 시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 특성을 밝히고 각 시인들의 개별적 작품세계를 통하여 지역문학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제 2 장 광주 · 전남 지역 시문학 연구의 당위성

한국문학에서 광주 · 전남은 다른 지역에 예로부터 문학이 융성하였다. 윗대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고려때 광양출신 해동 제일 문장가 김황원 이라든가 조선전기에 있어 광주 · 전남에는 수많은 문인명사들이 배출되었기 때문이다.

이수광 저서인 『지봉유설』에 따르면 조선조 10대시인[3] 모두가 광주 · 전남 출신이었으며 효종 때 정두경이 조선조 인물인 양응정을 평하면서 광주·전남에는 높고 깨끗한 산수의 정기가 모여 시인 문장가의 기상이나 풍채로 뛰어난 호걸 선비가 많다고 한바 있다. 정조 역시 문장가들은 광주·전남이었다고 하였는가 하면 광해군 때 허균도 학문과 문장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인 10걸, 16걸, 3절이 전북 태인 이항을 제외하고 모두가 광주 · 전남이었음은 물음이 필요없다고 했다.

기록에 의하면 "광주·전남의 시단이 하나의 문학권을 형성하게 된 것은 조선中 · 明宗 이후 면앙정 송순(1493-1583)과 석천 임억령(1496-1568) 때부터로 알려져 있다. 하서 김인후(1510-1560), 금호 임형수(1504-1547), 미암 유희춘(1513-1577), 송천 양응정(1519-1581), 기암 백광홍(1522-1556), 사암 박순(1523-1589), 서하 김성원(1525-1597), 고봉 기대승(1527-1572), 제봉 고경명(1533-1592), 구봉 송익필(1534-1599), 송강 정철(1536-1593), 옥봉 백광훈(1537-1582), 고죽 최경창(1539-1583), 백호 임제(1549-1587), 석주 권필(1569-1612) 등이 전라도에 거주하면서 당대의 시문학을 주도하였다."[4] 고 하였다.

이렇듯 문학은 예부터 북쪽은 산문이요, 남쪽은 운문이라 하였듯이 남도를 '藝鄕' 이라고 일컫는 것은 예부터 예술의 전통이 살아 숨 쉬어 오늘에까지 면면히 이어오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시인들마다 역사정신의 상황의식은 확실하고도 특별하다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광주 · 전남만의 개성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특별한 부분이다. 그래서 각 시인들의 표정과 기질을 역설적 차원에

---

3) 이수광, 『지봉유설』 권14, 문장부 7, 조선시대
4) 이지엽 외, 『광주·전남 현대시문학 지도·1』, (광주 : 시와 사람, 2001), p.13.

서 언급한다면 원래 그 풍부한 표정과 기질을 순후한 땅의 기후와 풍토에서 얻어냈으면서도 떨쳐버리지 못한 시대적 열병을 끔찍이도 체험했다는 이유로 동일선상의 발성법에만 골몰하게 했던 한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광주 · 전남지역문학을 지역 전통적 시문학 특성을 살려 문학사적 역사를 높여야 한다.

지금은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교통은 물론 전파매체가 발달하여 서울인 중앙과 지역마다 과거에 비하여 하나의 구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실정에 감안하여 특수성에 입각한 지역 시문학의 새로운 가치를 높이는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

《필리프 이세와 프랑슈콩테》를 발표하여 새로운 학풍을 수립한 프랑스의 역사가 페브르(Febvre, Lucien) (1878~1956)는 "역사는 역사가에 의해 제기되고 세워진 연구가설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 역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이 말은 중앙 완성주의의 유령을 물리치는 주문이 될 것이다.

광주・전남 시문학은 서울이나 타지역에 비하여 지역의 문학적 특수성과 지리적 요건에서도 기인되었다고 하겠다. 예로부터 고려때 해동제일 문장가 김황원이며, 조선조 10대 시인과 경술국치로 왕조가 몰락하자 절명시 4수를 남기고 자결함으로써 문학과 사학 그리고 절의로 겸전한 매천 황현 등 모두가 광주・전남인이었다. 이러한 정신적 바탕이 오늘에까지 영향에 미쳐 지역 시인들의 활발한 활동은 광주・전남 시문학 연구의 원동력이라 하겠다.

'광주 · 전남 지역문학'이라고 하면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중앙문단 중심의 문학'과 차별화된 특정범주에 해당한다. '광주 · 전남문학'이 일반성과 보편성에 근간을 둔 개념이라고 한다면 '광주 · 전남지역문학'은 광주 · 전남 역사성의 특수성과 독자성을 바탕으로 한 개념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지역문학은 그냥 우리 앞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관을 가지고 인식해야 할 지역문학의 대상이다. 지역문학이 거기 있고 우리가 거기에 살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닌 우리들의 의지에 의하여 지역문학사의 상(像)은 그려지고, 또 이에 대하여 전망할 수 있게 되는 것"[5]이라는 양영길의 주장이 타당한

5) 양영길, 앞의 논문, p.68.

것은 이 때문이라 하겠다.

광주・전남 연대별 시문학이란 1950년대에 이어 1960년대는 전통적 소재와 순수 서정적이라면, 1970년대는 급격한 사회현실 참여와 비판적 활동이었다. 그리고 1980년대는 광주・전남이라는 특수한 지역적 환경이 민중시의 변천으로 활동양상이 변화되었다.

위와 같은 근거로 하여 광주・전남 지역의 시문학적 특성을 연구하는데 있어 타당성있는 당위성이라 하겠다. 특히 이 지역은 평야를 이룬 농토와 그를 둘러싼 평화로운 자연환경에서 온유하게 살아가는 상황과는 달리 정치와 문화적 환경이 열악하다. 그런 결과로 시문학에는 두 가지 특성이 나타난다. 하나는 자연현상에서 영향 받은 안빈낙도의 서정성이고, 다른 하나는 폭정과 비리에 항거하는 반항적 기질이다. 광주・전남의 시인들은 넓게 볼 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특성은 반드시 지니고 있다.

역사적으로 학문적 바탕이 현저한 경상도에 비해서 광주・전남 지역은 문학의 메카로서 높이 불릴 만큼 문학적 자산이 튼실하지만 그 진수는 아직도 묻혀있다. 일부 시인에 대해서는 문학적 연구 분석을 논의하였지만 화려한 광주・전남 문학의 총체적 연구는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광주・전남이 대한민국 문학메카로써의 당위성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는 중요한 연구 작업이 되는 것이다.

제 3 장 광주 · 전남 60년대~80년대의 문학사적 특성

1960년대의 광주 · 전남의 시문학은 4.19와 5.16의 정치적 격변을 겪으면서 비로소 활발한 기운이 움튼다. 1970년대는 권위주의 정권체제아래 고도의 경제성장과 산업화가 이루어졌지만 그 후유증으로 자유와 인권이 말살됐다. 광주 · 전남 지역은 자유와 인권의 중요성을 절감한 나머지 강압적 체재에 항거하여 참여문학을 지향하는 시인들의 저항활동이 다른 지역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 극심한 위축을 받게 된다.

1980년대는 5.18민주화운동을 기점으로 하여 민주화운동이 극렬하게 일어나며 많은 시인들이 민주화 운동을 하다 투옥된다. 따라서 현실참여를 지향하는 민중시가 시단을 풍미하게 된다. 그리고 민주화가 쟁취되자 신인들이 대거 등단하여 이 지역 시인들이 전국의 시단을 주도하게 된다.

제 1 절 전통적 소재와 순수서정(1960년대)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산업기반의 취약성을 안고 1950년대가 다할 때까지 침체와 혼란을 거듭하다가 1960년대 벽두부터 4.19로 인한 자유당 1당 독재가 붕괴된다. 그리고 5.16으로 인한 군사정부의 등장으로 민주화의 과제는 근대화의 발전 논리와 냉전체제의 안보 논리에 휘말려 결국 길고 긴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다. 이렇듯 1960년대는 모순과 갈등의 시대였다. 식민지시대를 거쳐 분단비극의 연장선상에서 다시 4.19혁명과 5.16쿠테타라는 역사적 사건을 연이어 겪으면서, 한국의 문단은 1950년의 문학을 계승 발전시켜 보다 성숙된 현대문학으로의 발전을 꾀하게 된다.

1960년대의 문학은 근대화로 인한 사회적 모순의 심화로 비인간화에 대한 비판과 저항이 나타나며, 6.25전쟁의 상흔과 민족분단의 비극에 대한 역사적 관심과 성찰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 뿐만 아니라 서정주의와 시적 언어에 대한

집요한 천착으로 시문학의 본질적 영역을 탐색하게 되며, 체계적인 문학이론의 탐구와 현대시의 성격규범 작업이 본격화되기에 이른다. 그 결과 두드러지게 나타난 작품 경향으로는 4.19와 5.16의 충격과 영향으로 투철한 현실인식에 근거하여 적극적으로 변혁의 의지를 작품 내에 수용하고자 하는 참여문학이 본격화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관심을 강조한 문학작품과는 달리 전통적인 순수 서정과 낭만성을 강조한 경향의 문학작품들도 크게 대두되었다.

여기에서 먼저 문학사 또는 문단시를 살펴보기로 한다.

광주 · 전남의 문학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기성문인이나 신인들이 새로운 의욕을 품고 문학도로서의 꾸준한 작업을 했으며, 특히 신인들은 4월 혁명의 실존적 주제를 표현해 보려는 경향을 강하게 보였다. 광주문학의 출발점은 광주일보(전 전남일보) 김남중 사장 주선 하에 1961년도 4·19기념행사를 개최하는 시점부터라고 본다. 차원으로 전남여고 강당에서 전남문학의 밤을 개최, 문학강연 시낭송회를 하였으며, 동시에 판문점 다방에서 시화전을 개최하였다. 이때 김현승, 허연, 이수복, 김악, 정소파, 이해동, 이효례, 이영권, 최승호 등의 작품이 전시되었다는데 의미가 크다. 이 전시회가 광주・전남에서는 최초 문인들의 시화전이었다. 이 행사가 끝난 다음 이들 문인들에 의해 광주에서 전남예총과 문협이 창립되었는데, 초대 예총 회장에 김남중, 초대 전남문협 회장은 백완기였으며 문협간사는 이영권이었다.

한편 목포에서는 1960년에 차재석을 중심으로 한『木浦文學』창간호가 나왔다. 그리고 4·19와 5·16혁명으로 제2집이 3년만인 1963년 7월 23일 발행되었다. 여기에 참여한 시부 회원은 윤삼하, 권일송, 정규남, 범대순, 김재희, 김정숙, 정일진, 윤종석, 최규철, 김송희, 김상길, 위증, 조정자, 김석태, 김지하, 김일로 등이었고, 편집위원은 차재석, 김현, 최하림 등이 맡았었다. 그리고, 주명영, 박흥원, 박문재, 정재완, 박성룡, 박흡, 안도섭, 김해성, 박봉우, 정현웅, 윤삼하, 이일, 박이문, 강태열 등은 중앙문단에 활발하게 작품을 발표하였으며 임보(본명;강홍기), 이성부, 문병란, 손광은 등은 현대문학의 추천을 받았다. 그 외에 여수의 박보운, 순천의 이준행, 광주의 김현석, 이영권, 박형구, 최승호가 작품 활동을 열심히 하였다.

1964년에는 정소파, 황양수, 허연, 김해성, 범대순, 윤삼하, 안도섭, 박흥원, 이경인, 김현석 등이 《시예술동인회》를 만들어 동인지『시예술』을 내고, 권일송, 박춘상, 오승재, 김중배 등은 《월요문학동인회》를 결성하였으며, 이성부, 문삼석, 김수봉, 전양웅, 양동원, 구재필, 김태중, 장명숙 등은 《순문학동인회》를 결성하였다.

1965년 7월에는 광주에서 김만옥이 중심이 된 《詩鄕同人會》가 결성되었는데 창간호에 참여한 동인들은 금동식, 권원식, 김만옥, 김용길, 정정, 노완홍, 손명희, 유상덕, 이무일, 차명홍, 최승학, 한옥근, 주이향, 김영재, 정중수 등이었고, 그해 10월에 간행된 제2집에는 최승학, 김영수, 남궁성, 임병호, 차평자, 이준행, 표성흠, 윤채환, 조야백, 조남철, 정옥경 등이 추가로 참여하였다.

1967년에는 권일송, 정현웅, 윤삼하, 범대순, 박흥원, 문병란, 손광은, 박희연, 송선영, 황길현, 김현곤, 송기숙, 안영, 구창환 등이 원탁문학회를 결성함으로써 이 지역 문학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했다. 그 후 원탁시문학회로 거듭나 원탁동인시집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출간하고 있다. 창간 동인 외에 새로 참가한 동인은 강인한, 김재흔, 김재희, 김종, 문도채, 백추자, 송수권, 오명규, 이향아, 장효문, 정재완, 주기운, 진헌성, 박덕은, 조병기, 전원범, 최재환, 최하림, 차의섭, 최봉희, 허형만 등으로 이 지역에 붙박고 사는 27명의 시인들이 '非에콜의 에콜'을 모토로 하면서도 '예술의 초월적 지도성의 復古'를 실현시키기 위해 헌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처음에는 그냥 한 달에 한번 정도 왕자관이라는 음식점의 圓卓 주위에 모여 앉아 문학에 관한 환담을 나누었으나 차차 그 문학에 관한 동인들의 작품 이야기가 圓卓을 중심으로 무르익어 어쩔 수 없이『圓卓』지를 발간하게 된 것이다.

이보다 1년 앞서 목포지방에서는 1966년에 시전문동인지 『黑潮』가 나오게 되고, 1967년에는 연달아 『보름문학』,『해안선』,『목요회』,『목문학』 등의 동인지가 선을 보였다. 『흑조』동인지는 주정연, 정영일, 박광호, 김창완, 양문렬 등이 창립회원으로 참여했는데, 지금까지 꾸준히 지속되어 동인지를 발간하고 있으며 문학의 밤, 시 낭송회, 문학기행, 출판기념회 등 활발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보름문학』은 최덕원, 차원재, 박동철, 명기환 등이 창립회원으로

참가하였으며 시낭송회, 출판기념회, 문학의 밤 등을 개최하면서 목포지방의 문학 열기를 대변하고 있었다. 『해안선』은 초등학교 문예부 지도교사들로 구성된 종합 문학 동인회로서 1년에 두 번씩 방학 때를 이용해 모임을 갖고 문학기행과 시평회, 시화전 등을 개최하고 자매지인 아동작품집 『모래알』(1968.2.10)을 발간하고 교사 문예작품집 『순수지대』(1969.11.25)도 발간하였다. 『해안선』 동인시부에 참여한 회원은 강갑순, 김준기, 김원기, 김성자, 김길순, 김현수, 박진남, 박무웅, 이준행, 홍서구, 양문렬, 윤미순, 김상수, 최덕희, 양대성, 김용원 등이었다. 그리고 『목요회』 창간호 시부에 참여한 회원은 김관식, 임차량, 윤덕, 이태웅, 김봉식, 천원주, 박공자, 김운희, 박옥진, 김엽자, 최두호 등이다. 또한 박순범(시)이 중심이 된 『목문학』 창간호 시부에 참여한 회원은 김재희, 김신철, 정주수, 이준행, 김상길, 김복임, 김춘애, 김관호, 최연종, 김수원, 최희웅 등이다.

이 무렵 여수지방에서는 한파문학과 역우문학의 박보운, 한장춘, 서정선 등의 문인들이 활동하기 시작했으나 《시작동인회》로 합류 개칭되어, 박보운, 최정웅 등이 1962년도에 동인지 『시작』 제1집을 발간하였는데 그것이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었다. 1962년 여수 해안통을 중심으로 군대에서 갓 제대한 조정현 등이 해암동인회를 결성 여수 동정에 있는 등대다방에서 문학의 밤을 개최하고 이어서 『해암동인지』를 프린트 책자로 발간하였으나, 그 역시 후에 맥을 계속 잇지 못하였고, 이때에 짚신, 낙서족, 석초, 가로수 등의 동인회도 있었으나 이어지지 못하였다. 이렇게 60년 초부터 박보운(시), 한장춘(시), 송병진(시), 여춘길, 이종섭, 조정현, 유흥석 등과 같은 문인들은 60년대 여수문학의 뿌리를 정착시키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러한 문학운동이 협동적으로 발전되어 1968년에 《여수문협》이 창립되었다. 이처럼 《여수문협》이 정식으로 출발하면서 그동안 시작 동인회가 일해 왔던 각종 문학 행사 등을 이들이 승계하게 되었다.

60년대 등단한 시인들은 박진환(동아일보 60), 박보운(자유문학 60), 강태열(사상계 60), 이훈(전남매일 60), 최봉희(자유문학 60), 허의령(사상계 61), 이영권(전남매일 61), 전민우(자유문학 61), 김정숙(현대문학 61), 이성부(현대문

학 61), 김하림(자유문학 61), 박진호(자유문학 62), 박홍원(현대문학 62), 임보(현대문학 62), 강홍기(현대문학 62), 문병란(현대문학 62), 최동일(한국일보 62), 김송희(현대문학 63), 박문재(전남일보 63), 오경남(현대문학 63), 손광은(현대문학 64), 조태일(경향신문 64), 최하림(조선일보 64), 황하택(개인 시화전을 통해 시화집 발간, 64), 범대순(시집 65), 오순택(시문학 66), 김규화(현대문학 66), 김만옥(사상계 66), 김종(문학시대 66), 문두근(문학시대 66), 윤재걸(시문학 66), 이향아(현대문학 66), 박건한(문학 66), 강인한(조선일보 67), 김현곤(원탁시 67), 김재흔(현대문학 68), 민용태(창작과 비평 68), 오세영(현대문학 68), 정지하(공보부신인상 68), 김엄조(광주·전남매일 68), 김준태(전남일보 69), 문정희(월간문학 69), 문도채(시문학 69), 박금현(전남일보 69), 이시영(월간문학 69), 이환용(현대문학 69), 박광호(시집 69), 정지하(시인 69) 등이다. 이토록 1960년대부터 광주·전남 출신 시인들의 중앙 진출이 활발하여 많은 시인들이 중앙과 지방 문단에서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한편 1961년에 최초로 김남중(수필)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하여 《전남문인협회》가 결성되었으니 이는 전남문학으로 크게 기록될 일이었다. 초대 임원진은 백완기 회장, 이영권 총무간사 체제로 10여 년간 운영해 오다가 1969년도 허연(시)회장으로 바뀌었다.

1960년대는 전통적 순수서정시 정신의 바탕하에 전란의 상흔을 극복하고 4.19와 5.16을 거쳐 정치경제적으로 발전을 이룩한 시기이다. 그리고 좌・우 이데올로기의 격심한 대립으로 극도의 혼란을 겪었다. 해방 공간과 6.25의 비극적 체험을 겪고 난 뒤, 사회, 역사적 현실을 정신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다양하고 심도 있게 극복해 가는 시기에 지역문단이 결성되었다.

이때부터 문인단체의 새 보금자리를 틀고 문학인들이 소속감을 갖고 이성부, 박홍원, 오세영, 강인한, 송수권 등 순수하고 서정성이 강한 창작활동을 하며 문학발전의 초석을 닦았다. 특히 조선대학교는 전국을 상대로 하여 전국대회를 개최하여 문학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60년대에 등단한 시인들의 활발한 동인활동으로 우수한 작품들이 많이 산출되어 지역 자생문학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제 2 절 사회참여와 현실비판(1970년대)

1970년대는 이른바 산업화 시대다. 정치적으로는 제3·4 공화국의 억압시기였고, 경제적으로는 베트남 특수를 바탕으로 한 재벌 중심의 경제성장기였으며, 사회적으로는 농촌해체와 함께 학생, 노동, 도시빈민 운동이 확산되던 시기였다. 이렇게 이 시대는 우리 사회가 급격한 산업화의 과정에 돌입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의 변동을 겪게 된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경제의 급성장과 근대적인 산업체계의 확립, 도시화 대중문화의 확산, 생활 유형의 다양화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독재정권의 억압,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 노동계층의 소외, 환경파괴와 공해문제 등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아래 1970년대 문학은 현실에 대한 대응 방식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1970년대의 우리 문학은 현대문학의 발전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에 크게 대두되었던 문학 작품은 민중의 건강한 삶과 저항의식을 표출하거나 농민의 생활상을 소재로 그들의 삶을 형상화하는 것, 독재정치와 산업화에 다른 계층적 갈등이 심화되는 현실을 비판하는 것, 상업화로 인해 소외된 도시 빈민과 이농민들의 삶 등의 민중문학 계열의 작품이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광주·전남의 시인들은 언젠가는 활화산으로 포효할 크나 큰 뇌성벽력을 용케도 감추고 서정의 진수함을 다듬고 또 다듬었다. 그리하여 차츰 도시산업화라는 미명하에 일방적으로 소외되고 희생당한 노동자 농민들의 직접적인 삶을 조명하고 위무하고 시적 리얼리즘에서부터 한국 서정의 전래적 인식을 탁월한 상상력으로 언어화한 순수서정까지 다양하게 반응되어 나타나게 된다. 특히, 성장기인 70년대는 한국 사회의 현상적 모순의 두 계기인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에 대한 치열한 현실인식과 비판을 통해 그 극복의 당위성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였다. 고은, 신경림, 김지하, 최하림, 이성부, 조태일을 비롯해 김준태, 정희성, 이시영, 김명수 등의 시를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과 풍자가 강하게 표현되는가 하면 또한 서정성 짙은 어법으로 드러나기도 했다.[6)]

---

6) 권영민, 『한국현대문학』, (민음사, 1993), pp.232-252.

한국 사회에서 70년대는 본격적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 결과적 징후들이 여러 부면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7]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 정치구조에서의 관료적 권위주의의 확대, 문화적 특성으로서 대중문화의 전개에 대한 논쟁들이 70년대 이후의 한국사회의 성격과 모순을 구명하려는 주요 주제로 대두되었다. 그러한 논의 가운데 특징적이면서도 공통의 분모가 되고 있는 개념이 바로 '민중'이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60년대 이후의 경제 성장과 산업사회로의 이행이라고 하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 일어난 일련의 실천적 움직임을 가장 잘 드러내 줄 수 있는 개념의 하나가 민중이라는 것이다. 현실적 체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사실, 갈등의 양상을 첨예하게 드러내 주는 문학에 있어서도 민중적 지향성을 지닌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읽히며 활발한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시기에 광주 · 전남출신 문인들의 중앙진출이나 활동도 왕성했다. 그러면서도 또한 광주지역, 목포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시인도 수적으로 막강하였다. 1970년대 들어와서는 《전남문협》은 백완기 회장에 이어 제2대 회장인 허연이 맡고 있는 《전남문인협회》가 활동을 계속하여 1973년 6월에 연간집 『전남문단』을 창간하여 각 장르별로 문학적 성과를 결산하였다. 이 『전남문단』은 1986년 14집까지 발간되었으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그해 11월 1일자로 광주직할시가 전남으로부터 분리되자 《전남문인협회》는 광주문인을 제외한 전남거주 문인중심으로 재조직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후 『전남문단』을 『전남문학」으로 책명을 바꾸어 15집부터 발간하게 되었다

그리고 『전남문단』은 전남문학상을 제정하여 1979년 제1회 승지행부터 수상이 시작되며 제2회 문병란, 제3회 문순태, 박종현, 제4회 정재완, 송규호, 제5회 강인한, 김준태, 제6회 김신운, 제7회 허형만, 김옥애, 제8회 송선영, 1989년도 김구봉 김재흔이 수상하게 되었으며, 1989년도부터는 전남문협 회원 중심

이밖에도 1970년대 시의 흐름에 대해 이승하는 (1)현실 참여의 시, (2)자유 정신의 시, (3)서정시의 다양성, (4)문명 비판의 양상, (5)소시민 혹은 온건주의자들의 노래, (6)장르 확산의 노력과 전통리듬의 수용 등을 통한 시 형식의 변화 등을 주된 분석 틀로 삼고 있으며, 특히, 사회의식을 반영한 서정시로 이시영 시인의 시를 거론하고 있다.
이승하, 『한국 현대시 비판-한국 시의 새 지평을 찾아서』, (月印, 2000), pp.278-280.

7) 70년대의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는 한국사회학회(편),『70년대 한국사회-변동과 전망』, (서울 : 평민사, 1980) ; 김경동,『경제성장과 사회변동』, (서울 : 한울, 1983)등 참조.

으로 수상이 되었다. (박보운, 박순범, 김학래, 김철수, 강무창, 윤종석, 정용채, 김정삼, 김수자, 명기환, 장생주, 정기석, 최덕원, 김정삼, 김수자, 명기환, 장생주, 정기석, 최덕원, 정순열, 서오근, 김재용, 김수기, 천병태, 고영엽, 황하택, 최일환, 김병효 등)

1970년대는 60년대에 결성된 동인들의 활동이 계속되었으며 이어서 새로『청호문학』(1976),『민족시』(1977),『목요시』(1979),『모란촌』(1974) 등의 동인지들이 창간되었다. 목포의『청호문학』은 처음 박순범(회장), 최일환(총무)이 중심이 되어 결성되었고, 고복록, 강성상, 김재용, 권기태, 김학래, 양회성, 이중기, 김신철, 이재희, 김광채, 최재환, 정기석, 채승재, 김종두, 조승기, 김엄조, 장근양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동인지를 20호까지 발간하였다. 강진의『모란촌 문학』은 처음 차부진(회장), 정문석(총무)이 중심이 되어 결성되었으며 박양배, 이형희, 김영렬, 김영배, 주전이, 김정수, 김영진, 김정태, 장생주, 조강국, 김한성 등이 참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동인지를 꾸준히 펴내고 있다.『목요시』는 고정희, 강인한, 국효문, 김종, 송수권, 김준태, 장효문, 허형만 등이 참여했었으며, 1980년대 초에는 시문학과 사회 역사의식을 접맥하려는 노력을 보여 주었다.

여수에서는 71년 여수문협 주관으로『관솔』제1집을 발간하였으며, 72년 9월에는 제2집을 발간하였다. 75년도에는『관솔』을『여수문학』으로 제호를 바꾸어『여수문학』제3집을 발간하였으며, 현재 제29집까지 발간하여 문인들의 창작 활동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1971년 1월 조선대학교에서 결성된 《나락문학회》는 66년에 결성된 《조대문학동인회》를 이어받아 탄생된 단체다. "전라도인 다운 긍지와 투지로 창작활동에 전력을 다하여 전남의 문학과 나아가서 한국 문학의 발전에 기여하여 전라도에서 세계를 보는 눈을 길러 내기 위함"이라는 취지를 내세웠다. 《나락문학회》은 69년대 후반에 결성된 향토문학동인의 후신으로 회원 중에서 김준태(시), 설재록(소설, 희곡), 이한성(시조), 정철(희곡), 백수인(평론), 이계양(시), 차창룡(시) 등 많은 문인들을 배출하였으며 동인지도 8집까지 출간되었다. 한편 조선대학교 《석혈동인》은 1971년 5월 김광석 외 68명이 발기하여 출발하였다. 그들은 문학의 밤, 시화전, 지역 백일장, 창작 수련회 등 활발한 활동과 지

역 봉사를 통하여 문학 사상을 심어 주었으며, 동인지 14집까지 발간하는 대장정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1976년 3월에는 전남대학교 문학 동호 학생들이 기존했던 《용봉문학동인회》를 재조직하였다. 그해 6월에 제1회 시화전을 갖은 후 매년 연례행사로 시화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1976년에 첫 동인지는『용봉문학』을 등산판으로 출판하였는데 이때 참여한 회원은 기상표, 곽재구, 박몽구, 나해철, 신옥식, 이성호, 김상순, 김신중, 위성읍, 임한곤, 최상규, 임낙평, 위명은, 서창열, 이미란, 박춘구, 장연수, 정삼수, 김수현, 황선옥, 김성훈, 오은주, 양해진, 채복희, 김형근, 임양성, 노정인, 정현숙, 배춘상, 이효남, 박재성 등이며 범대순, 손광은, 정재완 교수와 김세웅, 나종영 선배들의 작품들도 곁들어 실었다.

1978년에는 《전남문인협회》가 현영국씨의 후원을 받아 전남문학상을 재정하였으며, 1979년 승지행이 제1회 전남문학상을 수상하였다. 이 상은 제9회까지 해마다 시상해 오다가 1989년 10—17회까지는 서울 거주 재경전남향우들 후원으로 시상했다.

1970년대에 등단한 시인들은 진헌성(현대문학 70), 양성우(시인 70), 유수창(전남일보 70), 정려성(전남일보 70), 노향림(월간문학 70), 국효문(중앙일보 71), 위증(저서발간 71), 오명규(현대문학 72), 전원범(전남일보 72), 조병기(시조문학 72), 조영희(저서발간 72), 허형만(월간문학입선 73), 김승희(경향신문 73), 김창완(서울신문 73), 박주관(풀과 별 73), 최병두(전남일보 73), 최정웅(전남일보 73), 노창수(현대시학 73), 김남주(창작과 비평 74), 장효문(시문학 74), 고정희(현대시학 75), 송상욱(저서발간 75), 송수권(문학상 75), 이정룡(월간문학 75), 백추자(시문학 76), 최연종(월간문학 76), 최재환(중앙일보 76), 정을식(전남일보 76), 황국산(시문학 77), 최규철(시문학 77), 차의섭(현대문학 77), 김지철(시문학 78), 박영준(저서발간 78), 박순범(아동문예 78), 최규창(월간문학 78), 박덕중(현대문학 78) 등이다. 특히 문병란, 조태일, 김지하, 양성우, 김남주 등이 당시 국가비상조치로 구금을 당하거나 부당한 피해와 수난을 겪었다.

1970년대는 경제발전의 논리에 밀려 문학예술이 소외되었다. 특히 민주화를 주창하는 민족문학작가회의가 결성되어 이때부터 문단이 보수와 진보의 양 진

영으로 갈리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속칭 참여문학과 순수문학이 발전하는 계기가 조성되었다. 이때 등단한 시인 가운데 김지하, 문병란, 황지우, 양성우, 김준태 등 일부시인들은 참여시로 왕성한 작품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활동을 제약을 받기도 하였다.

제 3 절 민중시와 포스트모더니즘(1980년대)

1980년은 6.25 동란 이후 가장 큰 비극인 광주 항쟁이 일어난다. 시인들은 처절한 현장인 금남로에서, 그리고 시민군이 묻힌 망월동에서, 때론 무등산을 원경으로 잡고, 때론 새벽의 도정을 클로즈-업 하면서, 한 꺼풀 한 꺼풀 항쟁의 껍데기를 벗겨 나갔다. 신문과 방송이 침묵하고 있을 때, 소설가들이 원고를 서랍에 넣어 두고 눈치만 보고 있을 때,[8] 시인들은 가장 먼저 광주의 참상을 알려 나갔다. 이 시인들이 한 행 한 행 시를 적어 나갈 때마다 무등산과 전남도청을 떠돌던 넋들이 하나하나 누울 곳을 찾았고, 한 편 한 편 그 시들을 읽어갈 때마다 독자들은 그 슬픔이 어떻게 승화되어야만 하는가를 되새겼다.

문학의 공간은 사회 변동이나 정치적 변화에 따라 변화되어 가는, 즉 대화하는 공간이다. 이런 측면에서 80년대의 광주 · 전남은 좌절된 자유정신의 불꽃을 내부에 감추고 무엇인가를 향하여 끊임없이 부딪치고 모색하는 영혼의 공간이었다. 김준태나 송수권이 쓰고 있듯 청춘의 도시이며 무등산을 배경삼아 무엇인가를 터뜨려야 할 만큼 미망의 세월을 삭이고 있었다.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언론 통폐합, 노동 관계법 개악, 노조 탄압, 민주 인사에 대한 탄압과 고문 등 갈수록 강도를 더해 가는 군사 정권에 맞서 김남주, 박노해, 황지우, 백무산, 박영근, 김해화 등이 한층 격렬한 목소리로 시대의 모순에 정면 대응했다.[9] 여기

---

8) 광주항쟁을 다룬 소설은 대부분 1985년 이후에야 비로소 햇빛을 본다. 이에 반해 시는 항쟁 직후부터 터져 나오기 시작한다. 항쟁에 대한 문학적 대응을 고찰하는 모든 글의 시의 선도적 역할에 동의하고 있다. 대표적 글로서, 임헌영, 『5월 문학의 역사적 의의』, 문병란· 이영진 엮음, 『누가 그대 큰 이름 지우랴』(전주 : 인동, 1987), 김준태, 『5월과 문학』 (광주 : 남풍, 1988), 고은, 『광주 5월 민중항쟁 이후의 문학』,(서울 : 풀빛, 1990). 이황직, "5월시의 문학적 위상" 『언어세계』 봄호, (1996).

9) 민영외 편, 『한국현대대표시선 III』, (창작과비평사, 1993), pp.214-222.

에 그래도 어금니를 앙당 물고 은밀하게 조금씩 숨죽이며 일어섰던 문학정신의 소생은 시대의 빙판을 녹이는 봄날을 구가하게 했다. 이것도 하나의 전략으로 간주할 수 있다면 길이의 문제가 아니라 효능의 문제였다. 그래서 드러나게 소설적 현상이 아닌, 시의 현상이 시대정신의 광채를 지키는 하나의 전략에 진배없었다. 그 같은 자리에서 광주정신을 모색과 갈망으로 드러낸 『목요시』의 진행선상에서 오월시가 성장했던 것은 소중한 문학적 성과임을 틀림없었다. 80년대의 지향과 흐름에는 현실정신의 핍박함을 돌파하려는 추진력이 실려 있었다. 1980년대 문학계 논의의 핵심은 민중문학, 민족문학과 리얼리즘,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것이다. 1980년대의 평론계를 주도한 백낙청은 문학성의 변증법적 인식에 대해 논하면서, “문학을 비변증법적으로 인식하는 표본으로서, 우선 문학성 내지 문학의 본질을 형이상학적으로 설정하는 태도, 가령 예술지상주의라든가, 또는 그보다 조금 범위가 넓은 개념인 문학주의와 같은 태도가 한 예가 되겠습니다. ‘심미적 가치’, ‘보편적 원형’이라거나 ‘시공을 초월한 진리’라거나 하는 등등으로 어떤 관념적인 실체를 미리 정해놓고 문학을 규정하고 판단하는 태도를 형이상학적 접근법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10]라고 하면서 문학에서의 순수주의, 예술지상주의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1980년대에는 전시대의 순수 참여 논쟁에서 참여문학이 판정승을 거두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들이 민중의 정서를 언어로 대변하는 여러 갈래의 고뇌로 나타나면서 노동시, 민족통일을 발양한 시, 정치와 사회의 부조리를 타파한 시, 농촌 문제를 진실로 갈파한 시, 산업화·도시화의 그늘에 묻힌 소외된 자의 삶을 노래한 시, 이데올로기의 굴레를 벗어나려는 시 등으로 흐르고 있었다.

광주 · 전남시단이 바로 이 같은 흐름을 선두에서 모색하고 추진했었다면 나라전체의 시단을 책임질만한 성과로서도 손색이 없었다. 광주는 환란을 치룬 후부터 광주를 노래하는 일만으로도 오롯한 긍지의 소산이 되기도 했다. 80년대의 광주 · 전남시단은 우선 의욕과 패기가 넘치고 있었다. 암울과 침체를 걷어내고 질곡을 녹이는 극광 같은 시를 쓰는 자랑스러운 시인들로 나름의 키 재

10) 백낙청, 『민족문학과 민중문학』, (지양사, 1985), p.33.

기를 거듭하고 있었다. 사랑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면서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고자 존재론적 근원에 접근해간 시를 쓴 박상천과 소시민의 애환을 소재로 하여 그 소재의 확산과 집중이 경이로울 만큼 섬세한 박문재는 똑같이 1980년 『현대문학』지면으로 문단에 나왔다. 같은 해에 등단한 송무는 『언어의 세계』에 시 <어린 조카의 죽음을 슬퍼하지 아니함>, <한 열등한 도시인의 밤> 등을 발표하면서부터 괴로웠던 문명과 제도에 순응하고 있는 인간의 소극성을 노래했다. 시집 『가슴속에 흐르는 강』, 『바람에게』 등을 선보이고 <떠남>과 <만남>의 피리를 통하여 문명비평적인 휴머니즘을 추구하는 조병기는 1981년 『현대문학』으로 세상에 나왔으며 삶의 고뇌와 이 고뇌가 점지한 인간을 커다란 주제로 노래하고 있다. 1981년 『불교신문』 신춘문예와 1983년 『현대시학』에서 시가 추천되어 등단한 오재동은 『운암리 시편』 등의 시집을 내면서 향토성을 바탕으로 한 동심적 체험을 감각적 언어로 그려내고 있다.

1980년 5·18광주민중항쟁을 겪으면서 광주・전남의 문학은 많은 변화를 보였다. 김준태, 송수권, 장효문을 주축으로 한 《목요시》 동인들은 5·18광주민중항쟁의 체험을 시화하려는 노력을 보여 주었다. 《오월시》 동인들은 1981년 『이 땅에 태어나서』를 통해 첫 모습을 보인이래, 시가 과연 역사와 희망과 구원이 될 수 있는가를 모색하였다. 그리고 뼈저린 추억, 시대적 모순의 연속으로부터의 방향성 획득, 제3세계 문학으로의 접근과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내부의 대결성에 대하여 관심을 집중하였다. 그들은 처절하리만큼 쓰라린 역사적 체험을 소시민의 삶 속에 투영시켜 노래하고 있다. 이 시기에는 특히 박주관, 나종영, 나해철, 박몽구, 곽재구, 이영진, 최두석, 김희수, 황지우, 최승권 등의 시가 전문단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밖에 김소원, 이상설, 최동일, 문두근, 황하택 등은 『그날의 전선』 시집을 발간하여 창작에 몰두했다.

그리고 문학의 시간적 공간적 수용성을 확대시키기 위한 새로운 서정의 몸부림을 보인 이용범, 박상석, 유강희, 정양주, 최승권, 이재창, 이진영 등 《5세대 시동인》들의 출현과 전남대 《비나리 동인》은 국문학과 중심으로 창립하여 활동하고 오다가 1984년 여름에 첫 동인지 『가자 피 묻은 새떼들이여』를 출판하였는데, 참여회원은 윤정현, 김난영, 김경윤, 류진주, 송하경, 임동학, 박철홍, 이종

주, 송광룡, 이형권 등이며, 선배들의 작품은 손광은의 <보리타작>, 양성우의<말(言語)>의 작품이 수록되었다. 《비나리 동인》 선언은 “예술은 현실의 경험 속에서 긴장된 대립과 갈등으로부터 탄생되고 궁극에는 이 한계성을 극복하고 역사적 순간에서 올바른 세계관을 창조한다”고 선전하였다. 이들은 광주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광주문화의 새로운 국면을 시도하고 있다. 이들의 시는 보수성, 감상주의 낭만적 서정주의의 극복이 선결 과제라고 제시할 만큼 변화를 요구했다.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에도 황토 흙바람 같은 직접 호소의 절창이 있었다.

이 무렵 『민의』라는 무크지가 탄생되어 이승철, 박영희, 김하늬 등을 배출했으며 박선욱, 김남주, 김하늬, 최승권, 임동확 등은 《민족작가회》를 조직하였다. 목포권에서는 《詩流》(1980), 《木浦詩》(1983), 《시울문학》(1983) 등을 중심으로 활발한 동인 활동이 이루어 졌으며, 그 밖에도 진도의 《섬문학》(1980), 해남의 《남촌문학》(1984)과 《해남문학》(1987), 순천의 《순천문학》(1984), 무안의 《무안문학》(1984), 장흥의 《별곡문학》(1985), 여수의 《갈무리문학》(1986),《노을문학》(1988)과 《기독교문학》(1989), 영광의 《칠산문학》(1988), 화순의 《화순문학》(1988), 구례의 《구례문학》(1989, 강진의 《온누리문학》(1989) 등이 지방별로 조직되어 향토문학의 토양을 기름지게 하였다.

한편 80년대 후반에 들어 정부의 행정구역 재편으로 인하여 1986년 11월 1일자로 전남에서 광주직할시가 분리되어 나게 되었으니 《전남문협》이 《광주문협》과 《전남문협》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이때 초대 회장에는 광주 송선영에 이어 손광은, 전남 최일환이 각각 맡았다. 그리하여 연간집 『전남문단』도 14집으로 끝나게 되었으며 뒤를 이어 『전남문학』과 『광주문학』으로 이름을 바꾸어 발간하게 되었고 『전남문학』이 『전남문단』 14집을 이어 받아 15집부터 새롭게 이 지방 문학 활동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1980년대에 등단한 시인들은 황하택(시집:그날의 전선, 80), 박상천(현대문학, 80), 송무(언어의 세계, 80), 이이행(시문학, 80) 손동연(서울신문, 80) 곽재구(중앙일보, 81), 나종영(창작과 비평, 81), 백우선(현대시학, 81), 고형렬(현대문학, 82), 나해철(동아일보, 82), 이지엽(한국문학, 82), 박귀례(현대문학, 83),

김선기(경향신문, 83), 오재동(현대시학, 83), 이성관(시와시론, 83), 정기석(시문학, 83), 황인태(시집:대하로 흐르는, 83), 전인숙(심상, 84), 윤경중(문예사조, 84), 박록담(광주일보, 84), 문두근(시문학, 84), 이충이(월간문학, 84), 김정삼(월간문학, 85), 임지현(심상, 85), 정형택(월간문학, 85), 차정미(시인, 85), 송명진(월간문학, 86), 오기일(한국문학상, 86), 이진영(서울신문, 86), 최승권(중앙일보, 86), 한승연(시집:소라의 성, 86), 김선기(시와시론, 87), 김정(표현, 87), 김지원(현대시학, 87), 민경태(심상, 87), 박순길(시문학, 87), 윤상희(현실시각, 87), 주정연(시집:떠오르는 바다, 87), 천병태(시조문학, 87), 오인철(시와의식, 88), 정상기(한국시, 88), 신병은(시대문학, 89), 김정숙(문학과 지역, 89), 김한식(한국시, 89), 이승혁(한국시, 89), 이오봉(시집:오후를 깎으며,89), 김인석(시집:목타는 그리움,89), 등이었다.

1980년대는 현실 모순에 대한 문학적 대응 수단으로서 리얼리즘에 대한 비판과 궤를 같이 한다. 지나치게 현실적 · 직설적 주장을 펼친 끝에 시문학에 요구되는 서정성이라든가 인간 보편의 심성을 바탕으로 한시적 표현이 상실되었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 시기의 시적 특성은 고정희, 김남주, 박노해 등 농민시 또는 민중시가 유행하는 한편 시인 개개인의 독창적인 목소리가 반영된 다양한 내용과 형식의 시들이 쏟아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발전의 바탕 아래 민주화시대가 열리면서 창작 활동이 왕성하였다. 그 결과 많은 작품과 작품집이 나왔으며 문학행사도 활발하였다. 그리고 광주 · 전남의 지역마다 지역문학 단체가 결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시세계를 정립하였고 지역문학의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다.

제 4 장 광주 · 전남 출신 시인들의 시 세계

광주 · 전남 출신 시인들의 시 세계를 논함에 있어 1960년대 출신 시인들의 시 세계, 1970년대 출신 시인들의 시 세계, 1980년대 출신 시인들의 시 세계라는 소제목으로 분류하여 놓았다. 이 분류를 보면 그 시대의 출신이라고 해서 그때에만 시를 쓴 것이 아니고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서 창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류로 나눈다는 것이 좀 부자연스럽기는 하나 어찌보면 역사적인 맥락에서 대개 10년 단위로 그 획을 긋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여 이러한 분류를 통하여 그 시 세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1960년대에는 두 번의 중요한 정치적 변혁이 있었다. 그 하나는 1960년에 일어난 4·19혁명이요, 다른 하나는 바로 다음 해에 일어난 5·16 군사혁명이다. 전자가 오랜 기간의 자유당 독재를 무너뜨린 민주화혁명이라면 후자는 군부가 주도한 독재로의 회귀였다. 그러나 이미 4·19혁명으로 표출된 바 있는 한국 민중의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은 군부의 억압에 의해서 쉽게 말살될 수 없었다. 한국 민중의 이 성숙된 정치참여의식은 시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1960년대는 그 전대에 찾아볼 수 없었던 문학의 현실참여라는 새로운 경향이 대두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문학의 자율성을 옹호하면서도 정치적인 문제로부터 자유롭고자 하는 경향도 형성되었다. 참여문학의 계열에서는 이를 순수문학이라고 호칭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 그것은 목적문학의 획일주의를 거부한 순문학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11)]"

광주 · 전남 지역 출신으로 참여시 경향에 소속될 수 있는 시인으로는 김지하, 이성부, 조태일, 최하림 등이 있다. 이 시기 순수시 경향 가운데서 전통적 서정시를 쓴 시인들은 강인한, 모더니즘을 추구한 시인으로는 노향림, 오세영을 들 수 있다.

전통적 정서의 탐구로는 고향과 유년에 대한 소재를 취택하여 유년의 체험에 의한 독특한 서정의 시세계를 보여준다. 작품의 경향이 추억적이고 센티멘털하

11) 오세영, 『우상의 눈물』, (문학동네, 2005), p.309.

지만 유년과 자연을 통해 자연스럽게 융화되는 전통적 정서의 탐구는 광주·전남 현대시문학의 보편적 정서였다. 특히 박문재, 김재흔, 오세영, 노창수, 백추자, 전원범, 오재동, 문도채, 이지엽, 정을식, 최승권 등의 시에 잘 드러나 있다.

토착적 소재와 애향의 서정은 주로 농촌을 제재로 하여 일상에서 일어난 일을 서술시의 형태로 보여주며, 박보운, 손광은, 박건한, 허형만, 이환용, 김종, 이영권, 김준태, 문정희, 이시영, 박주관, 최정웅, 장효문, 최재환, 최일환, 박순범, 최규창, 박록담 등의 시에서 볼 수 있는데 급작스런 산업화의 진행으로 위기의식을 느낀 시인들이 고향의 문제를 시적 대상으로 삼아 지역적 정서가 강하게 밴 토착적인 작품의 산출을 통해 애향의식을 발로하였다.

민중시는 크게 70년대부터 이 운동에 가담했던 기성시인들과 이 시기에 새로 등장한 신인들로 두 그룹으로 나뉜다. 전자에 속하는 시인들로는 60년대 문병란, 이성부, 조태일, 김지하, 최하림, 70년대의 김준태, 고정희, 이시영 등이 있고, 후자에 속하는 시인들로는 80년대에 새로 등장한 황지우, 곽재구, 김남주, 임동확 등이 있다.

전자의 그룹 가운데서 김지하의 경우는 80년대에 들어 민중시라 부를 만한 작품을 거의 남기지 않았다. 전두환 집권과 더불어 감옥에서 출소한 후 소위 '생명 사상'을 탐구하면서 존재론적인 서정시 창작에 몰두하였기 때문이다.[12)]

생명의식의 순정성은 인간 본원 탐구의 문제로서 급격한 산업화와 환경파괴에 따른 비인간화와 정치사회적 혼란에 대한 인간성 회복을 위한 구원의 메시지였다. 박홍원, 강인한, 김지하, 국효문, 송수권, 김선기, 문두근 등의 시에서 볼 수 있으며 치열한 생존경쟁의 사회에서 시인이 삶의 본원적인 문제를 탐구하여 생명의 존엄함과 평화, 자유 등을 작품 속에 형상화하였다. 범대순, 조태일, 진헌성, 양성우, 이성부 등의 시에 잘 나타나 있으며 삶의 순응과 고통의 극복의지로서 현실 수용이라든가 순응적 정서와 사회 고발적 비판의식이 문화적 대응으로 공존을 잘 표현하고 있다. 임보, 김규화, 김현곤, 윤재걸, 조영희, 곽재구의 시에 볼 수 있으며 허무의식 또는 자연이라든가 슬픔과 아물러 낙천적 관념들이 잘 표현되었다. 최하림, 김만옥, 노향림, 오명규등의 시가 이에 해

12) 오세영, 앞의 책, p.228.

당됨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현실의 모순에 대한 저항이나 극복의지를 강렬하게 시작품을 통해 구현하였다. 최봉희, 문병란, 조병기, 김승희, 김창환의 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광주 · 전남 현대시는 개인의 특성을 종합해 봄으로써 이와 같은 몇 가지의 공통적 특성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시인은 사회의 한 구성원이나 개인으로서 살아온 체험과 경험을 시적 언어로써 형상화시켜 시로써 드러낸다. 그렇기에 많은 연구자들은 시를 통해 보이는 한 개인의 정신세계를 밝히고자 연구한다. 시를 통해 드러나는 시인의 정신세계는 개개의 작품 연구를 통해서 드러나기도 하며, 때로는 시집 전체를 관통하는 시인의 정신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시인의 정신은 단순히 시인 개인의 문제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때론 사회적, 시대적 요구에 그 시인이 얼마나 부응했느냐에 따라서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한 연구와 평가를 통해 시인의 정신세계를 조명해 보는 것은 한 개인의 생의 모습을 밝히는 동시에 한 시대를 치열하게 살다간 시인의 정신을 밝히는 의미도 있다. 그리하여 한 시인을 평가할 때 우리는 그가 서정 시인이었는지, 혹은 그가 사회 참여적인 성격의 시를 쓴 시인이었는지, 혹은 그 시인 나름의 독특한 창작법과 생애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으로 시인을 연구한다. 이렇게 하여 연구자들은 그 시인의 독창적인 방법과 정신세계가 작품에 반영되었는지 밝히고 그에 따라 그 시인의 문학적 성과를 제시한다. 어떤 작가의 경우는 그의 시가 순수한 서정시의 모습을 하거나 님과 의 애틋한 사랑을 담은 시임에도 작가의 삶과 생활에 딸린 평가를 달리하기도 한다.

광주 · 전남 시인들은 시인으로 그들의 시에는 그가 자라온 성장기의 자연의 모습이 잘 드러난다. 유년의 자연은 현대 서정시에서도 많이 보이고 있는 모습이며, 우리 시가의 한 기풍으로 여겨질 만큼 흔한 경우다. 다만 광주 · 전남 시인들의 시에서 보이는 자연은 단순한 자연의 모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온 삶의 터전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자연은 그들의 시에서 아름다운 유년과 생활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에서 보이는 자연을 통한 서정은 유년의 기억 속에 숨겨진 내밀한 이야기들을 독자에게 제시하여, 독자 스스로 상상하고 추측하게 하

고 있다. 산천과 바다와 강을 배경으로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 달빛, 초롱불, 갈매나무 잎사귀 등의 소재들은 화자가 어려서 겪은 추억의 조각들이며 그러한 조각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서정을 전해주고 있다. 그러한 유년의 소재들은 통해 전해지는 것은 전통적 정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통적 정서는 유년의 기억 전체를 다 드러내지 않고 일부분만으로 제시하여 아련한 유년의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곧 시인은 시인 자신이 유년 시절 체험했던 자연을 통해 아름다움과 슬픔, 유년의 그리움 등을 보여주며, 때로 이미지의 확대나 변형을 통해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또한 이때 제시되는 자연은 단지 시의 소재와 배경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년의 체험을 통해 영혼으로 받아들이려는 남도 시인들의 독특한 서정을 읽을 수 있다. 시 속에 드러나는 자연의 모습은 일견 부정적인 모습으로 보인다. 남도 시인들만의 시에는 천성적으로 벽항이자 변방의 삶에 대한 비극적인 정서를 담고 있다. 그러면서도 유년과 자연을 통해 자연스럽게 융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자연에 귀속하여 자신의 삶과 의미를 성찰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제 1 절 1960년대 등단한 시인들의 시 세계

1960년대에 등단한 광주 · 전남 출신 시인들의 시세계를 조명함에 있어서 당시의 시대 상황이 중앙이나 이 지역에 큰 차이가 없이 전개되었다고 본다. 즉 4·19 혁명과 5·16 혁명으로 이어지는 격동기의 시대 상황이 우리나라 전체 분위기를 이끌어 나갔다고 본다. 이러한 격동기를 겪으면서도 본격적인 시 활동이 활발하게 되었던 점은 이 지역출신 시인들이 대거 등단을 많이 하게 된 점이다.

1960년부터 1969년까지 등단한 출신 시인들을 등단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60년에 박보운, 이영권, 이성부, 최봉희 시인이 등단하였으며, 1962년도에는 손광은, 박홍원, 임보의 시인이 1963년도에는 박문재, 김현곤, 문병란 시인, 1964년도에는 조태일, 최하림 시인, 1965년에 범대순 시인, 1966년도에는 박건

한, 이환용, 김규화, 김만옥 시인, 1967년도에 강인한 시인, 1968년에 김재흔, 오세영, 문도채 시인, 1969년도에 정을식, 김준태, 문정희, 이시영, 김지하 시인 등이 등단을 하여 한국문단을 광주 · 전남에 옮겨온 듯 많은 시인들이 등단을 하여 이곳 시문학의 활발함을 보여준 세대이기도 하다.

1960년대에 등단한 시인들의 시 세계를 개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문재 시인의 시를 살펴보면

그리운 고향 만나러 닷새마다 일어서는
성남의 모란장 찾아갑니다.
고향 등진 낯익은 얼굴들
반쪽 되어 타향 땅 모란장터에 지천으로 널려 있습니다.
올 농사도 장사치들에게 농간 당하고
볏짚 세 단과 시큰해진 아랫도리만 남았습니다.
서울이 역겨워 동무들 안부 물으러 모란에 가면
내 유년의 휘파람새 거기서 울고
오직 항아리에 담긴 고향 하늘은 멀고 아득하기만 합니다.
꿈같이 포근했던 고향 하늘은 멀고 아득하기만 합니다.

<모란장날> - 전문 박문재[13)]

위의 시는 <모란장날>은 타향인 성남의 모란장을 찾아 옛 고향을 그리며 서정적이며 추억적 정서를 발로하고 있다. '오직 항아리에 담긴 고향 하늘'은 멀고 아득하지만 그 고향은 '꿈 같이 포근' 하다는 그리움의 서정을 표출하고 있다.

이렇게 박문재는 주로 소시민의 애환을 주요 소재로 한 서정성 짙은 시를 썼다. 서민으로 살아가면서 보고 느끼는 일에서 출발해 우리 사회 평범한 사람들이 겪는 삶의 애환을 담아내는 것은 물론, 한국 사회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뜨거운 시선이 그의 시의 원류이고 인간성 회복을 천착하는 것을 시작의 초점

13) 박문재(1941.1.15~)는 해남 문내면 우수영 출생.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과를 졸업. 1963년 전남일보 신춘문예에 시 <강설초(降雪抄)>가 당선되고 『현대문학』으로 등단. 시집으로 『탄벌리의 가을』(76), 『겨울나무의 육성』(82), 『모란장날』(87), 『이상 난동』(89), 『풀빛 연가』(91), 『시간의 역을 지나며』(94)가 있다. 고산문학상(93)을 수상.

으로 삼고 있다.

나의 꽃밭에는
더불어 자라온 風景이 있다.
꽃과 나무 그리고 쬐그만 山과 언덕.
江섶 갈잎은 가늘게 몸을 흔들고
사운대는 햇살과 낮잠을 졸다 갔다.
돌아가는 미로에 종언을 고하면서
무거운 정적을 짓누르고
황홀한 꽃의 교태와
징그런 붉은 뱀의 도사림 속에
개나리, 봉숭아, 맨드라미,
소리 없이 흐느끼며 져버렸다.
연못에 흰 구름 스치어 가듯
단 한번 스치어 갈 음악도 없이
눈부신 태양이 그리운 밤
눈물이 익어가는
나의 꽃밭에
더불어 자라온 風景이 있다.

<잃어버린 風景>- 전문, 김재흔[14)]

위의 시는 자신의 내면에 자리한 지나온 풍경을 회상하면서 <잃어버린 풍경>을 통해 나의 자화상을 보여주고 있다. 시인의 추억 속인 '꽃과 언덕, 산과 나무' 그리고 '개나리, 봉숭아, 맨드라미'가 아직도 살아 있다. 하지만 그것들을 따뜻하게 감싸줄 태양 없는 담이다. 인고의 세월이지만 지금에 와서도 이 시인은 순수한 자연의 모습을 지니고자 한다. 김재흔의 작품 경향은 우리 것의 미를 위해 현실과 존재, 인식과 서정, 도시와 농촌의 다양한 소재를 통해서 한국문단

14) 김재흔(1935.6.21~)은 전남 영암군 출생. 1968년 『현대문학』에 <음악하는 이파리>, <개화기>, <매화사>가 천료되어 등단. 시집으로는 『잃어버린 풍경』(향문사, 1963), 『음악하는 이파리』(조광사, 1971), 『농향가』(현대문학, 1976), 『무녀덕담』(신라출판사, 1979), 『전라도』(월간문학, 1979, 서사시집), 『부활의 아침』(시문학, 1986)이 있다.

에 새로운 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知)와 정(情)의 합일과 현실인식에 나타난 사회와 자아의 갈등 양상을 한국 현대시의 전통적 순수 서정시의 새 경지를 개척하고 있다.

님의 기침 소리는
하늘의 별들을 떨어뜨리고
지상의 나는 치마폭으로
추락한 寶石들을 줍니다.
치마폭에는 또 하나의 하늘
흰 구름이 흐르고,
붙박이 새가 날고,
銀箔으로 수놓인 가을이 있고,
나는 내 하늘 가을의
왕이더니라.
王冠의 그 어지러운 寶石처럼
내 이마 위에서 찬란하게 부서지는
消滅
님의 기침 소리가
하늘의 별들을 하나씩
떨어뜨릴 때마다
地上의 나는 치마폭으로 추락한 그리움들을 줍고.

<별> - 전문, 오세영[15]

위의 시는 <별>을 제재로 하여 임의 기침 소리를 통해 순도 높은 서정적 시어를 쏟아내고 있다. 이처럼 오세영은 새로운 시세계를 끊임없이 탐색해왔다.[16]

15) 오세영(1942.5.2~)은 영광 출생. 1968년 『현대문학』에 <잠깨는 抽象>이 천료되어 등단. 한국시인협회장을 역임하였으며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교수로 정년퇴임하였다. 제15회 한국시인협회상(1983), 제4회 녹원문화상(1984), 제1회 소월문학상(1987) 등을 수상. 시집으로 『反亂하는 빛』(현대시학, 1970), 『불타는 물』, 『사랑의 저쪽』, 『꽃들은 별을 우러르며 산다』, 『어리석은 헤겔』, 『가장 어두운 날 저녁에』(문학상, 1982), 『矛盾의 흙』(고려원, 1985), 『신의 하늘에도 어둠은 있다』, 『눈물에 어리는 하늘 그림자』, 『無明戀詩』(전예원, 1986)이 있으며, 이외에 저서 『한국 낭만주의 시연구』(1980), 『서정적 진실』(1983), 『현대시와 실천비평』(1984) 등이 있다.

16) 오세영의 방대한 시편들의 경향을 두고 박현수는 4시기로 시기구분하고 있다. 1집과 2집의 공유

초기의 모더니즘에서 불교와 노장사상으로, 그리고 그것의 더 깊은 철학적 모색 및 가장 순연한 서정시의 구현에 이르기까지 오세영은 시가 빚어낼 수 있는 가장 순도 높은 언어와 진리 탐구를 혼신의 힘을 기울여 일구어왔다. 갑년을 넘긴 그의 시는 그만큼 성찰에서 비롯된 심화된 통찰과 인간에 대한 이해를 담고 있는 것이다. 오세영의 문학이 문단의 대립을 넘어서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의 시론에 마련된 여러 진술들에서도 그 논리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시와 현실과의 긴장관계를 논하는 부분이나[17] 이념의 수용은 자유의 견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18] 시를 과학과 구분지어 규정하는 일,[19] 인간성의 관점에서 순수와 참여문학을 포괄할 것을 요구하는 일[20]등이 그것이다, 오세영은 서로 융합되기 힘든 두 측면에 대해 공정하고도 초월적인 시선을 던져 이들을 서로 상승적으로 조화시킬 것을 제안한다. 이것이 그의 문학 세계의 본질이자 초월성이며 그가 문단의 일시적인 경향에 휘둘리지 않고 지속적인 세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된 뿌리에 해당한다.

오세영의 시세계와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사상과 서정의 조화[21]라든가 미학적 차원과 철학적 차원의 결합,[22] 일상적 세계와 형이상학의 통합[23]등의 평가 또한 조화와 통합, 균형과 화해를 추구하는 오세영 문학의 특성을 논증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24]

'의미의 더미'를 이룬다고 전제하고 이 '의미의 더미'야말로 사물의 현존을 드러내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사물이 특정한 의미가 아닌 다양한 의미들을 중층적으로 지닌 채라야 스스로 존재의 의를 지닌다고 볼

성을 근거로 이를 1기로 하고 미학과 철학의 조화가 시도된 3, 4, 5집을 2기, 6, 7, 8, 9집에 서정성이 강화된 점에 따라 3기, 자연친화적 정서를 중점화한 4기가 그것이다.
최승호 외, "오세영 시 깊이와 넓이", 『오세영 교수 회갑기념 논문집』, (새미, 2002).

17) 오세영, "시에 있어서의 현실", 위의 책, pp.69~71.
18) 오세영, "문학과 이념", 위의 책, p.117
19) 오세영, "총체적 진리와 부분적 진리", 위의 책, pp.169~170.
20) 오세영, "순수와 참여", 위의 책, p.186.
21) 김재홍, "사랑과 존재의 형이상학" 『현대문학』(1985. 10.) p.418.
22) 이숭원, "모순의 인식과 존재의 탐색" 『현대시학』6월호 (1992) p.234.
23) 고형진, "전통시의 변주와 완전한 사랑노래" 『문학과 의식』봄호 (1998), p.79.
24) 오세영 시의 모순과 역설의 시학에 대하여는 김재홍, "물과 불 또는 운명과 자유" 『현대시학』 8월호 (1990) ; 최동호, "욕망을 다스리는 영혼", 『소설문학』2월호 (1986.) ; 조창환, "존재의 모순, 그 영원한 질문" 『현대시학』3월호 (1989.) ; 정효구, "모순구조의 다양한 의미" 『문학정신』

때 기호가 의도적으로 사물의 의미를 조작하는 반면 상징은 사물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음으로써 의미가 사물과 근원적으로 조화로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25]

상징에 관한 엘리아데의 언급은 오세영이 제시하는 시적 언어와 대단히 유사하다. 오세영 또한 총체적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 시적 본질이라 하였고 이를 위해 여러 의미들을 통합하고 조화시키는 모순의 언어를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이때의 모순의 언어를 우리는 세계에 총체적 질서를 부여하는 행위로서의 '은유화'로 부를 수 있다.[26] 세계는 본래 현재에만 국한되지 않은 영원한 역사적 실재이다. 때문에 아득한 태고부터 계속되어 온 이러한 경험들은 응축된 보편의 언어에 의해서만 비로소 수용될 수 있다. 이 점에서 볼 때 사물을 존재성 그대로 드러내고자 한다면 은유화가 필수불가결하다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미지, 은유, 상징, 신화' 등의 은유화가 신화적 언어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오세영이 신화를 언급하면서 신화 언어를 은유 구조로 해명하는 것과도 관계된다.

오세영의 대부분의 시에서 볼 수 있는 완미(完美)한 서정 미학을 그러나 우리는 초기의 시집『반란하는 빛』에서는 만나기 힘들다. 첫 시집인 그것은 미의 완전한 이상을 구현하기보다는 오히려 파괴적이고 충동적인 세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적 경향을 두고 시인은 '문학 수업 중 거쳐야 할 하나의 과정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않다'고 하였으나 사실 그가 여기에서 행한 작업은 단순히 상상력의 실험이나 언어 감각의 습득 차원에 놓이지 않는다. 이는 오세영이 《현대시》동인으로 활동하면서 1960년대 문학의 한 경향을 온전히 담당했던 점과 관련된다. 오세영은 1960년대를 특징짓는 세 가지 문학적 경향들, 즉 서정주, 조지훈 등으로 대표되는 전통적 서정시 계열과 김수영, 신동엽 등 문단의 신진 세력으로 등장한 참여시 계열, 그리고 언어적 실험과 내면의 추구를 통해 새로운 미적 근대성을 추구한 계열 가운데 세 번째 계열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갔던 것이다.[27] 그는 여기에서 이수익, 이승훈, 이건청 등과 함께 도

25) 정진홍,『종교와 신화』, (살림, 2003), pp.35~37.
26) 최승호, "서정시의 미메시스적 읽기",『오세영의 시 깊이와 넓이』(국학자료원, 2002). p.29.

구화된 형태로서의 문학을 거부하고 '내면 탐구와 형식 실험을 통해 언어의 가능성들의 영역을 확대시켜 나가는[28] 소위 시의 현대화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그래서 오세영의 시세계를 어느 한 국면이나 전체적으로 금방 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40년에 가까운 시작 활동과 그 속에서 일구어낸 10여권이 훌쩍 넘는 창작적 성과물들은 그의 시세계를 단숨에 파악하는 것이 그리 녹록한 일이 아님을 암시하는 것이다. 더욱이 그 세월만큼 그가 교편을 잡고 시 비평과 이론의 정립에 관한 지도적인 업적을 쌓아왔음을 고려한다면, 안이한 시각으로는 그의 시적 수준을 가늠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오세영의 작품 경향은 모더니즘의 言語意識을 전통사상과 접맥시키는데 관심을 가지고, 꾸밈없는 인식認識의 시야視野 속에서 사물과 실재實在에의 고요한 접근과 성찰을 이룬다. 사물의 認識을 통해 存在論的 의미 파악이 시의 기본 발상이며, 언어를 극도로 정련 함축시키는 지적구사와 서정의 접맥을 이루려 한다. 시어를 인간 소외의 사회의식으로 접맥시키면서 진정한 삶의 공간을 제시하고 있다.

핏발 선 눈망울 속으로
빛이 새어듭니다.
딸네들의 寢室입니다.
조여드는 아픔이 憧憬의 秒針을 굴리는 成熟입니다.
고이 간직해 온 다사로운 密語가 이토록 곱게 피어오른 자랑입니다.
푹 꺼진 瞳孔 속의 橢圓이 흐려옵니다.
乳房과 같은 수줍음이
시들은 나의 장밋빛 曲藝에 이끌리는
흐름입니다.
후덥지도록 지저분한 개천가에서

27) 1960년대의 문단을 이처럼 크게 세 가지 부류로 구분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진듯하다.『한국현대시사』에서 최동호가 60년대 문학의 흐름을 전통적 서정시, 현실 상황에 대한 응전의 시, 인간의 내면의식을 탐구한 언어적 실험시로 나누는가 하면, 문흥술은 『해방 후 50년 시동인지의 역사』에서 이와 유사하게 전근대적 반담론, 비판적 합리성의 담론, 비이성적 반담론으로 명명하고 있다.

28) 김준오, "순수 · 참여와 다극화 시대", 『한국현대문학』(1989), p.312.

목매인 강아지의 죽음을 보는 찌쁘림입니다.
자꾸만 가라앉는 하늘의 잔을 우는 來日입니다.
오늘은 어쩌다 이렇게 일찍 돌아왔지만
입시울이 무엇인가를 중얼거리며
꽃처럼 망울져 있습니다.
하얀 공간에 전구 하나 애를 태우며
대롱대롱
베개 밑의 꿈들이
파아란 맥박을 비집고 나와
노상 지껄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져선 안 될
나의 희망입니다.
그 빛은 물속에서 태어난
눈물과 같은 落下의 목숨입니다.
그래서 영이 뒹구는 거리의
버스의 넘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숨결은 고작일 뿐.
수명입니다. 싸움입니다.
우리 모두의 영원입니다.

<그 어떤 흐름 속에서> - 전문, 문도채[29)]

위의 시는 6·25 전란이후 극심한 혼돈의 세계를 내면으로 수용하면서 이를 전통적 서정으로 접합하여 영원성을 지향하고 있다. 문도채의 작품 경향은 만원(滿員)버스 안에 서서 항상 밀리고만 있어야 할 자신(自身)을 원망하면서도 태양(太陽)과의 속삭임에서 얻은 현실극복의 의지를 선으로 승화, 계시로 토해내는 시골 선비와 같은 기질을 보여주었다.

29) 문도채(1928.6.6~2003.8.)의 호는 숙암(肅岩)으로 전남 승주읍 태생. 1948년부터 창작활동을 하였으며, 1968년 『시문학』지에 <어떤 흐름 속에서>를 발표하면서 문단에 데뷔. 1980년 전라남도 문화상(문학부)을 수상. 시집으로 『쌈지』(순천문화사, 1952), 대표시집『처음 써보는 사랑의 시』(세운문화사, 1976), 시조집『남도연가』(시문학, 1980), 『달력을 넘기면서』(문원각, 1987), 『무등산 너덜겅』(1990), 『산은 산대로 나는 나대로』(1992), 수필집으로 『진흙과 모래』(1984), 『조용한 강자』(1985) 등이 있다.

일생을 울며 살다 간
누님의 눈물 같은 봄비가 그치고
이유 없이 쓸쓸하며 흐뭇한 시간.
꽃망울이 트이듯
한 동안의 온갖 수난의 역정을
더듬어 넘어온 몸부림만큼의
내 곁의 적연(寂然)한 장미밭.
한날 한밤을 무시로 내린
비를 맞고, 이제는
한 줄기 따스한 햇빛을 향하여
안도의 숨결을 돌리는
연한 꽃망울의 기나긴 손가락들이
내 심상에 멎었을 때
장미밭은
아름다운 섭리로 가득했다.
< 중 략 >
한마디 하는 소리
"오매, 장미꽃이 피었다."

<薔薇밭에서 · 1> - 전문, 정을식[30]

위의 시는 장미 밭을 제제로 하여 누님에 대한 애한을 담아내고 있다. 정을식의 작품 경향은 범상한 일상 속의 아무리 미미한 징조에 불과한 것이라 하더라도 지극히 중대한 것이라 여긴다. 이러한 문화의 본질적인 근원과 인간의 삶의 애환을 시적으로 발효시켜 표출, 형상화함으로써 한 시대를 참여, 증언하여 노래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 전통적 정서의 탐구는 고향과 유년에 대한 소재를 통해 형상화되었다. 여러 시인들이 다소 추억적이며 센티멘털하지만 유년의 체험을 통한 독특한 서정의 시세계를 보여주었다. 유년과 자연을 통해 자연스럽게 융화

30) 정을식(1947.12.17~)은 보성군 출생. 1969년 전남일보(현 광주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陰蟲>이 입선되어 등단. 1976년 전남일보(현 광주일보) 신춘문예에 시 <薔薇밭에서>가 당선되었다.

되는 전통적 서정의 탐구는 광주 · 전남 시인들의 보편적인 정서로 정착되었다.

대부분의 광주 · 전남의 시인들은 시인이 성장했던 농촌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서술시의 양식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그러한 서술시의 양식으로 일견 평범한 농촌의 풍경과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시의 언어를 접하면서 그 속에 담겨 있는 함의(含意)를 찾는 과정에서 인간의 사고는 역동적으로 움직이며 세상을 인식하고 비판하고 새로운 세상을 그릴 수 있다. 우리는 인간 부재, 인간 상실의 시대일수록 시의 힘과 아름다움을 옹호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사람들이 모여 함께 어울려 사는 한 시는 그 힘을 발휘할 것이다. '시의 위기'라 불리는 이 시대에도 무수히 쏟아져 나오는 시인들과 작품들은 시의 위력에 대한 반증일 것이다.[31] 산업시대에 접어들어 시에 있어서 현실 반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많은 시인들이 고향 문제를 시적 대상으로 다루기 시작한다. 그래서 자신과 주변인들의 삶을 통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정서가 밴 아주강하거나 약하더라도 토착적 소재와 애향의 서정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 경향으로 시를 쓴 시인으로는 박보운, 박건한, 허형만, 이환용, 김종, 이영권, 김준태, 문정희, 이시영, 박주관, 손광은, 최정웅, 장효문, 최재환, 최일환, 박순범, 최규창, 고형렬, 나해철, 박록담, 김정삼 등의 시에서 그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여수사람들은
매일 매일
장대 높이뛰기를 하는
키가 큰 꺽다리 바다를 보고
일 직각으로 도약하는
비상법을 배운다
또 비행하는 법도 그렇다
언제나 떠오르는 아침해가
산 정수리에서

31) 정현종은 그의 글 "詩의 자기동일성", 『시의 이해』, (민음사, 2000), p.96.에서 "시는 인간의 문명과 제도와 이데올로기에 의해 왜곡되고 쭈그러든 원초적 자아가 回生하는 공간"으로 시 읽기의 의의를 밝혔다.

그 옆 정수리에로
일직선이 되게
건너뛰는 항해술을 보고
재빨리 헤엄칠 평야를 찾아낸다.
갱도속으로 끼어든 안개 사이로
더듬거리지 않고 줄을 서는
여수 사람들은
그러니까
열심히 손질해 낸 불심지에
성냥을 긋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뚝뚝한 해안선 밖에서
손을 씻은 후박과 후박이
서로 손바닥을 포개는 시각에
잘 생긴 이웃들과
오래오래 만나도 되는 것이다.
어시장 생선 행렬이
빛을 내는 아침 식탁에 와서
나란히 누워주는
상오 7시부터
굵직하게
나팔 목소리를 굴리는
여수 사람들은

<여수 사람들> - 전문, 박보운[32]

위의 시는 항도 여수 사람들의 삶의 풍정을 향토적 색감으로 쏟아내고 있다. 박보운의 작품경향은 향리에 살면서 한국적인 전통서정(傳統抒情)을 주류로 하여 정직한 현실 세계의 가장 밝고 강력한 생명력을 추구하고 있으며, 존재의 근원과 본질을 표현한다. 또한 바다를 시의 영역으로 삼아 그 내부 전개의 해저현실을 사실적인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다.

32) 박보운(1931.7.12~)은 일본의 요꼬하마에서 출생. 호는 풀눈이며 본명은 두정(斗鉦). 1960년 『자유문학』에 <영산벌 점경(點景)>, <나울령 사연>이 천료되어 등단, 1985년에 한국예총 지역문화예술상을 수상. 시집으로 『시작(時作)』(공저, 1962) 등이 있다.

어릴적 머슴인 내 아버지는
마당 복판에 무더위를 불러들인
보릿단을 놓아둔다.
까실까실한 사슬이 매달린 보리.
단정히 부수지 않고 손바닥을 대본다.
실한 머슴은 곁에 있는
농주를 마시며
푸른 보리를 생각한다.
풀잎 같은 풀잎이었다가
풀잎 같은 보리였다가
풀잎 같은 보리국물을
겨울에는 마시며,
지금은 풀잎같이
의식을 일으켜
비밀의 구조를 갖고 누렇게 살아 있는
보리를 술잔에 비쳐보곤 히죽이 웃으며,
『여 때리라
저 때리라』
거만스럽게 삐걱이며
도리깨질을 하면서
잠 깊은 누런 이마를
후려친다. 후려쳐……
서성이는 어머니
빗자루를 치켜들고
왔다 갔다
튀어나는 보리알을 쓸면서
신비로운 내 시선 사이로 지나간다.
큰물소리가 지나간다.
곁에 가던 먼지가
불타듯 연기되어 깔리면서
대낮이 무너진다.

모든 것이 지나가며 무너진다.
풀잎이 출렁거리듯
새로운 혁명이 부르는 흔들림
새로운 파멸의 부정처럼
물살지는 가슴을
실한 머슴은 들여다보면서
『여, 여, 저, 저』
들고 치고, 살짝 놓고 치고
소리를 만들면서
먼지가 소리를 만들면서
마음을 울리던
도리깨질을 하면서
『여 안때리고
어데 때리노
복판 때리라
가에 때리라』
도리깨질을 하면서
머슴은 머슴인 아버지를
머슴으로 길들였다.

<보리 打作> - 전문, 손광은[33]

위의 시는 <보리타작(打作)>을 통해 내면에서 융기하는 역동적인 삶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손광은의 작품에서는 모두 움직이는 것을 통한 생명의 자기정립에 대한 강렬한 추구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보리타작에 있어서의 도리깨질이라든지, <직녀도>에 있어서의 물의 이미지처럼 역동적이고 생동하는 힘으로 표출된다. 그는 풍속적인 소재를 사용하면서도 복고주의에 빠져들지 않음으로 해서 잡초와 같은 근원적인 인간생명을 시인의 독특한 체위와 개성으로

33) 손광은(1936.4.6~)은 보성군 노동면 출생. 호는 노정(蘆汀)이다. 1962년 『현대문학』에 <제3광장>, 1963년 <산책>, 1964년 <나의 반란>이 추천되어 문단에 등단.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문화상을 수상. 시집 『파도의 말』, (현대문학, 1972), 제2시집 『고향 앞에 서서』(문학예술사간, 1996)을 상재하였다. 이 외에 『한국문학의 이해』(대방출판사, 1984), 『문학개론』(형설출판사, 1980), 『전남의 문학』(전라남도, 1989), 『광주권 문집 해제』(광주시, 1992)등의 저서가 있다.

형상화하고 있다.

내가 날리는 새들 중에서
어떤 새들은 밤을 날은다.
窓가에서의 내 입에서는 밤새도록
비린내가 나고
언제부턴가, 거칠은 손으로
짐승처럼 가슴을 쓸어내리는 習性을 익혀 왔지.
때때로 소금기 가득한 바람이 불어와,
살갗을 문질러대며, 子正 속의
渴症을 풀어 주었지만
가슴 안에 채워지는 썩어가는 海草의
그 내음으로 하여,
四方壁을 후벼 뜯는 내 아픈 손톱, 발톱에
묻어나는 것은 진정 무엇인가
마침내 疲困한 歲月이 누워 있는
방바닥에 月蝕을 거친 달이
미끄러지듯 깔려올 때
스스로의 자맥질에 醉해
납작해진 내 思惟의
고기떼들이여.
그 비늘
다시 서걱이는 그 비늘로 하여
내 입에서는 밤새도록
비린내가 나고.

<밤바다> - 전문, 박건한[34]

위의 시는 밤바다를 통해 자신의 내면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다. 박건한의 시에서는 고향 바다 소리와 바람소리가 들려 나온다. 그러나 바다와 바람이 이상

34) 박건한 (1942.9.10~)은 해남군 해남읍 출생. 1966년 문예지 『문학(文學)』에 <밤바다>등이 당선되어 등단. 시집으로는 『우리나라 사가』(동화출판공사, 1977)가 있다.

하리만큼 그에게는 잘 길들여져 있어서 격랑이되 거칠지 않고 폭풍조차도 부드러운 느낌에 묻힌다. 그것은 아마도 그의 언어에서 풍겨주는 전체적인 인상(印象)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그 인상이란 담담하고 담박한 것이며, 비감상적인 언어까지도 감성적인 언어로 바꾸어 내는 그의 탁월한 상상적 조형력(造形力)에 기인하고 있다.

눈부신 아침 햇살에
이슬 머금은 충만의 유리알 흐른다.
술 괴는 도성
군마가 설레는 운집.
깊은 숲 갈피 어린 바람
오지랖으로 살을 문지르면
뜨거운 노을에 익은 잎들이
취하여 돌아오는 깃을 접는다.
하늘 듣는 나뭇가지
바르르 떨리는 능금의 무게
씨알을 다듬는
빛이 영그는데
과녁을 물고 흔드는 화살의
흐느끼는 피리 소리
결정하는 가을.
알알이 저미는 얼굴마다
불사른 바람살에 꿀이 흐른다.

<과수원> - 전문, 이환용[35]

위의 시는 '눈부신 아침햇살에 이슬 머금은 충만의 유리알이 흐른다'라고 과수원의 내밀한 분위기를 안정적으로 연출하고 있다. 이환용은 차분하고 건실한

35) 이환용(호 春江, 본명 漢用, 1928.7.18~)은 구례군 출생. <월요서사> 『현대문학』(1965.3), <과수원> 『동지』(1966.6), <광주· 전남평야> 『동지』(1969.1)등이 추천되어 문단에 등단. <새벽>『현대문학』(1969.9), <강물>『시문학』, (1971.10), <몸살> 『동지』, (1972.3), <숲>『동지』, (1973.3) 등을 발표했다.

그의 인간적 성품과 같이 안정되고 무게가 있는 밝은 시를 쓰고 있다. 작품 <숲>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연의 사물을 생명감이 충만하도록 표현한다. 문단 데뷔 시에는 영미 모더니즘의 영향이 컸고, 그 후 동양적 경향으로 회귀하였다. 한편 1970년 『시조문학』에도 시조 <가배초>등으로 천료되었다. 이후 <내일>, <아가>, <이의 여인>등 상황의식이 짙은 작품을 썼다.

색을 지워버린 뜰에
호수처럼 되돌아 설
異性의 불빛은 주어
음악이 없어도
계절을 잃어도
산봉우리처럼 구름 말아
창
을 가리고
깃발처럼 실존으로 팔랑이는 뜻이
넘쳐있는 것
전쟁이 바래진 양지 앞에
눈먼 꽃망울
사랑도 지쳐버린 별 그림자
그 앞에 이슬 되어 나린다.
무리의 渴症에서
자기만을 찾는 한 잎의 생이
기어이 고독 본래의 파편이 되고
생명이 남는 種의 여운처럼
합창의 옅은 殘照는 시간을 채운다.
<씸발>을 울리기엔 너무 큰
고요가 흐르고
슬퍼하기엔 즐거움이 밀려 사는
사랑의 추억이 도사리고
그사
빗줄기를 적시기엔

이미 粘度를 태워버린 해탈된 항아리
미움, 사랑, 슬픔, 즐거움…….
선택된 한 오리 초점으로
체온을 지녀 혈압이 깨어나는
버릴수 없는 이단의 주어
그리고 싶은 命壁의 벽화로 하련다
어느 날
전쟁이 지나간
아직은 헐어진 담 한쪽에서도
그늘 아니면 빛으로 굳건히 버티는가
먼 훗날 상실의 계절에서
어느 찰나고 도시의 휴일을 그리는
종교의 눈물에 잠겨 있을 것인가

<門> - 전문, 이영권[36]

위의 시는 전쟁의 아픔을 상기하여 실존의 의미를 탐색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영권의 시는 인과관계 속에서 지역사적인 삶의 애환과 내일을 맞이해야 할 자세, 크게는 민족적인 뿌리 정신을 일깨워 접목시키려는 인식이 그의 시 속에 내포되어 있다.

산그늘 내린 밭 귀퉁이에서 할머니와 참깨를 턴다.
보아하니 할머니는 슬슬 막대기질을 하지만
어두워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젊은 나는
한번을 내리치는 데도 힘을 더한다.
세상사에는 흔히 맛보기가 어려운 쾌감이
참깨를 털어내는 일엔 희한하게 있는 것 같다.
한번을 내리쳐도 셀 수 없이
솨아솨아 쏟아지는 무수한 흰 알맹이들

36) 이영권(1935~)은 호는 우공(祐公)이다. 전남 보성군 출생. 1957년 광주 · 전남신문에 <아리랑>을 발표하였고 1960년 전남일보(현 광주일보), 1961년 전남매일과 『전남문단』 기타 잡지에 많은 작품을 발표하였으며, 그 후 1990년 『한국시2』에 <목련이 피는 아침>外 4편이 당선되었다.

도시에서 십년을 가차이 살아본 나로선
기가 막히게 신나는 일인지라
휘파람을 불어가며 몇 다발이고 연이어 털어댄다.
사람도 아무 곳에나 한번만 기분 좋게 내리치면
참깨처럼 솨솨아 쏟아지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정신없이 털다가
<아가, 모가지까지 털어져선 안 되느니라>
할머니의 가엾어 하는 꾸중을 듣기도 했다.

<참깨를 털면서> - 전문, 김준태[37]

위의 시는 할머니와 함께 참깨를 터는 손자의 모습을 통해 신명나는 짜릿한 쾌감을 주고 있으며, 꾸중하는 할머니의 모습에서 소박한 농촌의 정취를 풍겨주고 있다. 특히 <참깨를 털면서>는 도시에서 자란 시적 화자가 농민인 할머니와의 교감을 '참깨를 터는 행위'로 드러내고 있는 바, 그것은 어린 시절 농촌체험에 대한 서술이다. 할머니의 참깨를 터는 행위는 한평생의 농사일에서 터득한 인생의 지혜이며, 농업에 대한 정성의 한 단면으로 형상화되었다. 농업은 농민에 있어서의 삶의 원천이며 현실자체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 시에는 농민의 아픔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할머니의 참깨를 터는 행위와 농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지 못한 어린 소년이 화자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시에는 농민의 진솔한 감정이 담겨 있기보다는 시인 자신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화자의 맑고 깨끗한 정서를 느끼게 된다. 말하자면 이 시는 농민적 정서와는 일정한 거리가 있다.

김준태의 작품 경향은 산업사회 하에 붕괴되어 가는 고향을 주로 노래하며, 고향 정신, 대지(大地)사상을 크게 여긴다. 1980년 광주민중항쟁 이후부터는 광주사랑, 공동체 정신, 생명 중시, 인간 해방, 식민문화 극복, 민족 해방, 참나라 · 참세상을 열망하는 시를 썼다.

37) 김준태(1948.7.10~)는 전남 해남군 출생. 1969년 『시인』지에 <참깨를 털면서>외 4편이 추천되어 등단하였으며, 1969년 전남일보 신춘문예, 1970년 전남매일 신춘문예에 당선. 1986년 전남문학상, 현산문학상을 수상. 시집으로는 『참깨를 털면서』(창작과 비평사, 1977), 『나는 하느님을 보았다』(한마당, 1981), 『국밥과 희망』(풀빛, 1983), 『불이냐 꽃이냐』(청사, 1986), 『넋통일』(전예원, 1986), 『꽃이 이제 지상과 하늘로』(창작과 비평사)가 있다.

김준태의 시들은 거의 맹목적이라 할 만큼 고향에 대한 애정을 형상화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애정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통렬한 현실비판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주의 시정신에 충실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시들은 농촌현실이, 당대 민중시들이 그러 했듯이 대부분 농촌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만 앞세웠을 뿐 진실로 농민의 입장에서 농민 문제에 접근하려는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진솔한 정서를 반영하지는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열 손가락 중에 하나 간혹 피를 흘린다는 일은 얼마나 즐거움인가>와 같은 시는 농사일을 낭만적인 행위로 인식하는 결정적인 한계를 보여 주기도 한다.

김준태의 시적 전횡은 '시인에게 있어 농민은 하늘만 바라다보는 하늘, 땅만 일구는 땅 그 자체이며, 밤하늘의 별이다, 요컨대 농민은 완전한 농촌 사회 속의 농민이다. 이러한 농민의식은 매우 아름다운 인식으로서 시인의 아름다운 마음씨를 반영한다'[38]고 했지만, 김준태의 농민의식은 광주 · 전남에 뿌리박은 고향농민을 그대로 반영한 현실적인 '완전한 농촌 사회 속의 농민'으로 보기 어렵다.

전라도 보성으로 간다.
옹색과 능그러움으로 누우런 얼굴
떠날적 마다 데리고 떠나도
그대로 남은 가슴이다.
그늘이 제일 먼저 뛰어 나와
컹컹 짖어대며 나를 맞는다.
처음도 없이 견디는 것만 있는
그대의 살결
터럭이 빠지도록 기다려도
지기만 하는 땅바닥
서러운 사투리 골짝마다 걸어 놓고
넉넉한 건 그래도 하늘이어서

38) 김주연, 『비생명의 생명』, 김준태,『칼과 흙』, (문학과 지성사, 1989). p.124.

아, 모래톱에도 씻기지 않는
죄 같은 육자배기의 보성으로 간다.

<고향생각> - 전문, 문정희[39]

위의 시는 비록 피폐해진 고향이지만 원초적인 절절한 사념(思念)을 담아내고 있다. 문정희는 원초적이고도 순수한 시 의식을 감각적으로 섬세한 기교로 표출시키고 있으며, 새로운 형태의 역사의식을 열어 보임으로써 시의 생명인 신선한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문정희는 사랑 · 그리움 · 가난 등 다양한 주제를 보이고 있다[40] 오세영은 전통적 서정시계열[41]로 사랑의 시인[42]으로 감각적 언어구사[43]로, 여성다운 섬세함과 남성적인 강한 힘[44]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아우내의 새>를 본격적 서사시로서의 가능성으로 보아 산문적 성향을 진단[45]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진단이나 평가로 볼 때 그의 다양한 특성은 사랑내지 여성성의 성향에 머물고 있으며, 전통 서정 시인으로서 여류 일반성을 탈피하지 못한 점이 있다. 그러나 그는 어차피 피와 살이 한 통속이 되고 현실에 대한 저돌성, 여성해방, 존재탐구와 현실인식, 관능적 기법과 설화적 전개, 직설적인 단호함 등으로 뚜렷한 개성을 보이고 있는 시인이다.

<사랑하는 사마천 당신에게>는 양심과 정의의 문제를, <村長>에서는 무관심을, <참회시>에서는 말로만 하는 감동시대를 비판하고 <형제>에서는 시대의 문제는 양심과 정의의 회복, 무관심에서 관심으로, 말의 감동이 아닌 실천의 감동으로 제시하는 이데올로기를 보인다.

---

39) 문정희(1947.5.25~)는 보성 출생. 1969년 『월간문학』에 시 <불면>, <하늘>이 당선되어 등단. 1975년 제21회 현대문학상을 수상하였고, 시집으로 『꽃숨』, (한국정판사, 1965), 『문정희 시집』(월간문학, 1973), 『새떼』(민학사, 1975), 『혼자 무너지는 종소리』(문학예술사, 1984), 대표시집 『아우내의 새』(일월서각, 1986), 『찔레』(전예원, 1987), 『우리는 왜 흐르는가』(문학상, 1987), 『하늘보다 먼 곳에 매인 그네』(나남, 1988) 등이 있다

40) 김현자, "한국여성시의 계보" 『현대시』, (1992. 2), p.93.

41) 특별좌담, "한국의 여성시", 위의 책, p.83.

42) 이희중, "날개없는 새의 꿈", 위의 책, (1992. 12), p.228.

43) 문정희, "어린 사랑에게", 김선학 해설, 『신선한 모습의 감각적 담론』, (미래사, 1991), p.145.

44) 문정희,"혼자 무너지는 종소리", 정규웅 해설, 『대상과 이미지의 탈개성적 다양성』, (문학예술사, 1984), pp.18-19.

45) 문정희, "아우내의 새", 이상호 해설, 『본격적 서사시로서의 가능성』, (일월서각, 1986), pp.97-98.

현사회가 혼란과 미혹을 거듭하면서 인간성 부재의 황폐함으로 가는 것을 인간성 회복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품격 높은 삶의 편향을 노래하고 있다. 그의 목적은 사회변화와 개혁을 중심축으로 하고 있기에 작고 보잘 것 없는 사물인식에서도 이와 같은 정신은 그것을 통하여 노래되고 있다.

시인 자신도 시란 좀 더 영혼적이고 좀 더 신적이고 미래적인 예언의 가치에 기여해야 하지만 가장 우리다운 숨결이 넘치는 필연적인 이 시대의 옷(style)과 만나서 태어나는 새로운 생명이 바로 좋은 시라고 밝히고 있다.[46]

문정희 시의 내용상의 특성은 ① 사랑, 고독 ② 관조적인 인생의 성찰 ③ 현실인식과 인간성 회복 ④ 여성해방 ⑤ 향토성과 설화 등이다.

표현상의 특성은 ① 단호함의 기법, ② 관능적 기법, ③ 서사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앞 산길 첩첩 뒤 산길 첩첩
돌아보면 정든 봉 첩첩
아재야 아재야 정갭이 아재야
지게 목 떨어진 한가락 다 뽑아라
네 소리 아니는 못 넘어가겠다
기러기 떼 돌아 넘는 천황재 아홉 굽이
내 오늘 너를 묶어 이 고개 넘는다만
언제나 벗어나리.
가도 가도 서러운 머슴살이 우리 신세
청포꽃 되어 너는 언덕 아래 살짝 필레
파랑새 되어 푸른 하늘 훨훨 날래
한 주인을 벗어나면 또 다른 주인
한 세월 섬기고 나면 더 검은 세월
못 살아가겠다고 못 참겠다고 너도 울고 나도 울고
쩌렁쩌렁 울었지만
오늘은 찬바람에 봉두난발 날리며
말없이 너도 넘고 나도 넘는다

46) 문정희, 『우리는 왜 흐르는가』, (문학사상사, 1987), p.84.

뭇새들 저러이 울어 예
차마 발 떨어지지 않는 느티목 고개
묶인 너 부여안고 한번 넘으면 그만인 아.
죽살잇 고개를.

<고개> - 전문, 이시영[47]

위의 시는 고개를 넘으면서 머슴살이 신세를 한탄하는 한 민초의 넋두리를 풀어내고 있다. 이시영은 이야기 시 형식을 통해 한 시대의 건강했던 민중 삶의 原形과 정서를 재현하고자 하는 전통적이며 民衆指向的인 시들과 짧고 예리한 언어로 오늘의 현실을 증언하고자 하는 리얼리즘 지향의 시를 쓰고 있다.

또한 이시영은 농민시를 쓰면서 시대상황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시는 농촌현실에 대한 진단을 관념적이거나 이상화(理想化)를 부르짖는 추상으로서의 현장이 아닌 농민들의 삶 속에서 살아 있는 이야기를 토속적인 분위기를 통해 서술하는 '서술시' 양식으로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성이 드러난다. 이시영의 시집『滿月』(창작과 비평사, 1976)과『바람 속으로』(창작과 비평사, 1986) 그리고 『길은 멀다 친구여』(실천문학, 1988)에 수록된 농민시들은 주로 토속적인 분위기 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서사적 내지 설화적 얼개'[48]로 형상화하고 있다. 시집 『만월』에 수록된 이러한 서술양식을 지닌 그의 농민시로는 <정님이>, <가을이 와도>, <새벽들>, <대침>, <옥례>, <滿月>, <머슴 고타관씨>, <오빠>, <흉년>, <삼밭>, <누룩>, <강냉이>, <고추밭에서>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러한 시들은 그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농촌을 배경으로 농민들을 서정적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인물들의 이야기를 토속적인 분위기를 바탕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이 시들은 시인의 농촌체험에서 비롯된 지극히 개인적인 농민들의 이야기이지만, 당대를 살아온 농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삶의 질곡들이다. 그 이야기는 가장 가까운 이웃들이 피를 흘리며 싸우기도 하고, 미치광이가 되어 가는 과정, 아편과 노름으로 버림받은 게으름뱅이 등 이 어린 시

47) 이시영(1949.8.6~)은 구례군 출생. 1969년 『월간문학』에 <採炭>, <어휘>가 당선되어 등단. 시집으로 『滿月』(창작과비평사, 1976), 『바람속으로』(창작과 비평사, 1986) 등이 있다.
48) 염무웅, <갈망과 탄식의 시> 발문, 이시영, 『바람 속으로』, (창작과 비평사, 1986), p.141.

절에 체험하고 관찰했던 기억들은 모두 '무서움'과 '두려움'의 형상이다.

시인은 본래적 가치, 있어야 할 가치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것은 상상의 가치다.[49] 시인을 움직이는 상상의 힘은 풍부한 삶을 지향하는 인간 삶의 사회 역사적 공간이 그에 합당한 것이기를 요구하며 풍부한 생명에 대한 갈구의 연장선상에서 얻어지는 의식으로서 직접적인 정치의식보다 더 치열한 의지 고양을 동반한다.

이 경향으로 시를 쓴 시인으로는 박홍원, 강인환, 김지하, 국효문, 송수권, 김선기, 문두근 등의 시에서 그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실성하여
깔깔대는 소리를 잊을 수가 없구나.
우리는 걷고 있었다.
섬 기슭 비탈길을
절뚝이는 나의
전쟁 얘기는 불꽃이 일고,
그것은
그들의
낙엽 같은 가슴에 점화된 것일까.
피비린 얘기의 절정에서
중심 잃은 그들은 섬비탈을 내닫고,
단숨에
생애를 태워버리려는 듯
깔깔대며 내닫고,
一瞬, 지나치게 빛나던 눈동자는
초점을 잃자 부우연 재.
재가 되어 휘몰리는
이 숨막히는 비탈길.
그린 듯
선 나는

49) 정현종 외 엮음, 『시의 이해』, (민음사, 1983), p.166.

우리의 마음을 몸뚱이를
겨울날 果園에서 보는
하늘만큼이나 찢어 놓은 전쟁을
생각타가, 생각타가,
갈매기의 날갯짓을 보고 있었다.
본시 물빛이던 갈매기의 나래도
활활 타는 落照 주변
狂炎에 보내는 갈채인 양
물결 소리는
바람처럼 다가오고
마침내는
밤이 오는 것이었다.
밤
그것은
아침으로 가는 길목에 쌓인 잿더미.
잿더미엔 불씨가 남아
반짝이는 별, 그 불씨가 남아.
실성하여
불타던 눈빛을 잊을 수가 없구나.

<受難 이후> - 전문, 박홍원[50]

위의 시는 전쟁의 상흔을 아로새긴 상념이 내밀한 시적 언어로 살아나고 있다. 박홍원의 시는 소재를 객관적인 사물을 자연 속에서 구하고 언어 표현 속에 어떤 삶의 의미를 담아 사람마다 깊은 사색과 따뜻한 감촉을 느끼게 하는 특징이 있고 특히 삶의 둘레에 널리 산재해 있는 객관적 사상에서 생활의 진실을 발견 이를 형상화하되 인간적 사랑과 진실을 투사하는 기교가 뛰어나며 인

50) 박홍원(1933.9.1~2000)은 신안군 출생으로 호는 경산(鯨山)이다. 1962년에 『현대문학』에 <고행(苦行)>, <밤>, <수난 이후>, <종언(終焉)을 보며>등이 천료되어 문단에 데뷔. 그 후 1969년 처녀시집 『설원』과 1973년 『옥돌 호랑이』를 발간함으로써 기라성 같은 시인의 반열에 올랐다. 그의 작품으로 <구두>(1963), <술과 나와 오늘>(1963), <선인장(仙人掌)의 역설>(1965), <바람>(1967) 등이 있으며, 시집『나무용의 웅얼임』(1979),『날개 펴는 노거수』(1991),『참대의 시』(1994) 등을 출판하였다. 특히 <광주 시민의 노래>, <무등산 찬가(아! 무등)>, <육군전투병과학교 교가>등의 작가 등 무수한 시와 글이 있다.

식과 시적 이미지 밀착에 의한 지적 서정 표출이 탁월하다. 그러면서도 삶의 의미라는 사상적 깊이 만에 과열하지 않고 시의 무게를 적당히 빚낼 만큼 터치하는 기법을 쓴다. 또한 형식과 내용이 잘 조화되고 그 내재된 시의 의미를 알차게 분출시켜 확산시키고 조율하는 중용(中庸)의 길을 지향하는 예술파적 특색이 두르러진다.

또한 박홍원의 작품경향은 사물에 이입된 소망의식을 기저로 한 구원의 미학을 추구하고 있다. 생활주변을 둘러싼 시적 사상의 객관화가 두드러지며 사물에 대한 의미 발견도 외경성에 터 잡아 다듬어진 것들이다.

그 절대한 공간의 시간에는
윤리도 기강도 흩어지는 구름이요
대낮에 쏟아지는 별무리
아니, 한여름에 후둑이는 우박이요
한겨울의 하늘에 걸리는 무지개

- <꽃덤불에 들다> 박홍원

박홍원의 시는 쉽게 읽히나 진실하며 이 같은 기질에서 사물에의 인식과 이미지가 지적 서정에 밀착되어 있다. 그의 시는 역사의식에 터 잡은 분단의 아픔, 갈등과 비애 등을 환상적으로 노래하고 있다.

박홍원의 시를 전통적인 서정이나 지적인 이미지를 바탕으로 일상적인 소재를 깎고 다듬어서 사상과 인생의 의미가 잘 용해된 미적 언어예술로 형상화시키는데 성공하였고, 우리 남도정서를 조명하고 빛을 더하게 하면서 낯익은 소재들을 알기 쉽고 친밀감 있게 높은 철학성을 담아 분출해 내는 역량 있는 시인이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
바람이 일어난다.
바람보다 투명한 우리들의 귀.
하찮은 이야기에도

놀라기를 잘해
잠자는 시간에도 닫혀지지 않고
문 밖에 나가 쪼그려 앉는
가엾은 우리들의 귀.
이 세상 어디선가
총성이 울리고 사람이
사람이 눈 부릅뜬 채 거꾸러져도
전혀 듣지 못하고
수도꼭지에서 방울방울
무심히 떨어지는 물방울
그 동그란 소문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편리한 우리들의 귀.

<귀> - 전문, 강인한[51]

위의 시는 귀를 제재로 하여 귀의 속성을 감성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강인한의 시적 실천행위는 역사적 인식에 의한 현실 비판 의식과 사실성을 넘어선 예술적 언어에 의해 형상화 된다. 그러므로 강인한의 서정성을 역사와 현실의 알레고리 속에서 구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황톳길에 선연한
핏자욱 핏자욱 따라
나는 간다 애비야
네가 죽었고
지금은 검고 해만 타는 곳
두 손엔 철사 줄
뜨거운 해가
땀과 눈물과 메밀밭을 태우는
총부리 칼날 아래 더위 속으로

51) 강인한(1944.3.26~)은 전북 정주 출생. 1967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시<대운동회의 만세소리>가 당선되어 등단. 제5회 전남문학상을 수상. 시집으로는 『이상기후』(가람출판사, 1966), 『불꽃』(대흥출판사, 1974), 『우리나라 날씨』(나남, 1986), 『전라도 시인』(태·멘, 1982), 『칼레의 시민들』(문학세계, 1992)이 있다.

나는 간다 애비야
네가 죽은 곳
부줏머리 갯가에 숭어가 뛸 때
가마니 속에서 네가 죽은 곳
밤마다 오포산에 불이 오를 때
울타리 탱자도 서슬 푸른 속이파리
뻗시디 뻗신 성장처럼 억세인
황토에 대낮 빛나던 그날
그날의 만세라도 부르랴
노래라도 부르랴
대낮에 대가 성긴 동그만 화당골
우물마다 십년마다 피가 솟아도
아아 척박한 식민지에 태어나
총칼 아래 쓰러져 간 나의 애비야
어이 죽순에 피는 물방울
수정처럼 맑은 오월을 모르리 모르리마는
작은 꼬막마저 아사하는
길고 잔인한 여름
하늘도 없는 폭정의 뜨거운 여름이었다
끝끝내
조국의 모든 세월은 황톳길은
우리들의 희망은

<황톳길> - 전문, 김지하[52]

황톳길은 민중의 고초와 질곡이 어려 있는 곳이다. 위의 시는 작은 꼬막마저 아사하고 하늘도 없는 폭정의 뜨거운 여름을 지나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김지하의 작품 경향은 비극적 정서를 바탕으로 선과 악, 몸과 의식, 나와

52) 김지하(1941~) 본명은 영일(英一) 전남 목포 출생. 처음 '지하'라는 한글 필명으로 1969년 11월호 『시인』에 시 <비>, <황톳길>, <녹두꽃>, <들녘>등을 발표하면서부터 문학 활동을 시작했다. 시집 『황토』(한얼문고, 1970), 『타는 목마름으로』(창작과 비평사, 1982), 『대설(大說)1, 2』(창작과 비평사, 1984), 산문집 『밥』(1984)을 간행하였다. 또한 희곡 『나폴레옹 고냑』(다리지, 1972.9)을 발표. 1981년 12월 2일 원주교구 카톨릭센타에서 수상했고, 1981년 국제 시인회의(POETRY INTERNATIONAL : 본부, 노테르담)의 위대한 시인상을 수상하였다.

세계의 대립을 넘어선 영웅적인 대조법의 세계를 그리고 있다.

김지하 초기 시에서 불 이미지는 역동적인 사물의 운동성과 격렬한 정서적 에너지의 움직임의 상관물로서 표현된다고 하면서 물질적 현상이 시적 자아의 정서적 동향과 내적으로 결합된 움직임 속에서 정서와 사물의 경계가 매우 희미해지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다. 이처럼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의 긴장의 징후를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은 타자의 세계가 감각적으로 파악되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다는 김수림[53] 주장은 탁월하다. 그런가 하면 시인의 물을 향한 갈구는 근원적이고 원초적이라는 관점을 제시한[54] 견해는 물 이미지 분석에 대한 생명사상을 바탕으로 근원적인 일원론에 기초한 역동적 이원론의 세계에 대한 탐구를 지닌다.

그래서 김지하의 시에서 불과 물은 생명의 근원이다. 생명체는 끊임없이 자기를 갱신하여 자체의 통일성을 유지한다. 그것은 외부 세계와의 끊임없는 접촉으로 안정된 시공구조를 유지하려고 하는 한편, 그 개별성을 잃지 않는 가운데 상호 작용한다.[55] '촛불'에서 '불'과 여울에서 '물'은 그렇게 주어진 한계를 극복하여 자신의 존재를 유지시켜 나가는 한편, 모이고 모여 약동하는 힘을 이룬다.

그래서 김지하 시에 나타나는 불 이미지는 또한 열사나 사막을 떠올리게 한다.[56] 죽음의 들판 가운데 생동의 숨결로 지펴지는 최초의 불길 같은 예감이 존재하는 그곳은 시인의 상상력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그리하여 일체의 대결구도를 무화시키는 총체성의 세계를 구현하는 불[57]이다. 불은 정화(淨化)의 의미도 함께 지닌다.[58] 불은 생성과 소멸의 양면성을 함께 지님으로써 생명 현상을 가리킴과 동시에 초생명(超生命)적 현상을 두루 포함하는 것이 된다. 그러한

---

53) 김수림, "김지하 · 정현종 초기 서정시의 물질적 상상력과 문체"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2001)
54) 방민호, "70년대 목마른 영혼과 비, 빗소리, 물-'화개'론" 『오늘의 문예비평』 47 겨울호, (세종출판사, 2002)
55) 김지하, "촛불과 자기조직화" 『작가세계61』 여름호 (세계사, 2004), pp.378-391.
56) 남진우, "생명의 불 영원의 빛" 『신성한 숲』, (민음사, 1995), p.132.
남진우는 그의 시가 열사의 사막을 방불케 하는 이미지로 가득차 있음을 지적하면서 그를 '유목민적' 상상력의 소유자로 파악해야 한다고 보았다.
57) 송기한, "반역과 생성으로서의 불 이미지" 『현대시』 통권 192호 (한국문연, 2005.)
58) 아지자 외, 장영수 역, 『문학의 상징· 주제 사전』, (청하, 1980), pp.169-178.

보편성을 지닌 불은 외부 세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원한이나 분노의 감정과 더불어 초월의 의지까지 아우르는 내재적인 '질료'의 차원으로 존재한다.[59] 김지하의 시에서 '불'은 초생명적 현상으로서 생명의 근원에 자리한다. 집적된 에너지로서의 불은 억압적이고 타율적인 폭력의 힘으로 작용하는 외부 세계를 뒤바꾸어 놓을 만큼 강력한 것이 된다. 삶에 가장 폐해를 입히는 장애물로부터 생명력을 차단을 당했을 때, 오로지 장애물의 반대를 위한 팽팽한 맞섬만이 생명력을 다시 되찾는 길이 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개인 차원이 아닌 집단 차원의 에너지 전환 현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끊임없이 왜곡된 생명의 체험 또는 죽임의 정서 체험과의 접촉 속에서 그 죽임의 경향들을 전향시키면서 새롭게 더 큰 하나로 아우르며 삶 그 스스로를 해방해 나아가는 이른바 '생명 에너지의 고양된 충족'[60]이다. 폭력은 그 폭력의 피해자 속에서 비애로 진화하는 것이다. 해소되지 않고 지속되며, 약화되지 않고 날로 갈수록 더욱 더 강화하는 동일한 폭력의 경험 과정은 무한한 비애 위에 더욱 무한한 비애를, 미칠 것 같은 비애 위에 더욱 미칠 것 같은 비애를 축적하여, 한의 탄탄한 도약대의 미는 힘은 시인으로 하여금 시적 폭력에로 떠 밀어 올리는 강력한 배력(背力)이자 공고한 저력으로 작용한다.[61]

김지하의 시에서 생명의 모습은 충돌하고 발전하는 모순의 작용 곧 힘과 힘의 운동으로서 변화되어 나타난다.

"현실의 사실의 토대 없이는 불가능하고 동시에 사실의 극복 없이 또한 불가능하다"[62] 고백하듯이 순수한 객관적인 현실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근본적인 실재란 어떤 객관적인 혹은 실재적인 대상이 아니라, 인간과 세계와의 관계에서만 성립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대상은 객관화하려는 의식에 선행해서 그 자체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화하려는 의식에 의해서만, 즉 의식과의 관계에 의해서만 객관화된다.[63]

---

59) 가스통 바슐라르, 민희식 역,『불의 정신분석』, (삼성출판사, 1984).
60) 김지하, "민중문학의 형식문제",『민족, 민중, 그리고 문학』, (지양사, 1985), p.227.
61) 김지하, "풍자냐, 자살이냐" 『詩人』6, 7월호 , (세계사, 1989)
62) 김지하, "현실동인 제 1선언", 『김지하 전집3-미학사상』, (실천문학사, 2002), p.95.
63) H. 베르그송, 위의 책. 베르그송에 의하면 인간의 지각 행위는 기억의 여러 층을 내포하여 그것의 '주관적 측면'을 구성해서 의식하는 기억이다.

김지하의 현실 인식 태도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현실을 힘과 힘의 운동으로 이해하는 관점이다. 그것은 현실과 함께 현실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모순을 인식하는 것이며, 모순의 구조와 모순 사이의 관계, 또 그 관계들의 모든 구조를 총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64]

김지하가 상상하듯 생명이 자유스러워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총창이 그어댄 주름"을 통해서이다. 생명이 자유스러워지면 죽음의 순간을 살짝 비켜서는 익살[65]이 실현된다. 익살을 통하여 비애적 현실 인식은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로 변할 수 있다. 긴장된 움직임으로 형성된 시적 공간을 통하여 현실의 대립과 갈등을 일소에 해소시켜버리지는 않겠다는 시인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그것은 현실의 대립 및 갈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생명에 대한 순정한 의지의 표현이다. '물'과 '불'의 대립이 이루는 공간은 주체의 감정과 인식이 부단히 대상과 반성적으로 매개됨으로써 대상과 주체 사이의 길항에서 생겨난 역동적 '서정'의 공간[66]이 된다.

생명과 합일의 태도, 원융의 자세에 대한 보다 문학적 언술은 김지하에게서 보이는데, 그는 특유의 '흰 그늘'의 시론을 주장하면서 "예술가에게 그늘은 기쁨과 슬픔, 웃음과 눈물, 선과 악, 빛과 어둠 …… 이런 것이 역설적으로 대립되면서 공존하는 이상한 영역이라고 했습니다만 더 확대해서 삶과 텍스트 사이의 관계, 그 사람의 작품과 인생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일치적이고 통일적인 관계에 도달하는 것이 그늘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현실과 환상, 자연과 초자연, 땅과 하늘, 이승과 저승, 주관과 객관, 주체와 타자, 두뇌와 신체, 이런 대립되는 것을 연관시키고 또 하나로 일치시키는 미적인 창조 능력을 그늘이라고 합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67]

그래서 김지하의 생명은 녹두 장군의 삶이 되어 버린다. "별 푸른 시구문 아

---

64) 김지하, "현실동인 제 1선언", 위의 책, p.101.

65) 현준만, 앞의 책, p.92.

'골계에 의한 비애의 차단'은 외부 사회로부터의 객관적 충격을 시인의 관념 속에서 내면화 · 추상화시켜 결국에는 해소시켜버리고자 하는 서정시의 주관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실의 대립 및 갈등을 객관적으로 독자에게 전달함으로써 현실에 대한 비판적 참여를 요구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조성케 하는 서사의 원리와 맥을 같이한다고 보고 있다.

66) 유성호, 『침묵의 파문』, (창작과 비평사, 2002), pp.70-74.

67) 김지하, 『예감에 가득 찬 숲 그늘』, (실천문학, 1999), p.31.

래 목 베어” 죽어간 녹두장군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횃불”로서 되살아남으로써 폭력과 저항의 불이미지는 ‘생성’으로서의 이미지로 다시 변화를 하게 되는 것이다. 불이미지는 ‘생성(압제) - 압제(저항) - 저항(생성)’으로 변용을 겪고 있다.

동학혁명이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나 추억이 아니라, 그의 결전의지를 북돋는 원동력이 되고 나아가 현재의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게 하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것[68]은 과거와의 연속성을 제시하되, 생성으로서의 참다운 시간을 열어 가고자 하는 시인의 의지가 생명을 통해 실현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의 관점에서 유용한 과거를 이용함으로써 과거의 기억을 현실화하고, 현실에 유용한 기억의 활동으로써 미래를 향한 의미를 열어두고 있는 것인데, 김지하의 이러한 ‘삶에 주의를 기울이는 의식’[69]은 삶의 단순한 재현이 아닌, 이상적인 삶을 산출하는 창조적 자유 활동이 되고 있는 것이다.

살아 있는 생명들의 비상의 꿈은 ‘원형’적 삶을 향한, 물질적 제약을 벗어나고자 하는 시인의 열망이 그려 낸 역동적 이미지이다. 사람의 상상은 세상의 아래에서 위로 즉 수직적으로 본다. 이것이 인간의 특권이요 운명[70]인 것이다. 한편, 살아있는 생명 이미지는 실현될 수 없는 꿈과 현실과의 거리를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드러냄으로써 그 거리가 인간이 어떻게 억압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척도가 되기도 한다.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억압하는 것과 억압당하는 것의 정체를 파악하고, 그 부정적 힘을 인지한다. 그 부정적 힘의 인식은 인간으로 하여금 세계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당위성을 느끼게 한다. 그리하여 시는 불가능성에 대한 투쟁의 장이 될 수 있다.[71]

---

68) 임동확, “김지하 시 연구- 반근대성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2000)

69) 김재희, 앞의 글. 베르그송에 의하면, 대상에 주의를 집중하는 의식은 개인의 주관적인 실존적 체험 전체에 가까워지도록 한다. 의식이 삶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생명체의 자기 보존과 관련된다. ‘나의 현재’를 이루고 있는 내 신체의 감각-운동적 상태란 사실 ‘직전의 과거인 동시에 임박한 미래의 결정’일 뿐이다. 과거가 미래를 향하여 끊임없이 밀고 들어가는 첨단에 나의 신체가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고, 현재는 항상 과거와 함께 공존하면서 앞으로 계속 살아 나가기 위해서 나에게 유용한 것에 관심을 기울이며 내 몸을 움직이고 있는 순간이라는 것이다.
‘삶에 주의하는 의식’이란 과거의 기억을 현실화하고 현재의 관점에서 유용한 과거를 이용하는 것으로, 결국 미래를 향한 과거와 현재의 시간적 종합인 기억의 활동과 마찬가지이다.

70) 이상섭, 『언어와 상상』, (문학과 지성사, 1980)

71) 김 현, 『한국문학의 위상/ 문학회학』, (문학과지성사, 1992), pp.50-52.

김지하의 생명의식은 화자의 의식이 향해 있는 곳이다. 그의 문학 정신의 원형성을 간직하고 있는 작품으로 손꼽히는[72] 시 속에서도 나타난 드넓은 자유와 생명 현상은 화자로 하여금 과거의 폭압적인 당대 현실의 통합 과정 속에서 생명의 순환적 생성 질서를 꿈꾸게 하는 근원으로 작용한다. 패배와 죽임의 역사적 필연을 예감하면서도, 역사 · 사회적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죽어간 이들의 죽음과 삶과 슬픔을 공유하면서 생사를 넘어서고 이승과 저승을 뛰어넘어 열어갈 생성으로서의 세계[73]에 '생명'은 자리한다. 그것은 현실적인 고난의 삶 속에서도 김지하가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기도 하다.

당신은 아뜨라스
검은 손이 불꽃처럼 밝다
처음에는 創造의 숨결
들릴 듯 들릴 듯 아쉽더니
이윽고 無數한 소나기와 常綠
화려한 전쟁이 몰리고 또 지고
그리하여 波濤와 쫓기는 密林의 불빛
붉은 悲鳴과 검은 慣이 목을 노면
저렇게 우는 것인가 생각한다.
— 사랑한다든지 이렇게 산다든지 하는 것은
한낱 부끄러운 메아리
바위를 밀고 그 밑에 깔리고 발목이 쌓이고 한데
아아 나는 앉은 자리 그 발이 가벼운 아프리카 어느 부족한 營養
오랫동안 여위고 절던 나의 눈이
지금 저 瞳子 속에 사는 뜻은 무엇인가
그 山같은 이마에 뺨에 넘는 湖水로 하여
萬年의 이 傷痕을 汎濫케 하지 못할까
처음에는 呼吸하듯 흐느끼듯
다음에는 波濤가 부서지듯 산이 밀리듯
그리하여 太陽과 密林과 검은 빛깔이

72) 김재홍, "반역의 정신과 인간해방의 사상" 『작가세계』 가을호, (세계사, 1989)
73) 김지하, 『흰그늘의 길1』, (학고재, 2003), p.126.

아아 이 靑春의 祖國되게 할
당신은 아뜨라스
검은 손이 불꽃처럼 밝다

<黑人 鼓手 루이의 북> - 전문, 범대순[74]

고수의 손끝에서 움퍽움퍽 들려오는 저 소리는 처참한 주종관계를 의미하고 있다. 지금도 진행 중인 흑백갈등은 “고수”를 통해서 말하고 있다.

범대순의 작품 경향은 현대 문명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는 기계에 대한 관심이고 또 하나는 사회적 관심이다. 이러한 관심은 힘과 자유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표출되고 있는데, ‘흑인’ 이미지 속에서 잘 표현되고 있다. 최근 16권으로 전접을 출간하여 전남시단의 무게를 확인시킨 시인이다

참말로 별일이다.
내 꿈속의 어떤 村落에서는
헐벗은 눈물과 눈물들이
소리 없이 만나고, 쉴 새 없이 부딪쳐서
또 다른 눈물들을 탄생시킨다.
눈물의 새끼들은 순식간에 자라서
愛撫도 맘 놓는 定處도 없는 곳에
또 다른 눈물들을 탄생시킨다.
뿐이랴.
어매의 눈물이 아배의 맨살에 닿자
살도 어느덧 눈물이 되고,
아배의 눈물이 어매의 맨살에 역습하자
그 살도 또한 눈물이 되는.
오오 황홀한 범람
그것은 모두 부릅뜬 눈망울인데

74) 범대순(1930.6.16~)은 광주 출생. 1965년에 시집 『흑인 고수 루이의 북』을 출간하여 등단. 미국 오하이주 데니슨대학의 맥크네일 시(詩)상과 엣세이상을 수상(1981). 시집으로 『흑인고수 루이의 북』(시사영어사, 1965), 『연가 Ⅰ, Ⅱ 기타』(문원사, 1971), 『이방에서 노자를 읽다』(예전사, 1986), 『기승전결』(문원사, 1971), 『기승전결』(문학세계사, 1993), 『백의 세계를 보는 하나의 눈』(문학아카데미, 1994) 등이 있다.

하염없이 바라만 보아도
내 몸도 거칠게 출렁이는 눈물이 된다.
뼉따귀와 魂이 한 함성으로 번지는
눈물의 頂点 頂点
참말로 별일이다.

<國土 · 2> - 전문, 조태일[75]

위의 시는 현실의 고통을 "눈물과 눈물들이"로 표현했다. 단수인 눈물은 시인 자신을 가리키며 '눈물들이'는 민중을 가리킨다. 아직도 꽃피우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서 통곡하고 있다.

조태일은 등단 초기부터 현실의식이 강한 시를 쓰고 있다. 동시대의 한국적 상황을 시의 진실로써 투시한 증언적 언어와 일정한 규칙 없이 자유분방하게 펼쳐진 로맨틱한 남도 분위기의 시어를 연출하는 회화적 에스프리를 잘 드러낸다.

벼는 서로 어우러져
기대고 산다.
햇살 따가와질수록
깊이 익어 스스로를 아끼고
이웃들에게 저를 맡긴다.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어
더 튼튼해진 백성들을 보아라.
죄도 없이 죄지어서 더욱 불타는
마음들을 보아라. 벼가 춤출 때,
벼는 소리없이 떠나간다.
벼는 가을 하늘에도
서러운 눈 씻어 말게 다스릴 줄 알고

75) 조태일(1941.9.30~1999.9.)은 곡성 출생. 호는 죽형(竹兄)이다. 1964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시 <아침 선박>이 당선되어 문단에 등단. 시집으로는 『아침 선박』(선명문화사, 1965)을 비롯하여 『국토』(창작과 비평사, 1983), 『가거도』(창작과 비평사, 1975), 『연가』(나남, 1985),『산속에서 꽃속에서』, 『풀꽃은 꺾이지 않는다』 등을 출판. 제10회 만해문학상을 수상.

바람 한 점에도
제 몸의 노여움을 덮는다.
저의 가슴도 더운 줄을 안다.
벼가 떠나가며 바치는
이 넓디 넓은 사랑
쓰러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서 드리는
이 피묻은 그리움
이 넉넉한 힘

<벼> - 전문, 이성부[76]

그는 이렇게 함께 하는 세상을 위의 시 <벼>를 통하여 잘 보여주고 있다. 얼마나 멋진 세상인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서로 사랑하며 이것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 세상이다. 이성부의 시는 와이퍼처럼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에 자리한다. 그것은 자동차 밖의 현실이 아니라 자동차 내부의 비현실적 경험으로 이동하는 것을 감시하는 것처럼 이성부의 시적 경향은 단순한 자기표현과 예술적 규범에 부합되는 등의 노력에서 벗어나 현실경험으로 살아 있음에 대한 감시로 이어진다.

산다는 것은 절벽을 올라야 할 때도 있지만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이 도 다른 항거이다. 순응하는 것은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하는 적극적인 극복의지의 발현이다. 시인은 순응하여 살아남아야 또 다른 이야기를 소곤한 언어로 노래하고 있다. 이 경향으로 시를 쓴 시인으로 임보, 김규화, 김현곤, 윤재걸, 조영희, 곽재구 등의 시에서 그 경향을 찾아 볼 수 있다.

어제는
내 친구인 미생물학교수가 전자현미경 얘기를 했는데, 몇 십만 배로 늘릴 수 있다는 그 전자현미경을 통해 인체를 관찰하면, 우리의 눈 주위에 박힌 눈썹털 하나에도 수십만 개의 미생물들이 살고 있다는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딱정벌레들

76) 이성부(호 泥丁, 1942.1.22~)은 광주 출생. 전남일보 신춘문예에 시가 당선(1960)되어 등단. 1969년 현대문학상, 1978년 한국문학작가상 등을 수상하였고, 시집으로는 『이성부 시집』(시인사, 1969), 『우리들의 양식』(민음사, 1974), 『백제행』(창작과 비평사, 1977), 『前夜』(창작과 비평사, 1981), 『平野』(지식산업사, 1982) 등이 있다.

처럼 발과 머리와 몸통의 형체를 제대로 갖춘 의젓한 생명체로 살아가고 있다는데.

오늘은

내 친구인 천문학교수가 망원경 얘기를 하는데, 은하계 속에는 수많은 태양계들이 널려 있다는데, 별과 별 사이는 몇 십만 광년이나 되는 것도 있고, 아니 어떤 항성에서 출발한 빛은 아직도 이 지상에 도달되지 않은 것도 있는데, 이 우주의 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도대체 가늠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어느 분의 눈썹털 속에 들어앉아 보채는 것이려나.

인간들이 그 가녀린 지혜로 얽어 로케트를 만들기도 하고 혹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기도 하여 달도 화성동 휘어잡아 보는 것은 어느 한 눈썹 속의 딱정벌레가 옆 눈썹으로 건너뛰는 일처럼 우습고 우스운 일이어서 철학을 하는 내 친구 하나는 그저 술잔 속이나 드려다 보면서 그 시리고 시린 마음을 달래기도 하는데.

일전에는

영혼을 볼 수 있다는 어느 심령학자가 사후의 얘기를 하는데, 장차 우리가 돌아갈 곳은 시간도 공간도 아닌, 밝은 자는 밝음 속에서, 어두운 자는 어두움 속에서 영원히 스며 흐르는—, 영혼 본연의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조금은 덜 허허로운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허나,

내 육안으로 보면 알맞게 부푼 저 산과 들판, 곱게 자란 초목, 훈훈한 발마, 저 색깔 고운 과일, 내 가족들의 따스한 체온……

어떤 분이 이 지상에 내 마음 오래 매어 두려 베푸신 저 풍성한 환영임을 내 모르는 바 아니로되 이 한 꿈 더디 깨기를 바라는 것은, 이 한 꿈 더디 깨기를 바라는 것은….

<無盡辭說調> - 전문, 임보[77]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미시적 시세계는 세밀한 관찰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이 작품 역시 세밀한 관찰을 통해서 쓰여졌다.

임보는 작품초기에 신과의 대결자적 자세로『生』의 의미를 부여해 보려 했으나, 말년에는 인간과 우주의 本質 문제에 접근하여 求道的인 자세로 達觀의 상태를 모색한다.

77) 임보(호 華山主人, 본명 姜洪基, 1940.6.19~)는 곡성 출생. 1962년 『현대시학』에 <自畵像>, <나의 獨裁>, <거만한 相續者>가 천료되어 등단. 대표시 <無盡辭說調>와 시집 『林步의 詩들』(한국문학, 1974), 『山房動動』(한국문학, 1984), 『木馬日記』(동천사, 1987)가 있다.

눈깔사탕이 목에 걸렸다
아침에 먹은 신경의 밥이
까슬까슬 목을 건드렸다
목에 걸린 눈깔사탕을
꼴깍 삼켜 뱃속에 넣지 못하여
고리같이 동그란 식도에
생긴 赤信號
삼키지 않으면 안 된다, 안 된다,
내 입이 말하고
그렇지 않은 건 내 목이다.
내 몸은 살얼음 위에서
잔금을 그으며 새어나간 힘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촉각을 세운 내 숨이
닫힌 문을 뚫고 사방에 묻혀서
쌀알 떨어지는 소리도 듣는다
아코디언같이 좁혔다 펴지는
가슴은 떨면서
옷 스치는 소리도 울리고 있는데
문 두드리며 다가올 미지
절대적이기 災殃 같은
오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까
불 끄고 잠자는 꿈속에서도
작은 기침소리, 발자국소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나지 않은 것은 일어날 것이라고
좁게 먹은 마음이 목에 걸려서
-참으로 목숨에 비하면 이 하찮은 일
물 먹은 가슴의 한쪽 귀퉁이가
마른 나뭇잎 소리를 낸다.
서릿발 같은 기운으로

살 속에 베어든다.

<소심증> - 전문, 김규화[78]

위의 시는 기침 소리, 발자국 소리를 통해서 내면의 세계를 인식하고 있다. 김규화의 작품 경향은 자기 성찰에서 인식론적인 시로써 사물을 감성 및 감각보다는 지성으로 인식하여 사물 내면의 의미를 파악한다.

해를 보면서 널 부른다
달을 바라면서 널 울먹인다
비오는 날 질척한 땅을 밟으면서
다시 널 부른다
바람을 받으면서 한번 더
너의 뒷모습을 후렴처럼 떠올린다
너는 한마당 노랫가락이었으므로
사시사철 언제나 피는 꽃
해와 달에 마주 서서
무시로 일어서는 가슴앓이의 노랫가락
바람으로 오거라
빗방울로 오거라
때로는 우박처럼
때로는 파도처럼
아니 그냥 그 날의 네 울부짖음
그대로 우뚝하거라
너는 이 땅에 선 하나의 碑銘이었으므로.

<다시 부르는 노래> - 전문, 윤재걸 [79]

위의 시를 통해서 수 없이 누군가를 부르고 있다. 어쩜 사회의 부조리를 적

78) 김규화(1940.2.27~)은 전남 승주군 출생. 1966년 『현대문학』에 <죽음의 서장>, <무위(無爲)>, <무심(無心)>이 천료되어 등단. 대표시는 <무심>, <노리내기>, <이상한 기도>등이고, 시집으로는 『이상한 기도』(시문학, 1981), 『노래내기』(혜진서관, 1983)가 있다.

79) 윤재걸(1947.3.1~)은 해남 출생. 1966년 『시문학』에 작품이 게재되면서 문학활동을 시작하였다. 1975년 『월간문학』에 <鎔接>이 당선되어 등단. 시집 『후여후여 목청 갈아』(평민사, 1979), 『금지곡을 위하여』(청사, 1985) 등이 있다.

나라하게 파헤치는 울부짖음이라고 생각된다. 윤재걸의 작품 경향은 사회현실에 대한 주체적 정서를 기축으로 한국시 전래의 功利性과 그 양식에 관해 관심을 기울기고 있다. 따라서 그의 작품에는 '현실수용'이라는 순응적 정서와 '사회고발적 비판의식'이 문화적 대응으로 공존하고 있다.

한 숨, 한 숨으로는 못 닫는 하 높은 하늘이라
꽃잎들 살이야 햇살에 바래며 잎 먹는 벌레들 꽃 빛에 물리며
허공 속 티끌 모아 속 채운 열매들
求心하여 고향 땅 흙 속에 머물러
그 靜淑 有常 속 無爲의 씨 눈들로
흰 구름 꽃피는 하늘을 호놀다
검은 밤 회도록 별들에 물어 보며
本 故鄕 달빛 七天 새 고향
꽃 이슬 눈빛들로 더듬어 살피다
靜淑한 중심 쏜살로 求心하듯
오, 탯줄로 당기어 靈性들 치닫나니
오! 은실 금실 다그치는 한님의 한 사랑!

<나무> - 전문, 김현곤[80]

위의 시는 삶에 대한 근원적 투시와 끊임없는 생명의식 남도의 짙은 향토성을 바탕에 깔고 있다. 김현곤의 작품 경향은 인간현실 고뇌를 해탈의 언어로 다루었고, 형이상학적 진리를 긴 가락으로 직조하면서 현실과 이상을 뛰어넘는 형상성이 두드러진다.

문학이 사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람살이만을 노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시는 순간의 감정을 함축적 언어로 형상화하는 장르이다. 여기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전달의 측면에서의 구체성이다. 이승훈은 그의 책[81]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시는 세계와의 추상적인 만남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80) 김현곤(1935.9.5~)은 광주 출생. 1963년 『시예술』 동인으로 참여 <失鳶>을 발표하면서부터 작품활동을 했다. 시집에 『새벽강에 뜨는 별들의 이름으로』가 있다.
81) 이승훈,『이승훈의 알기 쉬운 현대시 작법』, (한국문연, 2004).

살아 있는 감각적인 만남을 노리고 그런 만남의 세계를 보여주어야 한다. 시에서는 관념으로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느끼는 감각, 이미지가 중요하다.[82] 이 세계에는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물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1차적 경험, 곧 사물들과의 구체적 감각적인 만남을 상실하고 있다. 그럴 때마다 인간은 허무를 느낀다. 시는 우리가 잊고 사는 구체적인 감각들과 새롭게 만나는 허무를 기회의 장으로 그 중요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 허무의식에 빠지고 또는 자연과 동일화하려고 한다.

이 경향의 시를 쓴 시인이로는 최하림, 김만옥, 노향림, 오명규, 최봉희, 문병란, 조병기, 김인석, 김승희, 김창완, 황청원, 손동연 등의 시에서 그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 그해도 다 간 12월 초순 서울에서는 포근하고 새하얀 눈이 내렸습니다. 우리는 눈길을 걸어 도선사로 명동으로 갔습니다. 도선사 모퉁이를 돌면 소나무숲 저편으로 절간의 풍경들이 떼그르르 떼그르르 울고 고딕풍의 명동 성당에서도 성모마리아님이 흰 이마를 들고 우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슬픔을 슬퍼하지 못한 우리를 슬픈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성모마리아님이여 죄가 있으므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죽고 싶어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죽고 죽음에서 살고 있습니까, 고다마의 어머니 마야님이여, 당신의 아들이 집을 나간 뒤로 얼마나 많은 아들들이 이 세상에서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저 먼 나라 아르헨티나에서는 수만명도 넘은 잘생긴 아들들이 행방불명되었다가 얼마 전 시체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수만명도 넘은 어머니들이 시체를 맞아들였다고 합니다. 성모마리아님이여, 고다마의 어머니 마야님이여, 이런 날은 아들을 그리며 전태일의 어머님도 어느 길을 걸어가고 김남주의 어머님도 갈 것입니다. 이런 날은 아무 죽음도 가지지 못한 저나 제 친구들도 갑니다. 나무들이 언가지로 서 있고 차고 신선한 공기가 샘물처럼 흘러서 수만리도 더 멀리 뻗어가고 수만리도 더 높이 솟아오릅니다. 번쩍번쩍 빛나는 겨울산으로 끝없이 솟아오릅니다.
>
> <겨울산> - 전문, 최하림[83]

82) 랜섬에 의하면 어떤 이미지도 없이 오직 추상적 관념만을 원용하는 담론은 과학적 문서에 지나지 않는다.

83) 최하림(1939.3.7~)은 목포 출생. 1964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시 <貧弱한 올훼의 回想>이 당선되어 문단에 등단. 시집으로는 『우리들을 위하여』(창작과 비평사, 1976), 『작은 마을에서』(문학과 지성사, 1983), 『겨울꽃』(풀빛, 1985), 『겨울 깊은 물소리』(열음사, 1987) 등이 있다.

위의 시는 '우리'라는 근원적인 공동체의 시세계가 도도하게 흐르고 있다. 최하림의 시들은 제1집 <우리들을 위하여>에서 제4시집 <겨울 깊은 물소리>에 이르는 동안 많은 변화를 보여준다. 그 첫째는 최하림이 '우리'고 상정하였던 집단 혹은 공동체로부터 '나' 혹은 '개인'으로 시각 조정을 하고 있으며, 둘째로는 '우리' 노래하였던 초기 시들이 다소 추상적이고 상투적인데 비하여 후기 시로 갈수록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공동체 의식으로부터 개인으로 이탈하여 갔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공동체라는 것이 개인으로 이루어진 집합개념이라고 볼 때 그 개인의식은 집단의식을 견고히 하는 의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최하림은 '작은 것은 아름답다'고 말한다. 그 작음은 시인이 구체적으로 느끼는 것이고, 관계된 일이며, 원근법적인 가치가 부여된 세계이다. 따라서 그 작음은 단순한 작음이 아니라 의식화된 작음이다. 이 같은 면은 최하림의 특유의 섬세한 시각과 부드러운 성조와 더불어 후기 시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다.

황금의 이마를 하고 조약돌들이
서로 몸 비비는 저녁 바다 위
나는 커다란 흰 접시 하나 띄워 보네
그 넓이대로의 하늘로 덮인
내 終生을 담고 扶桑에로 떠나는
그것은, 속이 밝은 가방을 든
구두같은
나의 意識이네.

<먼 항해> - 전문, 김만옥[84]

위의 시는 내면의 세계가 유한적 존재임을 인식하고 항해를 통해 인생의 무한함과 자연의 진리를 깨닫고 있다. 김만옥은 10여 년간 병고의 어려운 생활을 견디며 <홍포의 집>, <슬픈 계절>등 좋은 작품을 발표하여 주목을 받았으

84) 김만옥(1946.3.6~1975.9.5)은 전남 완도군 출생. 1966년 『사상계』 제8회 신인문학상에 <차침장미원>, <떨어진 과실과 상징>, <투신기>, <내성(內省)> 등이 당선되어 문단에 등단.

나, 광주로 내려와 끝내 자살하고 말았다. 그의 시는 섬세한 감성의 표현과 강한 주체의식을 추구하는 작품을 썼다. 그는 소설 창작에도 뛰어난 재능을 보여 1970년 전남일보 신춘문예에 <붉은 웃음>, 같은 해에 대한일보 신춘문예에 <청도 전말>, 1972년 서울신문 5·16 민족상에 <도강>이 당선되었고, 1963년 『시조문학』에 시조 <5월과 그 아침의 찬>이 추천도기도 했다. 시집 『슬픈 계절』(국제출판사, 1964)과 유고시집 『오늘 죽지 않고 오늘 살아 있다』(청사, 1985)가 있다.

신경림은 그의 시론에서 민중시는 민중들이 처한 현실이나 삶이 서로 이어지고 형상화되어야만 살아 있는 시라도 말하고 있다.[85] 사는 것은 고통이고 슬픔이다. 그렇다 슬픔에 젖어 살수만은 없다. 살려면 슬픔도 기쁨처럼 즐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낙천적이어야 한다. 결국 산다는 것은 슬픔과 낙천의 중층이 무겁게 하루하루 쌓이는 것이다. 이것을 일기처럼 형상화 하여 써가는 詩도 있다. 이 경향으로 시를 쓴 시인으로는 최봉희, 문병란, 조병기, 김인석, 김승희, 김창환, 황청원, 손동연 등의 시에서 그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꽃은
나비가 날개를 돋힌 후
꽃봉오리를 열어
여울목에 구름이 흐르게 하였다.
꽃은
날개를 접은 나비가 핀에 꽂힌 후
당신이 꺽은 한그루 나무가 되었다.
해와 달과
빛나는 별들이
한 떨기 꽃송이에
과즙의 향내를 뿌리고
문을 열면
눈부신 閃光

85) 윤여탁 외, 『한국 현대시론사 연구』, (문학과 지성사, 1998), p.346.

스스로 정갈한 당신의 옷깃을 놓는다.
나비가 날던 날의
그 꿈속에서
하나 둘
꽃잎은 출현한다.
땅 위로부터
저 하늘 끝 까지
술렁이는 바람을 헤집고
꽃은
몸서리치며 출혈한다.

<꽃은> - 전문, 최봉희[86)]

위의 시는 객관적 사물을 통해서 짙은 서정성을 보여주고 있다. 작품 경향은 일상적인 소재를 통하여 평이한 언어와 서정성을 바탕으로 인간의 정서, 인간의 외로움을 섬세한 정감으로 노래하는 시의 세계를 갖고 있으며, 한국의 민속문화에도 뿌리를 두고 있다.

오직 우리만이 알고 있는
서러운 눈물, 천년의 한을 삼키듯
질겅질겅 씹어 삼키는 매운
분노,
모질게 으깨져 온
너와 나의 슬픔을 깨문다.

- <매운 고추를 먹으며>에서

위의 시는 오뉴월 더위에 약 오른 매운 고추를 먹으면서 '맵고 독한 눈물'을 삼킨다는 시상의 전개를 통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역사를 인식하고 반추하는

86) 최봉희(1938.1.18~)은 순천 출생. 1960년 『자유문학』에 <6월에>, <낙엽>, <능금>이 천료되어 등단. 1991년에 광주문학상을 수상. 시집으로는 『사색과 영원』(한일출판사, 1961), 『지금 나의 窓에는』(범우사, 1986), 『비를 뿌리려거든』(오상사, 1990), 『北上하는 봄』(시문학, 1995)등이 있다.

정신이 인상적이다.

나는 땅이다.
길게 누워 있는 빈 땅이다
누가 내 가슴을 갈아엎는가?
누가 내 가슴에 말뚝을 박는가?
아픔을 참으로
오늘도 나는 누워 있다.
수많은 손들이 더듬고 파헤치고
내 수줍은 새벽의 나체 위에
가만히 쓰러지는 사람
농부의 때 묻은 발바닥이
내 부끄런 가슴에 입을 맞춘다.
멋대로 사량해 버린 나의 육체
황토 빛 욕망의 새벽 우으로
수줍은 안개의 잠옷이 내리고
연한 잠 속에서
나의 씨앗은 새 순이 돋힌다.
철철 오줌을 갈기는 소리
곳곳에 새끼줄을 치는 소리
여기저기 구멍을 뚫고
새벽마다 연한 내 가슴에
욕망의 말뚝을 박는다.
상냥하게 비명을 지르는 새벽녘
내 아픔을 밟으며
누가 기침을 하는가.
5천년의 기나긴 오줌을 받아먹고
걸걸한 백성의 눈물을 받아먹고
슬픈 씨앗을 키워 온 가슴
누가 내 가슴에다 철조망을 치는가?
나를 사랑해다오. 길게 누워
황토빛 대낮 속으로 잠기는 앙상한 젖가슴 풀어헤치고

아름다운 주인의 손길 기다리는
내 상처받은 묵은 가슴 위에
빛나는 희망의 씨앗을 심어다오!
짚신이 밟고 간 다음에도
고무신이 밟고 간 다음에도
군화가 짓밟고 간 다음에도
탱크가 으렁으렁 이빨을 갈고 간 다음에도
나는 다시 땅이다 아픈 맨살이다.
철철 갈기는 오줌 소리 밑에서도
온갖 쓰레기 가래침 밑에서도
나는 다시 깨끗한 땅이다
아무도 손대지 못하는 아픔이다.
오늘 누가 이 땅에 빛깔을 칠하는가?
오늘 누가 이 땅에 멋대로 線을 긋는가?
아무리 밟아도 소리하지 않는
갈라지고 때묻은 발바닥 밑에서
한줄기 아픔을 키우는 땅
어진 백성의 똥을 받아먹고
뚝뚝 떨어지는 진한 피를 받아먹고
더욱 기름진 역사의 발바닥 밑에서
땅은 뜨겁게 울고 있다.

<땅의 戀歌> - 전문, 문병란[87]

농촌현실을 구조적 모순으로 빚어진 것으로 보고 농촌 소외정책을 질타하고 있다.

문병란은 <땅의 연가>에서 농촌은 땅이 생산하고 수확하는 삶의 풍요가 아니라 역사 속에 존재하는 비극적인 삶의 터전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래서 남도민으로 표상되는 농민의 삶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준다. 그의 대표적인 시라고

87) 문병란(1935~)은 화순 출생. 1963년에『현대문학』에 시 <가로수> 등이 추천되어 문단에 등단. 전남문학상과 요산문학상, 광주시문화상, 대한민국 르네상스향토문학상, 조대문학상, 금호문화상 등을 수상. 시집은『문병란 시집』,『정당성』,『죽순밭에서』,『호롱불의 역사』,『벼들의 속삭임』,『땅의 연가』,『동소산의 머슴새』,『아직은 슬퍼할 때가 아니다』,『무등산』등이 있다.

할 수 있는 <농민의 모습>이나 <땅의 연가>, <함평 고구마> 등은 산업시대 전남농촌현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유신권위정권에 의한 억압과 농촌 소외정책 속에서 살아야했던 전남농민들은 자기 권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의 시 <함평 고구마>는 바로 이러한 전남농민운동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전남에서 권익신장을 위한 농민운동이 시작되는 것은 1970년대 초반부터이다. 비록 대규모의 조직적인 운동은 아니었지만 당시 전남농민운동은 정부의 농정에 대한 저항이었다. 정부가 시행한 각종 강제정책이 농민저항의 발단이었다. 즉 농민들은 '통일벼'로 대표되는 강제경작과 새마을사업의 강제집행, 농산물 검사의 부정, 경지정리 부실공사, 을류 농지세의 부당과세 등, 이 같은 관료주의적 횡포에 맞서 싸웠다. 또한 농협에 대한 민주화운동은 농민운동의 중심적 과제였다. 농사일이 고된 만큼 그에 따르는 소득이 없는 농촌에서는 젊은이들이 '고속버스를 타 버린'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농산물 가격의 폭락과 이농으로 '우거지 쌍통의 고구마만 남았'고, '오물오물 이 빠진 할머니만 남아' 있는 전남농촌의 공동화현상을 이 시는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다.

문병란의 시가 리얼리즘을 성취하고 있는 이유는 이렇듯 광주 · 전남의 농촌현실을 구조적 모순에서 빚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는 데에 있다. 뿐만 아니라 <전라도 소>와 같은 경우는 농촌이 봉건적 역사의 현장에서부터 질곡의 한 가운데 위치해 있었음을 묘사하고 있으며, <보리이야기>는 이러한 억압 가운데에서도, 즉 모진 추위에서도 죽지 않고 되살아나는 농민의 삶이 지니는 터전을 형상화하였다. 문병란의 이러한 시들은 농경사회의 특징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전라도를 배경으로 폭넓은 역사·현실인식을 보여준다.

사실 문병란의 초기에 작품 경향은 생활감정의 승화와 서정을 노래했고 존재정신의 내면탐구를 언어화했다. 이 같은 경향은 대체로 1974년까지 이어지고 75년에 발표한 <사기꾼들>에서부터 한 시대를 증언하며 슬프고 고달픈 삶 중에도 꿋꿋이 일어서는 낙천적인 광주 · 전남인의 중충을 노래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 1960년대 등단한 시인들의 시세계를 보면 토착적 정서와 서정을 제재로 하여 일상에서 일어난 일을 서술시의 형태로 보여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남도 시인들의 시에는 변방의 삶에 대한 비극적 정서와 유년

의 자연을 통해 자연스럽게 융화되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다. 게다가 4·19와 5·16 혁명을 체험한 세대로서 문학의 현실 참여라는 참여시 계열의 새로운 경향의 시가 나타난 점도 두드러진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제 2 절 1970년대 등단한 시인들의 시 세계

1970년대는 두 가지의 커다란 조건이 지배하고 있었다. 그 하나는 정치적으로 소위 유신독재정권 아래 있었다는 점이요, 다른 하나는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성숙 단계에 이르러 서구의 산업사회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노정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자연히 민주시민사회를 건설하려는 민주의 정치의식이 고양될 수밖에 없었다. 이와 더불어 산업사회에서 기인하는 인간소외와 물신적 가치관 그리고 노동문제도 야기되기 시작했다. 이 지역의 사회현상도 이점에서는 거의 중앙문단을 따라가고 있었다.

"1970년대의 사회시들은 1960년대 소위 '참여시' 보다 더 투쟁적이 되었다. 1960년대의 참여시들은 이 시기에 들어 리얼리즘에 입각한 새로운 이론 정립과 함께 유신독재정권과 대항해서 한층 격렬한 투쟁의 시, 즉 '민중시' 운동을 전개했다. 이 운동의 주도자는 1960년대에 등장한 이성부, 조태일, 김지하 등이었고 그 외 1970년대의 시인으로 고정희, 이시영 등이 이에 가담했다.[88)]"

1970년도부터 79년까지 등단한 출신 시인들을 연도 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70년도 진헌성, 양성우, 노향림, 1971년도 김종, 국효문, 1972년도 전원범, 조영희, 1973년도 노창수, 허형만, 박주관, 최정웅, 오명규, 김승희, 김창완 등이 있다. 1974년도 장효문, 김남주, 1975년도 윤재걸, 송수권, 고정희, 1976년도 백추자, 1977년도 최재환, 1978년도 최일환, 박순범, 황청원 등이 등단을 하여 60년대 출신들과 함께 의기투합하여 많은 시들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시대적으로는 민중시와 사회참여시 등에 편승하여 활동한 시인들이 대거 늘어났다. 상당히 투쟁적이라 할 수 있다.

1970년대에 등단한 시인들의 시 세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

88) 오세영, 『우상의 눈물』, (문학동네, 2005), p.311.

노창수시인의 시를 살펴보면

그 모두가 찍어야 했다.
걸어가면
위대한 우리의 영토
도시의 처참한 문명 위에서
또는 무논의 서러운 황토위에서
아 불타는 사막 중동 땅에서
자랑스런 민족들을
젊은 흔적을
지울 수 없이 찍어야 했다.
묵묵히 적어 놓은
숙명의 언어로
힘들여 자꾸 쓴
한 페이지 역사를 밟고
그대 퍼런 문신으로 빛나
이제는 꽃잎에 진
생명 하날
딛어서
딛어서 피워 올릴 차례다.

<발 · 1> - 전문, 노창수[89]

위의 시는 전진하는 실체로서의 발의 이미지를 표출하고 있다. 노창수의 시적 경향은 인간의 절망과 고독, 그리고 이를 둘러싼 상황적 어둠을 인간적 시선으로 들추어 애정으로 교감시키는 전통 서정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노창수의 시에서 빛과 어둠의 향연은 더 이상 단순한 상황적인 진술이나 소통을 위한 제스처가 아니라 오히려 대상과의 설명할 수 없는 교감을 지시하는 일종의 무언극이다.

89) 노창수(1948.12.12~)는 전남 함평군 출생. 1973년 <현대시학>에 시 추천으로 등단. 시집으로 <거울기억제>(예원, 90)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 『소월시에서 恨에 이르는 시의식의 변화』,『시 교재 수업 연구』,『한국 현대시의 화자 연구』등이 있다.

노래해도, 노래해도
채워지지 않는
반쯤의 달이
둥실 떠 있다.
은빛 반쪽과
비어 있는
반쯤의 虛寂
비어있는
반쯤의 깊이를
채울 넓이가
우리에겐 영
마련되지 않는다.
사랑의 모습
또한 그러하여
오는 날도 그 다음 날도
채워지지 못하는
은빛 여백을 체념한다.
그것은
안개 속에 몇 날을 남기고
돌아오는 자들의
영원한 숙제이다.

<돌아오는 길> - 전문, 백추자[90]

위의 시는 채울 수 없는 현대인의 공허한 내면의 심리를 담아내고 있다. 백추자의 작품의 경향은 담백한 표현과 견고한 내용으로 관조하는 시선이 비교적 성숙미를 보여준다. 백추자 시의 언어는 관조적 관점에 있다. 이것은 시를 지탱한 최초의 힘이었다. 일반적이고 표피적인 두름이 아닌 내재적 수용(收用)의 차이가 분명 존재했다는 것이다. 또 사상(事象)에 대해 이름 붙이기를 조급히 하지 않는 그 나름의 여유와 평형감(平衡感)으로 단조로운 율조와 만만찮은

90) 백추자(1947.5.28~)는 해남군 출생. 1976년 <시문학>에 <산그늘에서>, <돌아오는 길>, <산방(山房)>, <상황>등이 천료되어 등단. 시집으로 『서른 살』(시문학, 1982)이 있다.

침잠, 믿을 만한 정서안정을 바탕을 하고 있다.

따끈한 커피 한 잔을 받쳐 들고
내 곁에 다가 와
서는 여자
문밖을 서성이다 돌아와서
삶의 빈터에 잎을 펴는 꽃.
손톱에 물들이듯
꽃이 필 때는 나도
꽃으로 살고 싶었다.
너는 분홍으로 흔들리는 꽃
나는 푸르게 떨리는 잎
사랑은 흔들리는 잎이다
가만히 열리는 꽃이다
숨을 죽이는 것이요, 경련하는 것이다.
까아만 꽃씨를 받아 쥔 채
마음 한 구석에
피어 있는 꽃.
돌아앉아 구름을 보던 여자여
지금은 어디서
꽃잎을 접고 있는가.
왔다가 떠나던 발자국 눈물로 받쳐 든 그리움이 끝에서
몇 개의 빛깔로 피다가 와서
가슴에 무너지는 꽃이여.

<봉숭아 日記> - 전문, 전원범[91]

91) 전원범(호 友松, 1944.5.6~)은 전북 고창군 출생. 1972년 전남일보 신춘문예에 동시 당선, 1973년 『月刊文學』 신인상 동시 당선, 1975년 중앙일보 중앙문예에 동시 당선, 1978년 전국민족시 백일장에 시조 장원, 『시조문학』에 시조 천료, 1981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시조 당선, 1981년 『시문학』에 시 <몸살>, <여인의 손>, <팽이를 돌리며>가 천료되었다. 1981년 현대아동문학상, 1989년 현산문화상(문학부문), 1990년 광주문학상, 1992년 방정환 문학상, 1993년 동백문화예술상(문학부문 본상), 1995년 광주시민 대상(예술부문), 1995년 한국시조 작품상 등을 수상하였다. 시집으로는 『젊은 現在完了』(전남대출판부, 1968), 『달개비꽃』(교음사, 1982), 『밤을 건너며』(시간과공간사, 1989),『이 걸음으로 어디까지나』(시간과 공간사, 1990), 동시집으로 『빛이 내리는 소리』(아동문예사, 1976),『종이꽃의 기도』(교학사),『꽃들의 이야기』(규장각, 1992), 연구저서로 『아동언어지도』(문성출판사, 1984),『한국전래동요연구』(바들산, 1995) 등이 있다.

위의 시는 봉숭아를 제재로 하여 보배롭게 감추어 놓았던 내면의 심상을 줄줄 쏟아내고 있다. 전원범은 동시와 시조문학에서 익힌 시적 수련으로 抒情性에 바탕하여 詩語의 정확한 표현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점차 역사의식에 대한 관심과 삶의 아픔과 허망함에 대해 추적해 나가고 있다. 근래에는 순수서정의 시로서 존재와 그리움의 시적 형상화와 일상적 삶의 고통과 슬픔의 형상화, 그리고 암담한 역사시대의 정치적 격변과 시대적 상황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제는 더 내려갈 곳이 없다
위로는 평양이나 신의주
두만강 철교까지도 달릴 수 있지만
아래로는 더 갈 곳이 없어
열차 시각표에는 항상
하행선은 없고 상행선만 씌여 있다.
언제부턴가 木浦 사람의 고운 목이
몇 센티쯤 유난히 길어 보이고
위로만 위로만 올려다보는 눈빛이 밝아
유달산 번득이는 정기로만 알았더니
웃녘으로 웃녘으로 오르는
철길 때문임을 뒤늦게야 눈치 챘다.

<木浦驛> - 전문, 허형만[92]

위의 시는 우리나라 서남단의 항구도시 이자 하행선이 없는 목포역을 제재로 하여 남도인의 짙은 향토애를 담아내고 있다. 허형만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삶의 공동체를 위한 현실인식과 투철한 역사의식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끈끈한 사랑의 시어로 드러난다. 예리한 선비정신을 통한 삶에 대한 근원적 투시와 끊

92) 허형만(1945.10.26~)은 순천 출생. 1973년 『월간문학』 입선, 1978년에는 『아동문예』 7월호 <나무와 나무잎·겨울이야기>로 동시가 천료되어 등단하였다. 편운문학상, 소파문학상, 평화문학상 등을 수상. 시집으로는 『청명』(평민사, 1978), 『풀잎이 하나님에게』(영언문화사, 1984), 『모기장을 걷는다』(오상출판사, 1985), 『입맞추기』(전예원, 1987), 『풀무치는 무기가 없다』(책만드는집, 1995) 등이 있다. 이외에도 평론집 『시와 역사인식』, 『우리 시와 종교사상』과 수필집 『오매, 달이 뜨는 구나』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임없는 생명의식, 남도의 짙은 향토성은 그의 특출한 시정신이다. 삶의 공동체적 투철한 역사의식을 인간세계에 대한 끈끈한 사랑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그의 시는 삶에 대한 근원적 투시와 끊임없는 생명의식 그리도 남도의 짙은 향토성을 바탕에 깔고 있다. 근년에는 이 땅의 사회현실에 관심을 기울여 분단극복 내지는 통일지향성을 형상화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식은 자의 가슴에 불을 넣는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불을 넣는다
귀 멀고 눈먼 자에게도 불을 넣는다
아아 무등산 고여도 넘치지 않는 바다
아아 무등산 죽음의 허리에서 눈뜨는 불씨
아아 무등산 끝끝내 끝까지 가득하던 산
강추위와 찔찔거리는 눈물과 쩨쩨한 목숨과
닫힌 방과 얼어붙은 감탄사와 쓸갯물까지
새벽에서 밤중까지 흘러내리지 않게 쓸어안고
흙 아닌 자 흙으로
인간 아닌 자 인간으로
모두모두 앉은뱅이에서 일으켜 세우며
크고 무서운 하늘의 말씀으로 굽어보고 있나니,

<무 등 산> - 전문, 김종[93]

위의 시는 남도인의 정신적 지주인 무등산을 제재로 하여 포용과 소생의 무한한 경지를 열고 있다. 김종의 작품경향은 인간과 사랑정신의 회복을 일관된 주제로 표출하고 있다. 사랑정신의 회복은 대지 정신이나 고향정신의 회복일 수도 있고 현실 대응의 길항일 수도 있다. 따라서 그의 시에서는 거의 언제나 사회적 역사적 관심을 근간으로 삼는 차분한 어조와 분별 있는 시각들이 서정

93) 김종(1948.5.19~)은 전남 나주에서 출생. 1966년 월간 『문학시대』에 시가 추천되었으며, 1971년 시조로 제8회 『월간문학』 신인상, 그리고 『시조문학』 등에 추천되었으나 1976년 중앙일보에 시 <장미원>이 당선되면서 본격적으로 활동하였다. 시집은 『장미원』(1977), 『밑불』(1981), 『우리가 정말로 살아 있다는 것은』(1994), 『춘향이가 늙어서 월매가 되느니』(1995) 등 7권이 있고, 저서에 『우리시와 종교사상』, 『식민지 시대의 시인 연구』, 『삼별초, 그 황홀한 왕국을 찾아서』 등과 역서에 『한밤의 소년』등이 있다.

적 아름다움으로 숨 쉬고 있으며, 농촌의 와해와 농민의 소외에 대해 연민의 눈길을 보내면서도 그에 못지 않는 농촌의 맑은 환경과 농민정신의 건강함 등이 그려지고 있다.

남광주의 아침은 아욱 냄새가 난다.
시장바닥에 앉은 아이 업은 아낙의 풍경은
멀리서 바라보면 용서를 빌고 싶지만
가까이서 눈뜨고 보라 그것은 눈물이다
건널목에서 여자 몇이서 깔깔거리고 있다
가누는 쌍것들이라 욕해대고
공중목욕탕에 가는 꼬마들도 헤헤거린다.
중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
다리에 털 많은 쌀집 아저씨는
아들놈의 예비군복을 입고 있다
댓가지가 꽂혀 있는 곳으로
다리지도 못한 옷을 입고
부인네 둘이서 쌀 몇 되와 몇 푼을 가져간다.
어젯밤엔 밤하늘에 외상으로 악을 쓰고
바락 바락 노래 부르기도 한 여자들과
오늘 아침 화순 방면에서 온
아낙들의 눈물이 남광주의 설움이다
움직이지 않은 장면들이
진보되지 않은 사실들이
뙤약볕 아래서 종일 계속되고
물건 파는 사내의 악다귀만이
방금 도착한 여수발 열차에 실려 내려간다.
광주의 남쪽 변두리는
우리가 가벼운 마음으로 떠났다가
무작정 내려버리는 어떤 읍내의 풍경 그대로다
남광주의 저녁은 누룩 냄새가 난다
삼교대에 들어가는 계집애가 촐랑촐랑 뛰어가고

거대한 산
무등이 지배하는 밤은 계속된다.

<南光州> - 전문, 박주관[94]

위의 시는 온갖 물산이 모여드는 남광주역을 제재로 하여 남광주의 풍정을 담아내고 있다. 박주관의 작품경향은 자기가 낳고 자란 고향에 대한 애정을 중심으로 하여 과거에 만났던 사람들의 현재와 미래를 애정의 눈으로 바라본다. 함께 살아온 이들의 따스한 이야기를 형상화 하고 있다.

이른 새벽
안개 자욱한 바닷가에
갈매기 떼 날아 온다
하얀 날개로
먹빛 어둠을 닦아 내고
금빛 부리로
짙은 안개를 벗겨 낸다
갈매기의 맑은 눈빛
갈매기의 날개소리
갈매기의 울음소리
새벽 바다를 출렁이게 한다.
날아라.
수평선 끝까지
새벽 바다 갈매기여.

<갈매기의 노래> - 전문, 최정웅[95]

위의 시는 평이한 서정의 언어로 새벽바다 갈매기를 노래하고 있다. 최정웅은 주로 바다, 섬과 관련된 평화스럽고 희망적이며 신비한 바다에 대한 동경과

94) 박주관(1953.1.18~)은 광주 출생으로 호는 우황(又皇) 1973년 『풀과 별』에 <젖어서 사는 의미(意味)>등이 천료되어 등단. 매천황현문학상을 수상. 시집에는 『남광주』(청사출판사, 1985), 『몇사람이 없어도』(청하출판사, 1986)가 있으며, 『5월시』 동인으로 활동하였다.

95) 최정웅(1939.11.25~)은 중국 만주 출생. 1973년 전남일보 신춘문예에 시 <억새의 노래>가 당선되어 등단. 시집으로 『억새의 노래』(1977),『어부의 노래』(1981),『갈매기의 노래』 등 있다

인간의 큰 포부를 담담한 분위기로 형상화 하고 있다.

잔디밭에 앉아서
나무들을 바라보노라면
반백년이 넘도록
두발을 땅 속에 묻고 서서
햇살로 살아가는 삼식이 진형이
준구들의 얼굴이 보인다.
이들은 구름처럼 살다가 이곳에 내려와
공원을 만드는 일꾼이 되어
이름 모를 섬들을 찾아다니며
산길이나 들길을 기어오르며
어깨에 바위와 흙을 실어나르며
옆구리에 칼을 차고 채찍을 내려치는
곶감보다 무서운
와까모도[96]의 일군이 되어
으야 으야 으야차
한 발 들고 걸어가세
으야 으야 으야차
두 발 들어 걸어가세
으야 으야 으야차
허리 펴고 다리 펴고
으야 으야 으야차
어서 빨리 걸어가세
채찍은 춤을 추듯 너울거리고
앞서 가던 목도꾼이 쓰러지고
쓰러진 시신을 밟고 넘어서
앞으로만 가는 목도리꾼이었다.
잔디밭에 앉아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을 바로 보노라면
공원에 잔디가 입혀질 때쯤

96) 일제시대 공원 조성의 총 지휘자로 나병환자를 참혹하게 짓밟던 책임자

목도꾼인 삼식이 진형이 준구들은
나무의 뿌리 밑에 편안히 누워서
나무로 살아가는 전설이 되었다.

<소록도 · 8> - 전문, 장효문[97]

위의 시는 향토를 소재로 한 연작시 <소록도>의 한 편으로 소록도에 얽힌 애환을 담아내고 있다. 장효문은 향토색 짙은 작품과 강한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역사에지지 않고 역사를 버티며 역사를 이겨내 감으로써 민중과 민족의 정서를 회복해 내는데 관심을 쏟고 있다.

거울 앞에 서면
다음에 있을 나의 演技가 생각되어
몸을 떤다.
느린 동작으로도 다시 볼 수 없는
지난날이
墓地처럼 살갗에 자리하고
이미 굳어버린 표정으로
다시 나의 연기가 시작될 때
하늘과 땅 사이는 가장 가까운 거리
무딘 삶을
저울질하며 살다보면
흔들리는 불빛이
밤마다 제 그림잘 닮아
키를 키우고
방금 下水口에서 빠져나온
太陽이
옷깃의 汚物을 턴다.

97) 장효문(호 靑羅, 1941.10.29~)은 고흥군 출생. 1974년 『시문학』에 <화실과 새>, <瑁汰>, <권력>이 천료되어 등단. 전라남도 문화상(1982), 천도교 중아협의회 문학공로상(1983) 등을 수상. 대표시 <張承業傳· 전봉준· 유서>, 시집 『들쥐떼의 울음』(한국문학, 1975), 『서사시 전봉준』(전예원, 1982), 『아버지 저기 무지개가 보입니다』(동천사, 1985), 『神의 눈물』(청사, 1985) 등이 있다.

언제쯤 돌아가려는가.
창을 열면
물소리에 묻어오는
나의 鄕愁.
길을 재촉하던 어제보다
아직은 더운 피가 흐르는
꽃잎으로 돌아가
밤마다 흐느낌을 彈奏하고
한 줌 흙으로 바람에 날리는
부끄럼 없는 가장 귀한 날을 가려
幕을 올린다.

<表具 속의 얼굴> - 전문, 최재환[98]

위의 시는 삶에 대한 성찰이 진지하게 응축되어 내면의 소재로 울림을 주고 있다. 최재환의 작품 경향은 현실적인 흐름보다는 우리 고유의 전통성과 현실을 교감시켜 그 속에서 언어의 아름다움을 창출해 내려는 시풍과 쉬운 언어구사로 예리하게 대상을 꿰뚫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지난 엿새 동안 시계추처럼
빌딩 숲 사이 왔다갔다하다가
오- 오늘 일요일에
내 고향 친구 鍾南이 만났네
나이 쉰이 되도록
남의 집에서만 농사 짓는
鍾南의 흙 묻은 손 덥썩 잡네
풀냄새 짙은 어릴 적 그 언덕에서
내 얘기 줄줄줄 풀려 나오고
내 노래 저절로 목이 메고

98) 최재환(1942.3.5~)은 신안군 출생. 1977년 『시문학』에 <박꽃>, <그림자>, <표구속의 얼굴>, <아침>등이 당선되어 등단. 시집으로는 『표구 속의 얼굴』(시문학, 1977),『종이비행기』(교학사, 1980),『꿈속에서 들은 자장가』(세종출판사, 1982),『가슴으로 쓰는 시』(시문학, 1986) 등이 있다.

아—어쩐 일일까
뜨거운 내 눈물 한 방울
鍾南이 베잠방이에
이슬처럼 맺히네
두 눈망울 소 눈처럼
끔벅 끔벅 거리며
떨리는 내 가슴으로
어릴 적 그 저녁놀을
곱게 곱게 담아준 친구
지난 엿새 동안 잊었던
내 시골 하나님 만나듯
오— 오늘 일요일에
일자무식 무일푼의 친구 만났네

<일요일에> - 전문, 최일환[99]

위의 시는 고향친구 종남이와의 만남을 통해 따뜻한 인간애를 풍겨주고 있다. 최일환은 고향을 잃고 사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오인하고 사는 많은 현대인의 의식 속에 들어가 흙냄새, 갯냄새를 풀어 깔아주고자 한다. 그의 시는 농촌문학을 부르짖기 이전에 인간의 근원적인 휴머니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나는 삼백 예쉰 날
한번만 고향(故鄕)에 간다.
오늘은 포천(抱川) 산소에서 돌아와 고가도로(高架道路)에
걸린 서울 골목길 달빛 밟으며,
동심(童心)이 된 고향(故鄕)의 나를 본다.
형(兄)과 나는 손을 잡고
십리길 큰아버지 집에

99) 최일환(1939.2.8~2003)은 해남군 출생. 1978년 『시문학』에 <깨꽃>, <선창에서>발표하여 문단 활동. 시집으로는 『부뭇골 뜸북새』(세종출판사, 1982), 『갯마을 노래』(시문학, 1985), 『남쪽 항구에서』(청하, 1987) 등이 있다.

암탉 한 마리 들고,
술 한 병 들고 가는 길에는
푸짐한 한가윗달 하나 형(兄)의 가슴에도
내 가슴에도 안겨져 있었다.
벼 이삭이 휘어지게 익은 들판에도
한가위의 달빛은 얹혀 있었고,
큰어머니가 손에 쥐어준 빨간 능금에도
한가위 달은 뜨는 듯했다.
오늘은 서울 달빛 밟으며,
어린 시절(詩節)이 그리운
들에 핀 들국화며 갈대꽃이며
외롭게 달빛이 된 포천(抱川)의 산소를 생각한다.
둥근 한가위 달 아래 고향(故鄕)이 된
나를 본다.

<한가위 달빛 밟으며> - 전문, 박순범[100]

위의 시는 한가위 달빛에 어린 유년에의 추억으로 동심의 고향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 박순범은 '시란 한 시대의 인식이며, 공간적 향토성의 토양 위에 피어난 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이 향기 있는 '꽃은 이웃들의 꽃이요, 한 마을 사람들을 위한 꽃이어야 하고, 그 꽃의 의미는 토속적 향토성과 취향에 어울리는 우리의 것이어야 하며, 한국적 지방색을 지닌 특유의 정서적 꽃의 향기를 지닌 것이어야 한다.'면서 광주 · 전남이 고향이 아님에도 광주 · 전남의 향토색 짙은 시를 썼다.

님이시여
- 계백의 이야기 · I
내 안에서는

100) 박순범(1930.12.16~1997)은 황해도 출생. 호는 아산(雅山)이다. 1978년 월간 『아동문예』에 <봄의 소리>, <구름을 쓰는 아이들>이 천료되어 등단. 1983년 남농(南農)예술문화상, 1986년 송암(松岩)창작대상(출판부문), 1987년 전라남도 문학상을 수상. 대표 시에 <창문의 서정>, <그림자>등이 있고, 시집으로는 『세월』(세종출판사, 1979)이 있다.

비릿한 꽃이었습니다.
내 안에서는
언제나 아기였습니다.
내안에서는
의연한 연인이었습니다.
내 안에서는
검은 흙의 조국이었습니다.
내 안에서는
무량한 우주였습니다.
님이시여
님이시여
빛의 기둥이 되어 빛이 되게 하시는
맑은 빛살이시여
말로는 다 못할 눈부심이여
내 안에서는
억겁을 잠들었다가 억겁을 깨어나 계시는
뼈저린 진실이었습니다.
아아, 님이시여
크신 님이여.

<님이시여> - 전문, 국효문[101]

위의 시는 『계백의 이야기·Ⅰ』에서 내안을 채우는 대상을 향한 경건한 신앙의 자세로서 힘찬 목소리를 발하고 있다. <님이시여>로부터 <계백 유서>에 이르기까지 15편의 연작으로 되어 있는『계백의 이야기』는 서사적 골격을 유지하면서 한 편 한 편의 작품에서 역사적 사건을 오늘의 우리 상황에 이어주는 일관된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시인은 계백이라는 백제의 장군을 백제의 영웅 내지는 전라도만의 영웅으로 미화시키는 것을 거부한다. 오히려

101) 국효문(1949.7.19~)은 전남 담양 출생. 1971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起工>이 당선되어 등단. 제7회 '한· 중 작가상' 본상과 제1회 '광주문학상'을 수상. 대표 시로는 <기공>, <바람>, <님이시여>등이 있으며, 시집으로는『홍적기의 새』(현대시학사, 1979), 『님이시여』(현대문학, 1988), 『바람』(남풍, 1986)이 있다.

백제와 신라의 전쟁을 통하여 아프게 드러나는 우리 역사의 상흔을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하나의 민족사에 융합되어야 할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는 것이다. 계백은 이 시인에게 내면의 님이시며, 누군가 그어놓은 땅금에 희생되는 속죄양으로 관창을 이해하며, 계백의 퍼스나를 빌어 관창의 넋을 위무하면서 보다 넓은 사랑과 화해를 위해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정신적 자세를 형상화하고자 노력한다. 그러한 정신적 지표로 드러나는 계백은 이 시인의 절대적 지주이며 사랑의 대상으로 드러나게 됨은 오히려 당연하다. '내 안에서는/비릿한 꽃'이었고 '의연한 연인'이었고 '검은 흙의 조국'이었던 계백을 국효문은 '억겁을 잠들었다가 억겁을 깨어나 계시는/뼈저린 진실'로 파악하는 것이다(<님이시여>). 이 연작에서 계백은 '네번째 전쟁에도 이기고/이제는 이겨야 할 어떤 자도/더 이상 달려들 수 없는/단단한 무쇠칼'로 영웅화되면서(<승리>)동시에 신라의 어린 영웅관창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비극적 연민과 인간애를 지닌 인물로 형상화된다. 그러나 국효문은 결코 계백의 영웅적 전투나 백제의 억울한 멸망을 노래하기 위해서 이 시편들을 쓰고 있지는 않다. 그것은 '이 땅금은 누가 그었기에/어린 네가 속죄양이 되는 것이냐./네 더운 피는 이 땅에 뿌려져/언젠가 이 땅금을 지울것이다'(<관창에게>)라는 계백의 절규에서 볼 수 있듯이 분단된 역사의 한을 전신으로 끌어안고 연민에 잠기는 우리시대의 삶을 자각시키기 위해서 차용된 객관적 상관물일 뿐이다. 이러한 시인의 정신은 국토분단의 아픔을 (혹은 그 축소판인 지역감정의 더러움을)우직 사랑으로써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절규하고 있다.

누이야
가을山 그리메에 빠진 눈썹 두어 날을
지금도 살아서 보는가
정정(淨淨)한 눈물 돌로 눌러 죽이고
그 눈물 끝을 따라가면

즈믄 밤의 江이 일어서던 것을
그 강물 깊이깊이 가라앉은 고뇌의 말씀들
돌로 살아서 반짝여 오던 것을 더러는 물 속에서 튀는 물고기 같이
살아 오던 것을
그리고 산다화(山茶花) 한 가지 꺾어 스스럼없이
건네이던 것을
누이야 지금도 살아서 보는가
가을山 그리메에 빠져 떠돌던, 그 눈썹 두어 날을 기러기가
강물에 부리고 가능 것을
내 한 잔(盞)은 마시고 한 잔은 비워 두고
더러는 잎새에 살아서 튀는 물방울 같이
그렇게 만나는 것을
누이야 아는가
가을山 그리메에 빠져 떠돌던
눈썹 두어 날이
지금 이 못물 속에 비쳐 옴을

<山門에 기대어> - 전문, 송수권[102]

위의 시는 누이를 통한 피맺힌 그리움을 눈썹이라는 구체적 비유를 통해 말하고 있다. 눈썹은 인간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존재이다. 그러나 눈썹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린다면 어떻겠는가. 바로 시인 곁에 있어야 할 누이가 없음을 알고 참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송수권의 작품 경향은 종래의 서정시가 생(生)의 에너지를 상실하게 하고 자기 탐닉의 도구로 떨어진(김우창)데 반해, 남도의 서정(抒情)과 질긴 남성적 가락으로 부정적 허무주의를 극복하고 역동적 경지를 보여준다.

송수권의 시를 일관되게 뒷받침하고 있는 정신적 지주는 고향에 대한 깊은

102) 송수권(1940.3.15~)은 고흥군 출생. 호는 평전(平田)이다. 1975년 문학상에 <산문(山門)에 기대어> 외 4편이 당선되어 등단. 장편 서사시 <동학란>으로 문교부장관상(1975), 금호실업 금호문화재다 예술상(1985)을 수상했다. 시집 『산문에 기대어』(문학상사, 1980), 『꿈꾸는 섬』(문학과 지성사, 1983), 『분단시선집』(남풍, 1984), 『다시 산문에 기대어』(1985), 『아도(啞陶)』(창작과 비평사, 1985)를 상재하였다. 그 밖에 자선집(自選集) 33편 『우리나라 풀이름 외기』(문학상사, 1987)와 장시집(長詩集),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나남, 1987)가 있다.

사랑이며, 그의 시에는 향수가 정서적 기조를 이룬다고 말한다. 그리고 향수의 대상인 고향은 '지금 여기'에 있는 실제적인 삶의 현장이 아니라, 어린 시절의 추억으로 아름답게 물들여진 회상의 공간이라고 한다.[103]

그의 초기 시의 대부분이 유년의 체험과 결부되어 있다. 그 체험은 고향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고향의 삶과 정서를 풀어내고 있다는 사실은 그의 시의 바탕에 상실의 비애가 깔려있음을 의미하며, 되돌릴 수 없는 삶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해 시인은 온전했던 삶에 대한 꿈꾸기를 계속한다고 논하고 있다.[104] 그의 원초적 삶의 모습은 고향에 있다. 직선화된 도시의 삶에 살다보면 어슴푸레 떠오르는 유년의 고향을 그리워하게 되며, 그는 현재의 일상에서도 언제나 고향의 정서와 가락을 잃지 않으려 하고 있다.

전라도의 면면한 정서를 작품 속에서 재구성하고자하는 것은 바로 그가 한국민족의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 한(恨)에 대해서 묘사하려 했다고 본다. 그는 김소월로 대표되는 우리 시의 한 주류에 이어져 있지만 그의 시는 김소월류의 애상적 체념과 영탄의 노래가 아니라, 자연과 인간에 대한 지극한 애정을 바탕으로 한 불과 물의 남성적인 한의 순정성을 지니고 있다.

송수권의 시는 "순수한 서정시를 대표하면서도 가장 보편적인 민중의식과 민중적 운율체계인 民謠의 전승, 그리고 恨이 주조를 이루고 있는 역설적인 힘들을 강조하면서 왕성한 시작을 하고 있다"고 조망하면서 그러나, "송수권의 시는 한국인의 공통적인 정감대인 恨을 읊되 나약한 눈물로서가 아니라 토속적이면서 깊숙한 힘을 지니고 있고, 순수시를 읊되 프로파간다로서의 구호가 아니라 이 시대 한복판에서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南道의 서정을 읊되 지역적 보호막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단된 조국에 대한 공통의 재생 의지를 읊고 있다" 고 평하고 있다.[105]

송수권은 1980년 5월 광주민중항쟁 때는 시 <무등산은 알고 있다>를 발표하여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5월의 광주를 누구보다 안타까워하고 현실을 비판하

---

103) 이형기, "고향, 전통 그리고 조국-송수권론", 『문학 사상』 (문학사상사, 1991)
104) 신덕룡, "꿈꾸기 혹은 그리움의 미학", 『시와 사람』, (시와 사람사, 1997)
105) 이사라, "송수권 시의 기호학적 독해", 『서울산업대학교논문집』, 제29집, (1989. 7), pp.231-232.

는 시를 많이 썼다. 다만 당시 문화 · 예술계 전반에 전염병처럼 만연해 있던 강렬한 구호성이나 선동성, 정치성을 혐오하고, 당시의 역사적 현실을 배경으로 하되 순수한 서정성을 옹호했다는 것이 비난의 이유였다. 그는 이러한 순수 서정성을 바탕으로 누구보다도 현실적 폭력 앞에 무참히 무너지고 짓밟혔던 민중의 편에 서서 시를 썼다.[106]그의 시적 특징은 곰삭은 남도적 서정과 질기고 힘찬 남성적 가락에 있다. 종래의 서정시가 섬약한 여성주의적 취향 일변도인데 반해 그의 시는 허무주의나 여성주의를 넘어서는 남성적 순정성을 지니고 있다.

- 침묵에 대하여
다 평안하신지 잠잠한 오월
다 무고하신지 적막강산 오월
나 또한 단잠으로 살아른 오월에는
왜 이리 고향이 마음에 걸리는지
다북솔밭 어디서나 철쭉꽃 흐드기고
백운대 어디서나 산목련 어지러운 오월에는
서울이 왜 이리 거대한 침묵인지
서울이 왜 이리 조그만 술집인지
봄비에 젖어 눕는 수유리 숲에서는
나 또한 한 장의 한지로 젖어 누워
안익태의 코리안 판타지를 걸어 놓고
그것을 고향의 함성이라 이름한다
그것을 고향의 부름이라 이름한다
그것을 고향의 눈물이라 불러본다
그것을 고향의 이라 불러본다
뿌리 있는 것들만 성난 오월에는
뿌리 있는 것들만 꽃지는 오월에는
바람이 따다 버린 병든 이파리를 보며
그것을 우리의 말이라 이름한다
그것을 우리의 믿음이라 불러본다
그것을 우리의 사랑이라 불러본다

106) 염창권, “흔적 찾기와 흔적 되살리기”, 『비평문학』 제7집, (한국비평문학회, 1993)

그것을 우리의 침묵이라 불러본다
바람이 몰고 가는 푸른 가랑잎을 보며
그것을 서울의 꽃이라 불러본다
그것을 서울의 자유라 불러본다
그것을 서울의 뿌리라 불러본다
그것을 서울의 환상이라 불러본다
다 잠드셨는지 어두운 오월
다 행복하신지 문닫는 오월
병든 이파리처럼 말 없는 오월에는
푸른 가랑잎처럼 떠나가는 오월에는
왜 이리 고향이 갈 수 없는 땅인지.

<서울사람> - 전문, 고정희[107]

위의 시는 전통적인 남도가락을 빌어 민중의 고난과 그 고난 속에서 다져지는 저항의 힘을 노래하고 있다. 고정희는 힘찬 언어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성의 문제를 고발하고 비판함과 아울러 그 대안까지도 제시해 주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여성운동의 일선에서 활약하기도 했다. 고정희는 정말 시인다운 시인이었다. 평론가들은 하나같이 그녀의 시를 '날카로운 투시와 비판', '탄탄한 리듬과 힘찬 구성'이라고 극찬했다. 전라도의 질펀한 황토 흙에 4.19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같은 역사적 물줄기를 담기도 하고, 사랑 눈물 삶 같은 잔잔한 감동도 담아냈다. 고정희의 시세계는 기독교적 세계관의 지상실현을 꿈꾸는 희망찬 노래에서부터 민족민중문학에 대한 치열한 모색 그리고 여성해방을 지향하는 페미니즘 문학의 선구자적 작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적 탐구와 정열을 감싸 안는다. 그리고 그 모든 시에서 생명에의 강한 의지와 사랑이 넘쳐난다.

고정희의 이와 같은 치열한 역사의식과 탐구정신은 5. 18 광주항쟁을 대하는 그녀의 태도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즉 그녀는 전통적인 남도 가락과 씻김

107) 고정희(1948~1991)는 해남 출생. 1975년 『현대시학』에 시 <부활 그 이후>, <연가>가 추천되어 문단에 등단. 시집으로는 『누가 홀로 수틀을 밟고 있는가』, 『실락원의 기행』, 『이 시대의 아벨』(문학과 지성사, 1983), 『눈물꽃』(실천문학, 1986) 등이 있으며, 『지리산의 봄』(1987), 『저 무덤 위에 푸른 잔디』(1989), 『광주의 눈물비』(1990), 『여성 해방 출사표』(1990), 『아름다운 사람 하나』(1991) 등이 있다.

굿 형식을 빌어와 민중의 고난과 그 고난 속에서 다져지는 저항의 힘을 힘차게 노래하였던 것이다. 현실사회의 개혁과 더불어 새로운 글쓰기의 혁명은 이처럼 시 속에 나타난 여성억압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대안을 모색을 살피고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108] 또한 고정희의 시에 나타난 여성성, 그 중 어머니의 여성성을 억압의 상징이자 동시에 해방의 상징으로 의미를 부여하였다. 하지만 고정희의 경우 지나치게 가치로서의 어머니 혹은 여성성에 큰 비중을 두어서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이나 전략적인 차원에 비중을 두었으면 아쉬움이 있다.[109]

찔레꽃 흩어지게 희부연
달빛을 밟고
들뜬 걸음 숨이 차던
언덕 길.
옹달샘 물 찍어 튀기며
한 숨 돌리는 눈웃음 피우다가
맞닿는 숨결 여울지면
샘가의 보송한 작은 새집
이슬에 젖어 들고
잠 깨인 어린 새
먹이 찾는
여린 부리
열리던 밤.
가는 건지 오는 건지
아련한 시간을
가파르게 달리던 밤차의 기적소리
길게 사라진 한참에도
얼굴 가린 풋내기
말이 없었다.

108) 정효구, “고정희 시에 나타난 여성의식”, 『인문학지-춘망 곽동벽교수 정년 기념호』, 제17권, (충북대 인문학연구소, 1999)
109) 정효구, 위의 책, p.41.

차마 잊을리야
찔레꽃 피고지고
이제는 흔적 없는
옹달샘 언덕
아득한 옛날에 서서
풀잎 묻은 치맛자락 훑으며 가는
갈래머리 너를 본다.

<찔레꽃 필 때> - 전문, 진헌성[110]

위의 시는 찔레꽃을 통해서 자연과 인생과 사회적 관심을 분리하지 않고 동일시점에서 투사함으로써 시예술의 본질에 접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비인간적인 요소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진단하고 있다. 진헌성은 광주의 토반이요 개업의이다. 80년대 초 한국의 정치적 사회적 격변과 혼란의 와중에서도 광주는 태풍의 눈이었고, 역사의 험악한 비탈에서 굴러 떨어진 상처와 아픔이 망월동에 그대로 묻혀 있는 곳으로서, 광주의 한 시민이요 의사요 시인이었던 그의 정신적 충격과 시 변모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에 관심이 가기 때문이다.

그의 60년대, 70년대의 시가 서정적 자아의 세계를 이미지화하려는 데 주력했다고 한다면, 80년대의 시는 그러한 시와 인생과의 감성적 언어접목을 탈피하여 시와 역사성, 시와 정의감을 자각, 시인의 역사 · 사회성이 그 시대에 대응해야 한다고 하는 현실인식의 태도로 변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의 시는 나이에 비해 갈수록 젊고 힘이 솟고 진취적이며, 시혼이 시퍼렇게 살아서 번뜩이면서도 의사답게 그의 과학적 통찰력에 의해 역사현실의 모순이나 부조리, 비인간적 악의 요소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진단하고 있다.

진헌성의 시 특징을 갈래 짓는다면 첫째로 6,70년대의 시 특징은 인생과 시의 접목이다. 즉 이때의 시는 자연의 물성과 시인의 안목과의 조화, 시적 감성과 철학성을 통일시키고 있는 언어형상의 정확성, 그리고 시의 이미지화에 대

110) 진헌성(1932.12.19~)은 광주 출생. 1970년 『현대문학』에 시 <강바람>이 천료되어 문단에 데뷔. 시집으로 『조용한 화음』(2인 시집, 관동출판사, 1969), 『物性의 詩』(1989), 『공간의 시』(1992)가 있다.

한 미의식 등의 주조를 이루고 있다. 둘째로 80년대의 시 특징은 사회적 현실 상황에 대응한 비분강개와 저항정신이다. 5.18 광주항거라는 비극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는 시와 역사성, 시와 정의감을 자각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역사적 당시대적 현실인식이 무엇보다 절실해졌다. 연작시 <萬話時代>는 정치패권에 관련된 사회모순이나 불의를 해학과 알레고리로 풍자했고, <민원>은 행정관료의 권위주의적 민중억압을 삶의 현장체험으로 고발하고 야유했으며, <땅, 이 땅의 말들>과 <하늘의 뿌리>는 외래 종교를 낭비문화라고 비판, 우리 민족 고유의 자생적 정신문화를 통일원리로 받들어 인간화해의 비젼을 제시했다. 특히 지금까지 우리의 서정시가 지닌 소재주의적 한계성을 뛰어넘어 우주과학에 대한 관심을 전달하고, 종교의 절대권위에 대한 허구성을 지적하여 유물론적 인간회복을 主唱, 시의 과학정신 · 종교비판의 새 지평을 열었다.

시 특징은 시의 예술적 의미와 본질의 접근이다. 즉 시의 생명, 시의 영원성을 위해서라면 인생의 의미와 시의 예술적 상징성이 가장 긴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시를 자연적 각도와 인생적 각도와 사회적 각도로 각각 분리하지 않고 총체성을 띤 언어예술의 본질에 귀납시켰다. 이때의 연작장시 <구름>은 곧 자연 · 인생 · 사회의 다각적 관점에서 형상화한 시다.

그는 이처럼 시에 있어서 인생→현실→본질에 접근하려는 변증법적 시론을 전개, 오늘의 한국시 발전에 새 전기를 이루었다. 진헌성의 작품 경향은 1980년까지는 이미지 중심으로 서정성을 형상화하였으며, 이후에는 역사, 사회 특히 종교 관계에 대한 현실비판의식을 보여준다. 그는 종교 혹은 唯心文化 대신 物性에 관한 시적 사고를 통해서 유물문화의 과학적 신비세계를 추구한다.

여보게 우리들의 논과 밭이 눈을 뜨면서
뜨겁게 뜨겁게 숨쉬는 것을 보았는가
여보게 우리들의 논과 밭이 가라앉으며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부르면서
불끈불끈 주먹을 쥐고
으드득 으드득 이빨을 갈고 헛웃음을

껄껄걸 웃어대거나 웃다가 새하얗게
까무러쳐서 누군가의 발 밑에 까무러쳐서
한꺼번에 한꺼번에 죽어가는 것을
보았는가
총과 칼로 사납게 윽박지르고
논과 밭에 자라나는 우리들의 뜻을
군화발로 지근지근 짓밟아대고
밟아대며 조상들을 비웃어대는
지금은 겨울인가
한밤중인가
논과 밭이 얼어붙는 겨울 한때를
여보게 우리들은 우리들을
무엇으로 달래야 하는가
< 중 략 >
우리들의 슬픈 겨울을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일컫게 하고,
묶인 팔다리로 봄을 기다리며
한사코 온몸을 바둥거랴야
하지 않은가
여보게

<겨울 공화국> - 전문, 양성우[111]

'겨울'로 표상되는 민중과 권력자의 '화약 냄새', 얼마나 적절한 비유인가. '겨울'로 표상되는 민중은 이때의 체감 온도는 영하 40도는 되지 않았을까. 화약 냄새를 풍기는 자들을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언 땅에도 싱싱한 민주주의의 꽃은 피어나고 있다. 양성우는 민중적 정서를 밑바탕에 깔고 주로 리얼리즘의 영역 내에서 쉬르풍에 접근하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으며, 적극적인 사회 참여 의식이 팽배하다, 半島的 풍토 위에 뿌리박은 민족혼을 기반으

111) 양성우(1943.11.1~)는 함평군 출생. 1970년 『시인』지에 <發想法>, <證言>, <鑛物性 사랑>, <魂交之曲>등을 발표함으로써 문단에 등단. 1972년 첫시집 『발상법』 이후 『겨울공화국』, 『북치는 앉은뱅이』, 『청산이 소리쳐 부르거든』, 『그대의 하늘 길』 등의 시집을 발간했다.

로 현대사회의 이면에 응어리진 反知性, 反모럴의 요소를 파헤치는 고발문학의 경향을 띠고 있다.

만인의 머리 위에서 빛나는 별과도 같은 것
만인의 입으로 들어오는 공기와도 같은 것
누구의 것도 아니면서
만인의 만인의 만인의 가슴 위에 내리는
눈과도 햇살과도 같은 것
토지여
나는 심는다 살찐 그대 가슴 위에 언덕에
골짜기의 평화 능선 위에 나는 심는다
자유의 나무를
그러나 누가 키우랴 이 나무를
이 나무를 누가누가 와서 지켜주랴
신이 와서 신의 입김으로 키우랴
바람이 와서 키워주랴
누가 지키랴, 왕이 와서 왕의 군대가 와서 지켜주랴
부자가 와서 부자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 판검사가 와서 지켜주랴
천만에! 나는 놓는다
토지여, 토지 위에 사는 형제들이여
나는 놓는다 그대가 밟고 가는 모든 길 위에 나는 놓는다
바위로 험한 살길 위에
파도로 험산 사나운 뱃길 위에
고개 넘어 평지길 황토길 위에
사래 긴 밭의 이랑 위에 가르마 같은 논둑길 위에 나는 놓는다
나 또한 놓는다 그대가 만지는 모든 사물 위에
매일처럼 오르는 그대 밥상 위에
모래 위에 미끄러지는 입술 그대 입맞춤 위에
물결처럼 포개지는 그대 잠자리 위에
구석기의 돌 옛 무기 위에
파헤쳐 그대 가슴 위에 심장 위에 나는 놓는다
나의 칼 나의 피를

오, 자유여 자유의 나무여

<나의 칼 나의 피> - 전문, 김남주 [112]

위의 시는 풍자적이면서도 강렬한 언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주체로 승화시키고 있다. 김남주의 시는 투쟁적이다. 그러면서 주된 성과는 강렬한 풍자이다, 풍자는 그 시가 투쟁적이다 는 이유로 거부감이 들지는 않게 한다. 그것은 비일상적인 감정과 폭력적인 언어 사용이 오히려 일반인들에게 '일상의 혁명'으로서의 시적 인식을 경험하게 한다. 풍자적이면서도 강렬한 언어로 그는 자신의 시로 투쟁하였다. 시집 <나의 칼 나의 피> 서문에서 고은은 "남주의 시야말로 우리가 암송하고 낭송하여 우리 자신들의 비겁을 깨뜨리게 하는 사상과 정서의 무한 교직의 폭력이다"고 했다.

김남주는 '자기 발전하는 실체'를 발견하여 그것을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주체'로 승화시킨다. 그리고 이를 통해 '모든 변화와 변형의 주체-실체'[113]였다. '시인은 우선 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며 '자기 시대의 중대한 문제를 바르게 설정하고 바르게 해결하기 위해 변혁운동에 복무하는 해방 전사와 같은 사람'.[114] 이었다. "그렇다, 농부들은 본능적으로 혁명적이다. 누가 자기편이고 누가 자기들 적인지 본능적으로 알아내고야 만다. 역사의 잠시 동안 적은 그들을 속일 수 있어도, 속여먹고 있다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농민들은 그것까지 알고 있는 것이다. 다만 잠시 속는 셈치고 속아주는 것이다. 내 시는 근본적으로는 이들 농민에게 바쳐진다.[115]" 김남주가 도시생활 즉 소시민적 지식인의 삶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발견한 것은 피폐한 농촌현실과 농민들의 삶이었다. 그의 농민시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부분 농민의 전형으로서의 가족이다. 그런데 그의 귀향은 가족들에게 반가운 것일 수 없다. 여기서 이러한 소시민적

112) 김남주(1946~1994) 해남 출생. 1974년 『창작과 비평』 여름호에 <잿더미>외 7편을 발표하면서 등단. 시집『진혼가』(1984),『나의 칼 나의 피』(인동, 1987),『조국은 하나다』(1988),『사랑의 무기』(1989),『솔직히 말하자』(1989),『사상의 거처』(1991),『이 좋은 세상에』(1992)가 있다.

113) E.V. 일렌코프, 우기동· 이병수 역, 『변증법적 논리학의 역사와 이론』, (연구사, 1990), p.193.

114) 김남주, "변혁 운동을 전파하는 시" 『문예중앙』가을호, (랜덤하우스, 1989), p.331.

115) 김남주,『사랑의 무기』, (창작과 비평사, 1989), p.222.

의식과 감정을 청산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것은 시인과 농민 사이의 계급적 대립이 문제화되는 것이 아니라 양자간의 정서적 결합과 연대의 극복이 문제가 된다.116)

하, 많은 年輪을
自然의 榮光으로
피어온 薔微
滿朔된 花園을 되돌아
季節을 昇華시킨
純潔한 情念
싱싱한 젊음이 넘치는
滿開한 對話를 나누며
무거운 사색을
불꽃같이 散華하고
아름다운 情熱을 지닌
새악시의 볼처럼
아늑한 餘音을 풍기는
상냥한 그
微笑

<장미> - 전문, 조영희117)

위의 시는 맛깔스런 언어로 우리가락에 대한 애착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영희의 시적 특성은 생활 속의 凡常에서 출발하여 생활 속의 凡常으로 萬象을 진리화하려는 데 있다. 또한 신앙의 自己體驗을 통한 갈등 구조와 함께 神을 향한 신앙의 돈독에서 인간을 위한 救濟의 성실로 전향하는 정신의 승화를 보여 준다. 따라서 그의 시는 사상성이 중시된 장시화의 경향을 갖고 있다.

116) 염무웅, "사회인식과 시적 표현의 변증법" 『창작과 비평』여름호 (창작과 비평사, 1988) ; 시와 사회사 편집위원회 엮음, "피여 꽃이여 이름이여-김남주의 삶과 문학", 앞의 책, p.109.

117) 조영희(1935.9.16~)는 영광군 출생. 호는 치부(痴夫)이다. 시집으로 『춘설(春雪)』(익문사, 1972),『봄의 長調』(교육출판공사, 1977), 『이승에서 띄우는 엽서· 容奭아』(반도문화사, 1986), 『돌의 自畵像』(신아출판사, 1989),『除夜의 난간에서』(신아출판사, 1992),『身土不二 정신』(신아출판사, 1995) 등을 출간하였다.

그는 명지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앞에서 열거한 시인들의 작품 경향은 민중의 구체적 삶을 통해서 이 시대의 민중의 보편적 전통을 추출해 그리는데 주력하고 있음을 읽어낼 수 있다. 인간의 생존의 지니는 연대적 의미와 깊은 사랑의 진실을 포착하고 어떠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따스한 공생의 세계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노래한다. 그러나 시들이 사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시적 이념이 노골적으로 관념화 되어 표명되는 문제들이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누군가 동전만한 햇볕들이
텅 빈 거리에 떨어진 것을 봅니다.
인사불성인 땡볕과
아스피린 몇 알.
아직 귀가하지 못한
중학생 아이의 탈선이
숨죽여
리어카 뒤에 숨고 맙니다.
지천으로 쌓인 철 이른 밀감들이
철 안 든 아이들의
말들로 묻혀 있고
들여다 보면
편두통을 앓는지
말에는 아직
발긋발긋 실핏줄이 비쳐 보입니다.
날개 없는 어깻죽지도 보입니다
햇볕에 등 기대고
기댈 데가 있어
대만족인 주인은 듣고 있습니다.
이따금 가을의 섬세한
은빛 날개 스치는 소리.

<가을의 노래> - 전문, 노향림[118]

118) 노향림(1942.4.2~)은 전남 해남 출생. 1970년 『월간문학』에 <불>등이 당선되어 등단. 시집

위의 시는 관념의 사물화를 통해 시의 공감을 얻고 있다. 노향림의 작품 경향은 관념적 세계에서 탈피해 객관적 묘사나 이미지 위주의 깔끔한 시를 쓴다. 관념적 시가 빠지기 쉬운 개인적인 한탄이나 감정토로, 자의식 과잉에서 벗어나 어떤 주의나 주장보다는 객관적 대상의 묘사를 선명히 드러냄으로서 시의 공감을 얻으려 한다.

한 사나이가 강가에 서 있습니다.
장승처럼 서서
강물 속에 흘려버린 세월을 앓습니다.
사나이는 어느 날 꿈속에서
자기의 얼굴을 잃었습니다.
손톱 끝을 스치는 한줄기 번갯불에 놀라
자기의 이름 석자를 강물 속에 흘려버렸습니다.
그런 뒤로 해만 뜨면
사나이는 강가에 나와
강물 속엔 잃어버린 제 그림자를 찾습니다.
강물 속엔 때때로 파란 하늘이 어리고
몇 점 흰 구름이 흐르고
한 무리의 새떼들이 지나 가지만
물속에 사나이의 얼굴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제 사자의 시신처럼 누운
시린 겨울의 강은 말이 없고
해지도록 사나이는 헛기침을 하면서
고목처럼 가슴을 앓는데
사나이의 등 뒤로
사나이의 얼굴을 닮은 백지장 같은 낮달 하나
물끄러미 사나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변소묘> - 전문 오명규[119]

으로는 『K읍 기행(紀行)』(현대문학, 1977),『눈이 오지 않는 나라』(문학상사, 1987), 시선집 『연습기(練習機)를 띄우고』(연희출판사, 1980)가 있다.

119) 오명규(1936.1.10~)는 충남 공주 출생. 1973년 『현대문학』에 <산>, <항아리>가 추천되어 등단. 시집으로 『꽃 앞에 흐르는 말씀』(현대문학, 1974), 『바다가 흔들리고 있다』(현대문학,

위의 시는 인간의 여러 가지 삶의 주체의식과 삶을 통해서 근원적인 삶의 의미를 찾고 있다. 오명규의 작품경향은 구도적인 자세로 그 바탕을 時事的이기보다는 본질에 두고 불교의 無的 空觀을 배경으로 자연과 서민생활의 애환을 즐겨 다루고 있다.

시는 세계와의 추상적인 만남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살아있는 감각적인 만남을 노리고 있다. 그런 만남의 세계를 보어주어야 한다. 관념적인 언어들을 구체적 사물을 통해 보여주어야 한다. 그런데 사물과의 구체적 감각적인 만남을 상실하고 있다. 시는 우리가 잊고 사는 구체적인 삶을 이끌어내는 감각들과 새롭게 만나는 기회의 장으로 그 중요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 땅 위에 나는
무기징역으로 서 있습니다
이 땅 위에 누가 나를
무기징역으로 심었습니까.
지울 수 없는 꿈처럼
무기징역으로 뜨는 별
잊을 수 없는 욕망처럼
무기징역으로 헤매는 바람.
이 따 위에 나는
앉은뱅이 사랑
네가 필름처럼 검고 어두운 뿌리
하나의 자유를 가졌습니다.
고통이여
그대와 나는 부부가 되고 싶습니다.
이러한 그대와 나이기에
산다는 것은 자꾸만 범죄의 욕망을
닮아가지 않습니까.

<시계풀의 편지 · 2> - 전문, 김승희[120]

1979), 『빛을 타고 오는 소리』(예원, 1987) 등이 있다. 현재 광주시사랑 회장직을 맡고 있다.

120) 김승희(1952.3.1~)는 광주 출생. 1973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그림속의 물>이 당선되어 등단. 대표시로는 <태양미사>, <태양성서>등이 있고, 시집으로는 『태양미사』(고려원, 1979), 『왼

위의 시는 자신만의 비극으로 번뜩이는 세계를 만들어 가며 세계에 대한 헛되고 허망한 관념들에 대해 비수를 던져주고 있다. 김승희의 작품 경향은 강렬한 종말의식과 폐허의식 위에서 불멸자 혹은 잔인한 신으로서의 태양을 꿈꾸며 젊은 혼의 상처 입은 광기, 죽음 충동과 삶 충동의 진한 모자이크를 호안 미로, 살바도르 달리를 연상시키는 초현실주의적인 상상력과 무가적인 가락으로 노래한다.

그날부터 고모는
우리 집에서 살았다.
미친 듯 미친 듯 거멍이가 젖던 밤
어머니는 이불 속에 나를 파묻고
꼼짝 말고 있거라 잉 ! 그러셨다.
그날부터 캄캄한 이불 속 같은데서
꼼짝 말고 있으라면
꼼짝 않고 있으면서
오늘까지 살아왔다.
고모도 그러셨다.
대숲 헤집고 지나는 바람에도
심심해서 달 보고 짖는
개 짖는 소리에도
심장을 두 손으로 누르며 살아왔다.
이불속 보다 더 답답할
무덤 속에 누워서도
고모는 자주자주 놀라시는지
잔디 풀 파르르 떠는 걸 보았다.

<고모> - 전문, 김창완[121]

손을 위한 협주곡』(문학상, 1983), 『미완성을 위한 연가』(나남, 1987)가 있으며, 산문집으로 『고독을 가리키는 시계바늘』(1980), 『벼랑의 노래』(1984), 『33세의 팡세』(1985), 『성냥 한 개피의 사랑』(1986)이 있다.

121) 김창완(1942~)은 전남 신안군 출생. 1973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시 <개화(開花)>가 당선되었고, 같은 해 『풀과 별』에 <꽃개>, <가을을 보내며>가 추천되어 문단에 등단. 시집으로『반시(反詩)』(동림출판사, 1976), 『인동일기(忍冬日記)』(창작과 비평사, 1978), 『우리 오늘 살았다 말하자』(실천문학, 1984) 등이 있다.

위의 시는 고모집을 배경으로 잔잔하면서도 현실에 대한 인식을 구체화하고 있다. 김창완의 시 경향은 현실과 인간 존재의 발현(發顯)을 모색하고 있다.

바람부는 날에는
너에게로 가고 싶다
잔잔히 반짝이는
물결으 비늘을 헤치며
우울한 너의 영혼
부서지도록 껴안으러
수면 위에 내려앉은
흐린 물안개에 젖어도 좋으니
피리 소리처럼 흘러서
흘러서
너의 집 문 밖
늦가을빛 단풍나뭇잎이 지면
거기 함께 흙이 되더라도
너에게 밟히는 그런 흙이 되더라도.

<바람부는 날에는 너에게로 가고 싶다> - 전문, 황청원[122]

위의 시는 는 눈물의 따뜻함과 칼날의 차가움을 함께 내재한 자연 관조적인 시이면서 그 뿌리는 삶의 가장 깊은 곳에 두고 있다.

박문재, 김재흔, 오세영, 노창수, 백추자, 전원범, 오재동, 문도채, 이지엽, 정을식, 최승권은 주로 지방에 사는 지역민이자 소시민의 애환과 광주 · 전남의 전통미를 위해 현실과 존재, 인식과 서정을 소재로 한다. 그들의 시에는 그가 자라온 성장기의 자연의 모습이 전통적 정서의 탐구로 잘 드러난다. 박보운, 손광은, 박건한, 허형만, 이환용, 김종, 이영권, 김준태, 문정희, 이시영, 박주관,

122) 황청원(1955.~)은 진도에서 출생. 1978년 『현대문학』에 이동주의 추천으로 문단에 등단. 시집으로 『우리나라 새벽안개』, 『다시 흰 감자꽃 피어도 고향에 갈 수 없겠지 그대는』, 『떠돌이 별로 떠서』, 『바람 부는 날에는 너에게 가고 싶다』, 산문집으로 『칡꽃 향기 너에게 주리라』, 『마음으로 부르는 이름 하나』, 『그대는 내 잠속에 와서』, 『언제나 너의 이름은 따뜻하다』, 『돌아오지 않는 이를 위하여』, 『혼자 살기엔 너무 쓸쓸한 세상』, 『누군가 사랑하고 싶을 때 길을 떠나라』가 있다.

최정웅, 장효문, 차재환, 최일환, 박순범, 최규창, 고형렬, 나해철, 박록담, 김정삼 시인이 성장했던 광주 · 전남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서술시의 양식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그러한 서술시의 양식으로, 일견 평범한 농촌의 풍경과 이야기가 시의 언어를 접하면서 그 속에 담겨 있는 함의(含意)를 찾는 과정에서 토착적 소재와 애향의 서정이 인간의 사고는 역동적으로 움직이며 세상을 인식하고 비판하고 새로운 세상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박홍원, 강인한, 김지하, 국효문, 송수권, 김선기, 문두근 시인을 움직이는 상상의 힘은 풍부한 삶을 지향하는 것이 결국은 풍부한 생명의식이라고 보고 이런 갈구의 연장선상에서 얻어지는 의식으로서 직접적인 정치의식보다 더 치열한 생명의지의 순정성 고양을 동반하는 시를 썼다. 이들은 광주 · 전남의 지역적 토착성과 서정성의 결합하여 형상화하고자 하는 하나의 맥락을 찾을 수 있다.

어느 시대이든 불의의 대상이 존재한다. 그 불의는 분노를 요구한다. 그러나 분노는 극복해야하는 또 다른 대상이다. 시인에게 불의와 분노는 시작의 근본 원인이 윤리적이며 개인의 불행이나 행복은 본질적으로 사회의 그것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분노를 요구하는 불의를 혐오하며 적극적인 사회의식으로 시를 쓰는 시인들은 범대순, 조태일, 황지우, 고정희, 임동확, 진헌성, 양성우, 이성부, 김남주, 박노해 등 이다. 산다는 것은 절벽을 올라야 할 때도 있지만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이 또 다른 항거이다. 순응하는 것은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하는 적극적인 극복의지의 발현이다. 시인은 순응하여 살아남아야 또 다른 이야기를 조곤한 언어로 노래 할 수 있다. 극복의 의지를 잔잔한 시어로 임보. 김규화, 윤재걸, 김현곤, 조영희, 곽재구 등이 녹였다.

불의혐오는 사회의식보다도 우리의 삶은 1차적 경험, 곧 사물들과의 구체적 감각적인 만남을 상실하게 한다. 그럴 때마다 인간은 허무를 느낀다. 시는 우리가 잊고 사는 구체적인 감각들과 새롭게 만나는 허무를 기회의 장으로 그 중요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 허무의식에 빠지고 또는 자연과 동일화하려고 한 시인들은 최하림, 김만옥, 노향림, 오명규 등이다.

사는 것은 고통이고 슬픔이다. 그렇다 슬픔에 젖어 살 수 만은 없다. 살려면 슬픔도 기쁨처럼 즐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낙천적이어야 한다. 결국 산다

는 것은 슬픔과 낙천의 중충이 무겁게 하루하루 쌓이는 것이다. 이것을 일기처럼 형상화 하여 써온 시인은 최봉희, 문병란, 조병기, 김승희, 김창완, 황청원, 손동연 등이다. 불의의 시대를 관통해 오면서 각자의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거나 순응했거나 자연으로 동화하고자 했거나 슬픔을 가슴에 겹겹이 쌓은 채로 살고자 하는 방법으로든 불의를 혐오하는 기질은 광주 · 전남의 시문학 맥락 속에 씨줄과 날줄로 얽혀 흐르는 많은 시인들의 공통점이기도하다.

상술한 작품들은 상실에 근원을 두고 떠남과 만남의 괴리를 통하여 문명비판적인 휴머니즘을 추구하며 자연서정적인 기법의 이면에 삶의 고뇌와 인간성 회복을 위한 치열한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강렬한 종말의식과 폐허의식 위에서 잔인한 신으로서의 태양을 꿈꾸며 초현실주의적인 상상력과 무가적인 가락으로 노래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유신독재시대이며 경제적으로 자본주의의 성숙단계에 이르러 산업사회에서 기인하는 인간 소외와 노동문제가 야기되는 노동시를 쓰게 된 점도 두드러진다.

제 3 절 1980년대 등단한 시인들의 시 세계

1980년대 우리나라 시문학의 조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민중시 계열, 모더니즘 계열, 순수서정시 계열이 그것이다. 민중시 계열은 1970년대의 연장선상에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왜냐하면 1970년대의 산업화와 군사독재에 이어 1980년대의 벽두에 이루어진 광주민주화운동의 실패와 군부쿠데타 등 사회적 요소들이 한국시단의 흐름에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산업화 시대 시단에서의 가장 뚜렷한 시적 경향은 참여파 시인들의 민중지향적 시적 작업이다. 70년대의 민중시는 60년대의 참여시를 발전시킨 것으로 우리 시문학사에 리얼리즘시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70년대 초반부터 신경림, 문병란, 이성부, 조태일, 최하림 등의 활동에 의해 폭넓은 민중적 정서에 기반을 둔 민중시가 그 시적 가능성을 인정받게 되었다.” [123] 이렇

게 출발한 우리나라 민중시는 1980년대에 와서 문학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5월 광주' 라는 문제가 커다란 화두로 떠오르면서 문학계에서 큰 산맥을 이루게 된다.

모더니즘 계열의 시는 1980년대에 이르러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실현되는 일련의 경향을 띤다. "포스트모더니즘 시는 기존의 시형식과 의미의 해체를 보여주는 시적 경향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해체시, 도시시, 일상시 등으로 규정되는 포스트모더니즘시의 특징은 콜라쥬, 몽타쥬, 패러디 등의 기법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점과 비판성 대신에 우연성과 유희성, 텔레비전, 시사만화 등의 대중문화를 그대로 시 속에 끌어들이는 문화 대중주의 등을 들 수 있다. 이승훈, 황지우, 박남철, 이성복, 하재봉, 박상배, 최승자, 오규원, 최승호, 장정일 이하석, 이윤택, 유하, 김영승 등의 실험적인 작품들은 이러한 경향을 잘 보여 준다." [124]

우리 시문학사를 조망해 볼 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순수 서정주의시가 바탕으로 깔려 있는 상태에서 모더니즘 계열과 리얼리즘 계열의 시가 교차적으로 우세를 보이면서 진행되어 온 것이다.

1980년대 우리나라 시문학의 조류를 이렇게 파악한다면, 광주·전남의 시문학은 한국문단을 한 복판에서 이끌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1980년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킨 그 핵이 '광주' 라는 공간에서 촉발되었기 때문이다.

먼저 1980년대 광주 · 전남 시문학이 갖는 의미와 그 특성을 살펴보고 1980년대에 등단한 이 지역 시인들의 시 세계를 폭넓게 살펴보고자 한다.

1. 광주와 민중시와 노동해방의 시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한국의 80년대는 민주주의의 확립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분야의 삶이 희생될 수도 있고 또 희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일반화되었던 시대이므로 문학 역시 이 시기의 여러 다른 경향들은 잠시 '민중문학' , '민중시' 에게 그 대표권을 양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묵계가

123) 백수인, "한국 현대시의 흐름", 『소통과 상황의 시학』, (국학자료원, 2007), pp.41-42.
124) 위의 책, p.44.

허락되었던 시기이기도 하다.”[125] 민중시에 관한한 광주 · 전남은 지방이 아니라, 한국시단을 이끌어가는 적극성을 보여주는 중심에 놓여 있었다. 문병란, 조태일, 이성부, 최하림, 양성우, 김준태, 고정희, 김남주, 박노해로 이어지는 치열한 민중의식을 가진 시인들의 활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1970년대부터 저항시 운동의 선구적 역할을 해온 문병란은 ‘80년 광주’ 이후에는 더욱 치열하게 사회적, 정치적 모순을 타파하는 데 시적 역량을 기울였다. 그의 80년 이후의 시작은 70년대의 농민시, 민중시, 통일시의 연장선상에서, 광주라는 역사적 공간을 더욱 치열하고 비장하게 다루는 시로 진행되어 간다.

시는 가을 하늘에 떠도는 조각 구름
강물에 비치는 후조의 날개가 아니라
시는 때묻은 발바닥
모독당한 오늘의 양심에 있고

맹물이 아닌 우리들의 뜨거운 눈물,
한 방울 이슬이 아닌
우리들의 뜨거운 피를 마시고 피는
모진 장미의 가시
콕콕 찌르는 분노에 있다.

우리들의 시는 이미 쫓겨난 왕자,
한밤에 부르는 세레나데가 아니고
허리가 꺾인 코스모스
창백한 백합의 흐느낌이 아니다.

엉겅퀴처럼 억세게
들찔레처럼 어기차게
칡덩굴처럼 쭉쭉 뻗어
뽑혀도 뽑혀도 다시 살아나는 뿌리에 있다.
(중략)

125) 오세영, “80년대 한국의 민중시”, 『한국현대문학회 학술발표회 자료집』, (2001).

그대 교과서 속에서
그대 애인의 눈동자 속에서
진정 그대 시집 속에서
죽어가는 시의 껍질을 버리고
정수리를 퉁기는 가시가 되라
복판으로 날아가는 창끝이 되라.

- 문병란, 『시』 중에서

이 작품은 그의 시관과 자기반영성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메타시이다. 즉, 시는 '양심'을 바탕으로 한 '뜨거운 눈물'이어야 하고 '분노'의 표출이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시관이다. 그리고 시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져야 하며, '정수리를 퉁기는 가시' '복판으로 날아가는 창끝'의 기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그는 그 시대에 시가 가져야 할 역할을 적시하는 확고하고 뚜렷한 시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가 80년대의 깜깜한 어둠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더욱 강인한 생명력으로 끈질기게 민중시, 민족시, 통일시, 광주의 5월을 테마로 한 시들을 써온 원동력은 바로 이런 그의 시정신과 시대적 소명의식에 있다.[126]

이무렵 조태일의 시작 활동도 주목할 만하다. 문학의 도구적 기능을 최대한 반영한 시들을 통해 유신정권의 허위와 야만을 폭로함으로써 이른바 70년대 참여시의 서막을 연 조태일은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석방된 후 2년 동안 절필과 침묵으로 군사정권에 저항하며 올곧은 정신을 지켜냈고, 이후 5공화국 군사독재를 풍자하고 조롱하는 시들을 계속 발표하였다.[127]

낙엽이 내린다.
공수부대의 베레모가 내린다.
대한민국의 연희동 위에
연희동의 골목 위에
연희궁의 지붕 위에 뜰 위에
캄캄한 둘만의 침실 위에

126) 백수인, "서정의 세계와 민중시 -문병란론", 『소통의 창』, (시와 사람사, 2007), pp.93-96.
127) 이동순, "조태일 시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2008), pp.201-202.

낙엽이 내린다.
오월의, 카알기의, 의령의, 제주도의,
아웅산의 떼주검들이 열사들이
눈 부릅뜨고 의문처럼
? ? ? ? ? ? ? ? ? ? ? ?처럼
낙하하는 낙하산처럼
당당히 내린다.

- 조태일, 「연희동-국토·65」 전문

'연희동'은 군부독재자 전두환을 환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공수부대'는 광주시민들을 학살했던 군인들이며 '5월'은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카알기'는 카알기 폭파사건을, '아웅산'은 전두환이 방문했다가 폭탄테러를 당했던 곳을 상징하는 시사적 인유들이다. 이와 같은 시어들이 암시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야기했던 사건들이라는 점이다. 의문부호(?)의 형상을 통해 낙하산을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군권으로 장악한 권력이 행한 죽음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연희동'을 '연희궁'이라 지칭한 것은 이곳이 전두환 신군부권력을 만들어내는 만행의 공간임을 폭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의문사도 많았고 '열사의 시대'라고 일컬을 만큼 50여명 가까운 학생이나 노동자들이 분신, 투신, 할복사"[128]했던 시대를 적나라하게 풍자함으로써 "지배 권력이 추구하는 것은 피지배자와의 관계에서 얻는 심리적 만족"[129]이라는 허상을 폭로하고 있다. 그들의 심리적 만족을 방해하고 대항하면서 민중들을 대변하는 것이 그가 갖고 있는 시인의 사명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사명은 '자유'를 통해 표상된다.[130]

1980년 광주는 김준태의 시세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광주의 대동정신을 경험한 그는 총칼 앞에 잠시 무릎을 꿇어야 했던 광주를 역사적 좌절로 파악하지 않고 희망 정신으로 꿰뚫고 있다. 이후 내놓은 제2시집 『나는 하느

128) 조태일, "정치는 구호일 뿐인가-시인은 밤에도 눈을 감지 못한다", 『사회비평』(나남출판, 1996) p.200.
129) 양석원, "탈식민주의와 정신분석학-탈식민주의 이론과 쟁점", 『문학과 사회』(문학과지성사 2003), p.62.
130) 이동순, 앞의 논문, pp.136-137.

님을 보았다』(한마당, 1981)가 이러한 그의 시정신을 잘 말해 주고 있다. 그는 1980년 광주의 살육을 목도하고 나서 “목숨이 붙어 있는 것이라면 피라미 / 한 마리라도 소중히 여기련다 / 아아 나는 숨을 쉬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 사람이 만든 것이라면 하찮은 물건이라도 / 입맞추고 입맞추고 또 입맞추고 살아가리라”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것은 절규와 원한을 극복한 한 차원 높은 패러독스요, 광주 정신을 신성성으로 끌어올린 희망의 제시이다.

아아, 광주여 무등산이여
죽음과 죽음을 뚫고 나가
백의의 옷자락을 펄럭이는
우리들의 영원한 청춘의 도시여
불사조여 불사조여 불사조여
이 나라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다시 넘어오는
이 나라의 하느님 아들이여

예수는 한번 죽고
한번 부활하여
오늘까지 아니 언제까지 산다던가
그러나 우리들은, 몇 백번을 죽고도
몇 백번을 부활할 우리들의 참사랑이여
우리들의 빛이여 영광이여 아픔이여
지금 우리들은 더욱 살아나는구나
지금 우리들은 더욱 튼튼하구나
지금 우리들은 더욱
아아, 지금 우리들은
어깨와 어깨 뼈와 뼈를 맞대고
이 나라의 무등산을 오르는구나
저 미치도록 푸르른 하늘을 올라
해와 달을 입맞추는구나

-김준태,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 중에서

이 시는 1980년 5월에 광주가 어떠했는가를, 광주 시민의 마음이 무엇이었는가를 잘 대변해 주었다. 이 작품은 영어, 일본어 등 여러 외국어로 번역되어 해외 여러 나라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 시는 광주 5월 항쟁의 성격을 형상화했고, 광주를 가리켜 미래를 열어갈 '영원한 청춘의 도시'라고 규정한 예언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죽음 속에서도 예수의 십자가라는 의미를 부여하여 죽음을 통한 부활의 역사의식을 함의시키고 있다.[131]

김준태가 추구하는 신성성은 인간주의와 생명주의로 이행된다. "驛前 광장 / 아스팔트 위에 / 밟히며 딩구는 / 파아란 콩알 하나 // 나는 그 엄청난 생명을 집어들어 / 도회지 밖으로 나가 // 강건너 밭이랑에 / 깊숙이 깊숙이 심어 주었다 / 그 때 사방 팔방에서 / 저녁 노을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콩알 하나> 중에서)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콩알'을 '밭이랑'에 심어 주는 화자의 행위를 통해 생명의 신성성을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시적 경향은 <밭詩> 연작에서 구체화된다.

김준태의 시에 나타난 전반적인 시적 주제는 대체로 광주, 역사, 통일 문제로 집약된다. 그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뚜렷한 해명 방법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생명 존중과 사랑의 정신이다. 가령, 그의 시에서 '고향', '농촌', '밭' 등의 공간은 과거 지향적 공간을 통한 회귀 정신의 표명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 공간으로 열린 생명 사랑의 실현이다. 따라서 그는 그에게 지워진 시적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사랑'이라는 적극적 방식으로 끊임없이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32]

김남주의 시는 투쟁적이다. 그러면서 주된 성과는 강렬한 풍자이다, 풍자는 그 시가 투쟁적이다 는 이유로 거부감이 들지는 않게 한다. 그것은 비일상적인 감정과 폭력적인 언어 사용이 오히려 일반인들에게 '일상의 혁명'으로서의 시적 인식을 경험하게 한다. 풍자적이면서도 강렬한 언어로 그는 자신의 시로 투쟁하였다. 시집 <나의 칼 나의 피> 서문에서 고은은 "남주의 시야말로 우리가 암

131) 문병란, "문병란의 문학론", 허형만 등 편, "문병란 시 연구", 『시와 사람』(시와 사람사, 2002), p.492.
132) 백수인, "야성적 목소리의 신성성-김준태론", 『소통의 창』, (시와 사람, 2007), pp.101-102.

송하고 낭송하여 우리 자신들의 비겁을 깨뜨리게 하는 사상과 정서의 무한 교직의 폭력이다"고 했다.

김남주의 다음 시는 '5월 광주'의 현장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

오월 어느 날이었다
80년 오월 어느 날이었다
광주 80년 오월 어느 날 밤이었다

밤 12시 나는 보았다
경찰이 전투경찰로 교체되는 것을
밤 12시 나는 보았다
전투경찰이 군인으로 대체되는 것을
밤 12시 나는 보았다
미국 민간인들이 도시를 빠져나가는 것을
밤 12시 나는 보았다
도시로 들어오는 모둔 차량들이 차단되는 것을

아 얼마나 음산한 밤 12시였던가
아 얼마나 계획적인 밤 12시였던가

오월 어느 날이었다
1980년 오월 어느 날이었다
광주 1980년 오월 어느 날 낮이었다
낮 12시 나는 보았다
총검으로 무장한 일단의 군인들을
낮 12시 나는 보았다
이민족의 침략과도 같은 일단의 군인들을
낮 12시 나는 보았다
민족의 약탈과도 같은 일군의 군인들을
낮 12시 나는 보았다
악마의 화신과도 같은 일단의 군인들을

아 얼마나 무서운 낮 12시였던가
아 얼마나 노골적인 낮 12시였던가
-김남주, 『학살 2』중에서

"당시 남민전 사건으로 옥중에 있던 그는 풍편에 광주의 참상 소식을 듣고 차입한 음식물 포장지나 은박지 같은데 칫솔을 갈아서 만든 필기구로 눌러써 밖으로 내보낸, 시작 그 자체가 항쟁보다 더 어려운 투쟁의 시다."[133] 김남주는 '자기 발전하는 실체'를 발견하여 그것을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주체'로 승화시킨다. 그리고 이를 통해 '모든 변화와 변형의 주체-실체'[134]였다.

'시인은 우선 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며 '자기 시대의 중대한 문제를 바르게 설정하고 바르게 해결하기 위해 변혁운동에 복무하는 해방 전사와 같은 사람'[135] 이었다. 이렇게 볼 때, 그가 시를 쓰는 행위는 대중의 각성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시의 기능은 변혁 운동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정서를 전투적으로 고양시켜 주고 그들에게 투쟁의지를 북돋아 주어, 승리를 향해 용기를 잃지 않고 전진하도록 하는 데 있다.[136] "그렇다, 농부들은 본능적으로 혁명적이다. 누가 자기편이고 누가 자기들 적인지 본능적으로 알아내고야 만다. 역사의 잠시 동안 적은 그들을 속일 수 있어도, 속여먹고 있다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농민들은 그것까지 알고 있는 것이다. 다만 잠시 속는 셈치고 속아주는 것이다. 내 시는 근본적으로는 이들 농민에게 바쳐진다.[137]" 김남주가 도시생활 즉 소시민적 지식인의 삶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발견한 것은 피폐한 농촌현실과 농민들의 삶이었다. 그의 농민시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부분 농민의 전형으로서의 가족이다. 그런데 그의 귀향은 가족들에게 반가운 것일 수 없다. 여기서 이러한 소시민적 의식과 감정을 청산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것은 시인과 농민 사이의 계급적 대립이 문제화되는 것이 아니라 양자 간의 정

133) 문병란, 앞의 책, p.496.
134) E.V. 일렌코프, 우기동· 이병수 역, 『변증법적 논리학의 역사와 이론』 (연구사, 1990), p.193.
135) 김남주, "변혁 운동을 전파하는 시" 『문예중앙』가을호 (1989), p.331.
136) 신경득, "혁명의 꽃과 칼", 『한민족문학상론』, p.379.
137) 김남주, 『사랑의 무기』, (창작과 비평사, 1989), p.222.

서적 결합과 연대의 극복이 문제가 된다.[138)]

2. 1980년대에 등단한 시인들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1980년에 황지우, 송동연, 1981년에 오재동, 고형렬, 곽재구, 조병기 시인이 등단하였다. 1982년에는 최규창, 나해철, 1984년에 이지엽, 박록담, 문두근 시인이 그리고 1986년에 최승권, 김정삼, 임동확 시인이 등단하였다. 1987년에 김선기, 1989년에 김인석 시인 등이 등단하였다.

오재동 시인의 시를 살펴보면

오천년을 어머니 등 뒤에서
흐르던 길아.
딸깍딸깍
오늘은 한 장마쯤 가고
내일은 두 장마쯤 가고
비틀어진 길
최활로 잡아 주고
더러는 패인 웅덩이 물 고이고
쑥국새 울음 빠져들던 길아.
딸깍딸깍
오늘은 한 장마쯤 가고
내일은 두 장마쯤 가고
가다보면
낮달이 질펀히 엎어져 울기도 하고
쓰디쓴 가난과 학대받은 땅에서
물레와 함께 놀던 길아.
딸깍딸깍
오늘은 한 장마쯤 가고

138) 염무웅, “사회인식과 시적 표현의 변증법” 『창작과 비평』 여름호 (1988)
시와 사회사 편집위원회 엮음, 『피여 꽃이여 이름이여-김남주의 삶과 문학』, p.109.

내일은 두 장마쯤 가고
하늘의 슬기와 땅의 지혜를 익힌
지금은 天上의 별빛 되어 흐르는 길아.

<베 짜기> - 전문, 오재동[139]

위의 시는 '베 짜기'라는 제재를 통해 전통적인 민족 정서를 향토적 서정으로 담아내고 있다. 오재동의 작품 경향은 민중과 시대에 편승하지 않고 향토성을 바탕으로 한 순수 抒情詩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동심과 체험을 통하여 삶의 본질과 현실 반영의 문제를 어떤 유행 감각이나 시류에 오염되지 않고 독자적인 향토성을 유지하면서 시의 건강성을 보여 주고 있다.

강줄기를 따라 내려가다가 하류에 와서는
더는 나서지 못하는 내 눈썹 두어넛을
본 적이 있습니까?
더러는 눈썹 끝에 가볍게 내려서던
노을의 부신 몸짓새로
울음 소리만 길게 남겨 놓고 떠난 기러기
윤삼월도 하순이면
울섶 밑에 유년은 자라납니다.
자라나다 부끄러워 잔물살만 이 켠으로 보냅니다.
달은 뜨고, 天地間엔 달은 뜨고
가른 땅에는 살이 돋습니다.
베어낸 숲에서
處容 형을 만납시다.
餘分의 평수만큼 억새풀이 몸 부비고
몇 자 깊이에선 이슬로 化한
東南亞 반도의 바람이 옵니다.
아라사
당신의 눈 속에 흐르는 구름을 봅니다.

---

139) 오재동(1941.3.18~)은 호 冬天, 고흥군 출생. 1982년 『현대시학』에 <忍冬記>, <베 짜기>, <백운산에 오르며>가 천료되고 1981년 불교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등단. 대표시 <운암리 시편>과 시집 『운암리 詩篇>』(규장각, 1984)이 있다.

맨드라미 앞에 불타는 순수
잠시 不在中인 미래를 위해
종이 鶴을 접습니다.
바튼 기침 소리 한번에
불내음이 나는 時代가 두렵습니다.
또랑을 내고 메기 한 마리를 묻습니다.
百濟의 하늘로 통째로 묻습니다.
아라사 당신의 눈물도 묻습니다.
영락없는 무덤 위에
나는 마른 풀잎들로 돋아나는 중입니다.

<아라사의 눈물> - 전문, 이지엽[140]

위의 시는 아라사의 눈물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지엽은 문학의 목적성 보다는 전통성에 뿌리를 둔 시인이다. 그러나 자연시화가 이제까지의 단순한 서정과는 달리 주지주의적 신서정을 띄는 것이 특징이다.

몇몇은 보이지 않았다
졸업식 송사의 마지막 구절이
키 작은 여학생들을 일제히 흐느끼게 할 때
서울 어느 목공소 조수로 취직했다는 광오와
상급학교에 진학을 못한 상동이의 얼굴은
금간 유리창 너머 갈매기 두 마리로 날아오르고
교정 구석 단풍나무 한 그루로 선
나는 노을을 지는 바다를 훔쳐보았다.
싸락눈 잘게 뿌리던 날
문뜰나루 건너온 그놈들이
조회시간에 불쑥 내민 김 뭉치를 받았을 때
지방대학 국문과를 졸업하고
서정적인 시골 중학교 선생님이 된 나는
그놈들의 부르트고 째진 손등과

140) 이지엽(1958.12.25~)은 해남군 황산면 출생. 1982년 『한국문학』에 시 <촛불>이 당선되어 등단. 이후 1984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시조 <일어서는 바다>가 당선. 시집으로 『아라사의 눈물』(대명인쇄사, 1979), 『다섯 계단의 어둠』(청하출판, 1984) 등이 있다.

교실바닥에 나뒹굴던 해우무침 조각을 보고
바다를 따라 흔들리는 유채꽃의 희망과
황토밭을 흐르는 고구마 줄기의 자유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오랫동안 생각했던 것일까
해우 한 장보다도 얇은 졸업장을 주면서
바닷가 갯물 냄새 투성이의 아이들과
마지막 악수라도 나누고 싶었지만
나는 빈 칠판에 갈매기 두 마리를 그리고
나는 빈 칠판에 갈매기 두 마리를 그리고
유리창 밑에 숨어 바다를 보며 울었다.
서울의 낯선 어둠을 깎는 대패질 소리와
절망마다 강하게 내리박는 못질소리가
짧은 편지 가득히 들려오는데
앨범에 묻어 두었던 흑백의 그리움이
문뜰나루 갈매기 울음소리에 섞여
옹암리 앞 푸른 바다로 출렁이는 것을 보았다.

<겨울 手話> - 전문, 최승권[141]

위의 시는 어느 바닷가 시골 중학교 졸업식을 배경으로 하여 스승으로서 따뜻한 인간애를 드러내고 있다. 최승권의 작품경향은 앞서의 시에서처럼 현실의 구체성에 대한 서정적 변용을 바탕으로 따뜻한 인간미를 시 전체에서 공감성 있게 노래하고 있다. 표현적 변용과 추상적 형상의 내면적 구체성은 일상적 삶의 현실감정이다. 그러면서 민족분단에 대한 뜨거운 애정을 잘 녹여낸다.

日沒의 榮山江은
山자락에 물들면서 흐느적거리더라
山川은 피를 토하고
어느덧 세월은 땅거미
섣달 그믐밤에 문풍지를 울리던 기침 소리가
논두렁에서 들리지 않던가

141) 최승권(1960.3.25~)은 광주 출생. 1986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겨울 手話>가 당선되어 등단.

살빛을 머금고
물곬에 몰려드는 여울소리
기슭에서는 裸木처럼
신음하는 百濟
역사는 또 하나
三國遺事를 쓰고 있다.

<日沒> - 전문, 최규창[142]

위의 시는 일몰의 영산강을 제재로 하여 역사적 상흔을 상기하여 주고 있다.

면사무소에선 우리 집을 공가라고 불러요
쓸쓸하다는 얘기겠지요. 닭장 슬레이트 지붕이 날아가
바다에 떨어져 깨어졌지요.
울긋불긋하던 닭들도 새처럼 다 날아간 空家
면사무소 옆에 있는 게 바로 우리 집입니다
금년 1/4분기 상환금을 받으러 왔던 어린 면서기가
천장 없고 쥐 오줌이 얼룩진 벽체를 보고 귀청하면서
空家라는 딱지를 붙이고 다시 찾지 않았지요.
우리 아홉 식구는 비판력을 잃었지요
그 뒤 아이들은 우리 집이 六八被害復舊住宅이라고
떠들고 결석도 하니까
결국 월사금도 사실 면제 받았지요
그건 그렇고 이장님 그리고 자네 들어보게
이 空家 앞바다에 뜨는 해가 기막히게 차군
왜 추운지 왜 눈이 추운지
원인이 있겠지. 쓰르람 쓰르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샘뜰이 보이는 정오
안사람도 아이들도 가난을 압니다.
지나간 봄 개구리 볼 부은 이야기부터 우리 집은 할 말 없는

142) 최규창(1954.3.16~) 나주 출생. 1978년 『월간문학』 신인상에 시가 입선되었으며, 1982년 『현대문학』에 시 <해당화의 환상>외 4편이 천료. 시집 『어둠이후』, 『영산강 비가』, 『강문』과 시론 『한국기독교시인론』 등이 있다.

공가가 되었습니다.
面事務所 과세대장에도 공가라는 朱印이 찍혀 있지요
하늘로 아이가 문살을 잡고 울면
똑딱선 하나 가진 선주도 경계하고
저의 늑골이 아파 오는 가을 공가.
(멀리서 여치가 울었습니다)
오곡 익는 들을 댓가지에 낚시를 달고 쏘대던 소년도
칠성고기 잡으러 내려간 하천에서
불순하게 들리고 이상하게 퍼지는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 집은 공가. 우리 집이 참으로 귀뚜라미집 같은 空家라고.

<空家> - 전문, 고형렬[143]

위의 시는 곤궁한 농촌의 현실을 '공가'를 통해 환기 시켜주고 있다. 고형렬은 진보와 발전의 논리가 시의 내면을 장악하던 80년대에 가혹한 역사의 중압으로부터 비롯된 상투성을 극복한 몇 안 되는 시인으로 주목받았다.

고형렬 시인은 고향을 일찍 떠났기에 고향의 자신에서의 자신의 타자[144]로 삼음으로써 실존적 위협을 타개해 나가고자 한다. 고형렬은 타자의 삶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그의 고통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자신의 육체를 기꺼이 내놓음으로써 미래의 전망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 집은 공가. 우리 집이 참으로 귀뚜라미집 같은 空家라고."라는 구절에

143) 고형렬(1954.11.8~) 전남 해남 출생. 1981년 『현대문학』에 <장자>, <수풀 속에는>등 5편이 천료되어 등단. 시집으로는 『대청봉 수박밭』(청사출판사, 1985),『해청』(창작사, 1987) 등 있다.

144) 강영안,『타인의 얼굴 - 레비나스 철학』, (문학과지성사, 2005).
레비나스는 타인을 위해 고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곧 주체의 주체성을 구성하며 이러한 타자와의 관계성을 통하여 '그저 있음'의 존재적 공포를 뛰어 넘어 '미래'로의 시간을 열 수 있다고 본다. 홀로 있는 '나'라는 존재는 '그저 있다(il y a)'는 모든 것을 무로 환원하고 그 자체로 아무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는 현실이다. 그것은 공포로서 체험되고 '나'의 주체성을 끊임없이 위협한다. 이러한 존재 유지의 차원을 뛰어 넘을 수 있는 가능성은 '타인의 얼굴' 출현이라는 윤리적 사건을 통해서 실현된다. 얼굴은 강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자가 아니라 아무런 보호막도 기득권도 없는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의 모습이다. 타자의 타인은 그의 비참함 가운데 나에게 말을 걸어온다. 타인의 얼굴의 호소를 통해 나는 상처받고 고난 받는다. 마치 예수가 말했듯이 머리 하나 눕힐 곳 없는 존재가 된다. 나만이 누리던 자유가 부당함을 일깨우고 타인을 수용하고, 내 것을 내어놓고 타인을 환대하도록 요구한다. 나에게 어떠한 구체적 행동을 수행하도록 만들며 그것을 통하여 나를 고귀한 영적 존재로 만든다. 이러한 차원을 '내 안에 있는 타자' '동일자 안의 타자' 또는 '내재 속의 초월'이라 부른다. 이러한 타자와의 관계성을 통하여 '나'의 '미래'로의 시간이 열리게 된다.

서 볼 수 있다시피 시인이 시적 체들의 삶을 자기 것으로 껴안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요소 가운데 하나는 일반사람에게 들리지 않는 '소리'이다. 아득하고, 여리고, 지쳐 있는 것들의 '소리'[145]는 화자를 번뇌에 빠트리며, 온몸을 찢는 고통을 주는 한편, 시인의 마음을 고양시키면서 안으로 타게 하는 역할을 한다. 고형렬의 시어는 소곤거림처럼 정겨우며 한편으로 냉철하다.

배가 들어
멸치젓 향내에
읍내의 바람이 다디달 때
누님은 영산포를 떠나며
울었다.
가난은 강물 곁에 누워
늘 같이 흐르고
개나리꽃처럼 여윈 누님과 나는
청무우를 먹으려
강둑에 잡풀로 넘어지곤 했지.
빈 손의 설움 속에
어머니는 묻히시고
열여섯 나이로
토종개처럼 열심이던 누님은
광주 · 전남선을 오르며 울었다.
강물이 되는 숨죽인 슬픔
강으로 오는 눈물의 소금기는 쌓여
강심(江深)을 높이고
황시리젓 배는 곧 들지 않았다.
포구가 막히고부터
누님은 입술과 살을 팔았을까
천한 몸의 아픔, 그 부끄럽지 않은 죄가
그리운 고향, 꿈의 하행선을 막았을까

145) 강영안, 위의 책. "타인에 대한 윤리적 책임은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이웃의 호소와 부름에 응답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여기서 감성적 수용과 귀 기울임, 그리고 그에 따른 구체적 행동이 중요하다."

누님은 오지 않았다.
잔칫날도 큰 집의 제삿날도
누님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은 없었다.
들은 비워지고
강은 바람으로 들어찰 때
갈꽃이 쓰러진 젖은 창의
얼굴이었지
십년 세월에 살며시 아버님을 뵙고
오래도록 소리 죽일 때
누님은 그냥 강물로 흐르는 것
같았지.
버려진 선창을 바라보며
누님은
남자와 살다가 그만 멀어졌다고
말했지.
갈꽃이 쓰러진 얼굴로
영산강을 걷다가 누님은
어둠에 그냥 강물이 되었지.
강물이 되어 광주· 전남선을 오르며
파도처럼 산불처럼
흐느끼며 울었지.

<榮山浦 · 1> 나해철[146]

위의 시는 가난 때문에 고향을 떠난 누님이 끝내 돌아오지 못한 한 서린 이향의 아픔을 토로하고 있다. 나해철의 작품 경향은 세상에 가득한 여러 삶의 모습들을 또렷이 기록하고 싶어 한다. 더불어 역사 앞의 한 지식인으로서 순결치 못한 스스로의 삶에 크게 부끄러워하는 뉘우침들을 그리하여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치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한다. 순결치 못한 사람은 서거나 앉는 동작에도 순결성이 결여되어 있다. 스스로가 정결한지를 그

146) 나해철(1956.6.4~) 전남 나주군 출생. 1982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영산포 1·2>가 당선되어 등단. 시집으로는 『무등에 올라』(창작과 비평사, 1984), 『동해일기』(청사출판사, 1986)가 있다.

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파도처럼 산불처럼 흐느끼며 울게 하는 서정성을 토해 내고 있다.

바다는 일찍이
저주였거나,
부글부글 끓는
기다림이었을 게다.
더는
내어 줄 것 없는
맨몸뚱이로
서로를 밀쳐내는
아우성이었거나
버릴 수도 주워 담을 수도 없는
그 세월의 틈바구니에서
어쩌면 바다는
지쳐버린 사랑.
지쳐서 쓰러져 뒤척이는
몸살을 앓는 사랑이라면
좋겠다.
한줌 불씨도 꺼지고
한 톨의 씨앗마저도 죽어버린
지금
어쩌자고 나 여기 왔나
체념이 아닌 체념으로 삭히던
내 가슴안에 불씨마저
흔적이 없는 이 바다에.

<겨울, 그 바다에 와서> - 전문, 박록담[147]

147) 박록담(1957.12.15~) 해남군 출생. 필명은 녹담(綠潭). 1984년 광주일보 신춘문예에 시 <겨울, 그 바다에 와서>가 당선되고, 『현대시조』에 시조시 <달밤에 이대로 돌이 되면>이 추천되었으며, 같은 해에 『월간문학』 신인작품상 모집에 당선하여 문단에 등단. 1982년에 한국시학 신인상을 수상.

위의 시는 겨울바다에서 내면의 상념을 드러내고 있다. 박록담의 작품은 주로 고향에 이상을 두고 있으면서 한(恨)과 정(情)을 소재로 한 직설적이고 색감이 뚜렷한 경향을 보여 준다. 내면적인 사랑의 갈구를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고도의 기교나 수법을 피하고 있다.

산허리 구름
강물에 띄운 세월
전라도 경상도 끝을 이어
세상의 인심을 품안으로 모은다.
속세에 묻은 욕심
淸淨海에 씻어 내고
가신 님 기다리는
강 건너 물새야
고기떼 평화로운
미소진 강물
전라도 경상도
역사가 흐르는 강아.

<섬진강> - 전문, 김정삼[148]

위의 시는 섬진강을 제재로 하여 청정함과 평화로운 강심을 담아내고 있다. 김정삼의 작품 속에는 기쁜 것과 슬픈 것, 새로운 놀램과 참된 삶을 오랫동안 마음 착하게 살아 온 그의 분신들이 나타나 있다. 이런 것들은 요사이 좀처럼 만나기 힘든 일인데 그의 시 속에서는 무성하게 보인다. 또한 참된 마음, 바른 마음, 소박한 느낌들이 수 없이 널려 있어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한다. 유년적 정서를 순수서정으로 직조하며 잊혀져가는 것들에 대한 강한 향수를 환기한다.

148) 김정삼(1944.5.3~) 호는 두정(斗正). 1986년 시집 『겨울꽃』으로 등단. 대표 시로는 <겨울꽃>등이 있으며, 시집으로는 『정하불(貞河不)』(이불출판사, 1966), 『비오는 날 떠난 님』(은성문화사, 1984), 『겨울꽃』(교음사, 1986), 『수레바퀴』(한누리출판사, 1987)가 있다.

이슬방울이 채 떨어지지 않은
수요일 새벽
당신의 처음 순결처럼
뽀얀 안개 속의 세상은 아름다웠고
살별이 떨어진 별밭엔
소담스런 달개비꽃도
서너 송이 피어
아침을 기다리더이다.
처녀성 터지듯
찬연하게 물들은 수요일의 아침은
광주 공원 비둘기 집을 흔들고
파란 바람 몇 점으로
넉넉한 세상이기를 바라는
천사 같은 당신은
정작 스치고 지나가는
한 줌 바람이었으면
내가 미치도록 그리워 할.

<달개비꽃 그리고 새벽> - 전문 김선기[149]

그리움은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다. 그리움의 대상이 누구인가 사랑하는 연인인가. 아니면 아직 못다 핀 민주주의 인가 "처녀성 터지듯/ 찬연하게 물들은 수요일 아침은" 내가 미치도록 그 무엇인가를 찾아 떠나고 있다.

너는 들꽃이다
네 한 송이는
오랜 나의 天國이다
눈망울엔 들 바람 소리
별을 스치운다
네 律動으로

149) 김선기(1961.9.15~) 목포 출생. 1983년 경향신문 신춘문예 논픽션 <하얀 웃음>당선으로 등단. 1987년 『시와 시론』에 시 <아리랑 인생>외 4편이 당선되어 시작 활동. 시집으로 『포구에서 부는 바람』(1989), 『풀잎이 흔들릴 때』(1991) 소설집으로 『오늘 같은 날』(1986)이 있다.

내 가락의 올을 뽑아내고
내 가락의 올을 뽑아내고
蘇生의 죽음을 꿈꾼다
하늘 저쪽
돌팔매질이여
너는 나의 오랜 波紋이다.

<戀歌> - 전문, 문두근[150]

위의 시는 시장기 같은 그리움이 처절하다. “너는 들꽃이다/ 네 한 송이는/ 오랜 나의 천국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일편단심 들꽃 한 송이만 바라보는 시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문두근의 시 경향은 시 속에 모나게 지성을 드러내거나 감정을 흘리거나 감각적으로 재치만을 부린 흔적이 없다. 가장 쉽고 우수한 우리말 시어(詩語)로 시적 조화를 이루면서 따스함과 부드러움, 깔끔함을 안겨주는 인간애가 흐르는 게 특색이다.

‘토착성과 서성정의 형상화’에 ‘전통적 정서의 탐구’와 ‘토착적 소재와 애향의 서정’ 그리고 ‘생명의식의 순정성’을 다루었다.

생명의식의 순정성은 시에 있어서 삶의 본원적인 문제를 탐구하여 생명의식의 발로로 풍부한 삶의 원천을 제공한다. 이러한 것들 역시 삶을 아름답게 하는 문학인의 책무이자 역할이기도 하다. 산업사회의 비인간화된 풍토 속에서 인간존중과 생명의식의 발로는 치열한 생존경쟁의 사회에서 인간성 회복을 위한 몸부림이자 갈구였으며 탈출 의지의 발로였다.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삼천리 화려 강산의
을숙도에서 일정한 군(群)을 이루며
갈대 숲을 이륙하는 흰 새떼들이

150) 문두근(1948.1.3~) 호는 무외(無外)로 전북 임실 출생. 1984년 『시문학』에 <나비를 잡으려면>등이 추천되어 등단. 시집은『나비를 잡으려면』(고려원, 1985),『저우실 노래』(1989)등 있다.

자기들 끼리 끼룩거리면서
자기들 끼리 낄낄대면서
일렬 이열 삼열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 메고
이 세상 밖으로 어디론가 날아간다

우리도 우리들 끼리
낄낄대면서
깔쭉대면서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한 세상 떼어 메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로
각각 자기 자리에 앉는다
주저앉는다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 전문, 황지우[151]

위의 시는 물화되고 상품화 되어가는 현실을 작품을 통해 사회의 비극을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있다. “자기들 끼리 낄낄대면서/ 자기들 끼리 낄낄대면서” 참으로 현실을 역설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

황지우는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의 시집의 낭만성의 세계 표현에서 개인적 낭만성이기 보다는 정치적 성격의 낭만성으로서 그런 결과로 현실의 일그러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과격한 형식 파괴를 서슴지 않았음을 논하고 두 번째 시기의 <나는 너다>에서 ‘새로운 모색의 시작’으로 보여주는 기존의 표현의 차원이 아닌 진정한 ‘우리’의 관계를 모색했다. 세 번째 시기의 <게 눈 속의 연꽃>의 시편들에서 ‘현실과 화해하는 길 찾

151) 황지우 1952년 전남 해남 출생. 1980년 <연혁(沿革)>이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입선하고 <대답 없는 날들을 위하여> 등을 『문학과지성』에 발표함으로써 시단에 등장. 첫 시집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로 제3회 '김수영문학상'을 수상. 『게 눈 속의 연꽃』으로 1991년 현대문학상을 수상.『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나는 너다』 등의 시집과 시선집 『성(聖)가족』을 상자했다.

기'를 시도했음을 증명하는데 여기서 황지우가 정신적인 균형을 찾아가고 있음을 더불어 얘기한다. 탈속했던 그가 돌아와 더러운 현실을 감싸 안으며 세상의 끔찍한 사랑을 확인시키고 자연의 아름다운 이미지들을 사용하여 선(禪)적인 현실을 제시하는 여유까지 보여 주기 때문이다.[152]

소외란 존재하는 모든 것이 물화되고 상품화되는 소유사회의 비극을 말하며, 현대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소외는 그 규모나, 양상, 성격으로 보아 과거 어느 시대보다 전면적이고 보편적, 심층적이다

프롬은 자본주의적 경제구조의 기본적인 특징으로 수량화와 추상화를 들고, 자본주의 자체를 소외의 핵심적인 원인으로 규정한다.

황지우는 80년대의 시대적 현실은 때로는 시인에게 고통스러운 자의식의 분출을 때로는 시인에게 시대에 맞는 역할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역할 구조에 따라 문학의 리얼리즘화 현상[153]을 촉발시키기도 하면서 80년대 한국 사회에서 80년대의 문학을 기존의 권위와 체제를 부정하고 그와 맞서는 것으로 과감하게 변화시켰다. 부정적 세계관으로 80년대 문인들을 특징짓고 내용과 더불어 형태상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30년대의 모더니즘, 50년대의 후기 모더니즘과는 다른 80년의 형식의 파괴는 때로는 포스트모더니즘 형태의 해체시라는 이름으로 다가왔다. 즉 80년대 시단의 두드러진 특징은 '해체'[154]였으며 '낯설음'이었다. 따라서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며 파편화된 삶과 세계의 양상에 대한 역동적인 응전 방식으로써, 보수적인 미학 체계에 대한 거부와 반항의 결과 80년대의 자생적인 시 양식이라 할 수 있다.[155] 80년대 벽두의 황지우, 박남철, 이윤택 등에 의한 새로운 문법의 시와 후반에 장정일, 김영승 등으로 이어지며 80년대는 해체시가 자연스러운 시 양식으로 자리 잡은 시대로서[156] 오히려 이러한 다양한 실험의식으로 인한다.

---

152) 박순채, "황지우의 시 연구", 『성신어문학』, 6집, (1993), p.203.
153) 정효구, "80년대 문학의 정신적 특질", 『광야의 시학』, (열음사, 1991).
154) 1960년대 말 자크 데리다에 의해 처음 소개된 해체 deconstruction
155) 송지윤, "한국 해체시의 형태적 양상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p.10.
156) 박순채, "황지우의 시 연구" 앞의 책, p.202

날 가로막는 것은 더 이상 네가 아니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매듭짓지 못한 지난 일.
아니면 처음부터 나 때문이었다.
그래서 내 마음의 결가부좌를 풀지 못한 채
그래서 내 마음의 결가부좌를 풀지 못한 채
난 면벽증이다. 문이란 문 죄다 걸어잠근 채
이미 더럽혀진 生을 찬찬히 곱씹으며
더욱 생생한 상처의 한가운데 좌정하고 있다
그곳에서 현실은 또 다른 추억의 그림자다
낡은 고물 축음기 위에 올려진 레코드판이 다 닳도록
바흐의 선율과 난폭하게 몰아가는 자동차 엔진음이
함께 뒤섞여 흘러나오던 영화 음악 『페드라』를 들으며
자폭 아니면 애써 초월을 강요 받아왔던 세월이요
I Want to die……, 맹목적으로 반복하여 따라 합창하던 그날들이여
그러나 결국엔 의붓아들과 의붓엄마의 이루어질 수 없는 불륜 같은 사랑의 금기를 범하며 끝나버린 죽음의 시대여
하지만 그것마저 여전히 완강하고 싸늘한 현재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환영.
날마다 절규하듯 울부짖어 보아도 꿈쩍 않던 벽면에 그려진 세월의 음화였다.
연민도 공개적인 비판대상이 되던 시절.
그렇기에 혼자서만 오랜 망각의 술을 마셔왔다
변명할수록 더 구차스럽던 치욕의 세월이었으므로
퍽이나 오래 잘못 살아버린 삶의 기억을
퍽이나 오래 잘못 살아버린 삶의 기억을
퍽이나 오래 잘못 살아버린 삶의 기억을
이제 벽을 문 삼아 한꺼번에 토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토록 옥죄인 마음의 빗장을 열려 하니
그러나 그토록 옥죄인 마음의 빗장을 열려 하니
여기저기 아파온다.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슬픔의 독이 한꺼번에 목구멍으로 치밀어 오른다.

<벽을 문으로> - 전문, 임동확[157]

157) 임동확(1959.2.24~) 광주 출생. 1986년 광주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등단. 시집으로는 『매장시편』(민음사, 1987), 『살아있는 날들의 비망록』(민음사, 1990), 『운주사 가는 길』(문학과 지성사, 1992), 『벽을 문으로』(문학과 지성사, 1994) 등이 있다.

위의 시는 살아온 삶을 반추하면서 굴곡진 아픔의 상처를 “슬픔의 독이 한꺼번에 목구멍으로 치밀어 오른다”라고 말하고 있다. 임동확의 작품 경향은 자신과 이웃의 상처를 비통한 분노의 목소리로 혹은 자괴감에 사로잡힌 반성의 목소리로 표현하고 있다. 그 상처의 근원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원죄의식에 닿아 있으며, 이것들은 시인의 정치적 상상력에 뒷받침되어 서정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최근 시의 경향은 시인의 의식을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어두운 기억과 不明의 현실을 거름 삼아 연꽃과 같은 아름답고 조화로운 삶을 꿈꾸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 꿈은 현세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시에서는 간절한 염원의 이미지로 피어나고 있다.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待合室 밖에는 밤새 송이 눈이 쌓이고
흰 보라 수수꽃 눈시린 璃琉窓마다
톱밥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그믐처럼 몇은 졸고
몇은 감기에 쿨럭이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內面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靑色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 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다는 것이 때론
한 두릅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歸鄕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오래 앓은 기침소리와
쓴 약 같은 입술담배 연기 속에서
싸륵싸륵 눈꽃은 쌓이고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和音에 귀를 적신다.

子正 넘으면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雪原인데
단풍잎 같은 몇 잎의 차창을 달고
밤 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웠던 순간들을 呼名하며 나는
한 줌 톱밥의 불꽃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沙平驛에서> - 전문, 곽재구[158]

위의 시는 불의한 현실을 즉각적을 대응하기 보다는 시골 풍경의 한 편의 그림을 보는 듯하다. 따뜻한 눈빛으로 핍진한 현실을 감싸 안으면서 80년대 우리들의 퇴락한 개인적 생존양식을 고발하고 있다.

곽재구의 작품 경향은 삶을 억압하는 핍박한 정치적 현실, 더 나아가 폭력적인 모든 형식이나 불의한 상황에 대해 격정적,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분노를 싸안으면서도 그것을 뛰어 넘는 힘찬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미래에 대한 낙관적 인식, 현실에 대한 근본적 사랑을 배경으로 하여 조성되며, 시인이 가진 일종의 자신감의 표현으로 읽을 수 있다.

1970-80년대는 그 시대적 특수성으로 인해 시의 서정성보다는 사회적 대응이 깊게 각인되는 시기였다. 산업화와 독재가 낳은 사회 현실의 부조리에 대한 부정과 비판을 주요한 시적 주제로 삼으면서 민중을 포용하고 나아가 민중이 주체가 되는 시들이 쏟아져 나왔다. 곽재구 역시 그 시대의 장력(張力)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의 시는 서정과 현실을 적절히 결합[159]시켰다. 그는 서양시 한 줄, 서양 학자 이름 한 번 내세운 일 없이 꿈질꿈질 살아온 이웃들에게 바칠 수 있는 사랑과 희망의 시를 열렬히 갈망한다.[160] 모순과 불평등의 세상에서도 꺾어 버릴 수 없는 그리움의 세계는 역시 민중들이 주인공이다.

강렬한 사회 참여의 리얼리즘 시풍이 주도하던 1970-80년대 시적 흐름 속에

158) 곽재구(1954~) 전남 광주 출생. 1981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사평역에서>가 당선되면서 등단. 시집으로는『사평역에서』(1983),『전장포아리랑』(1985),『한국의 연인들』(1986),『서울 세노야』(문학과 지성사, 1990)과 동화집『아기참새 찌구』(1994),『참맑은 물살』(1995) 등이 있다.
159) 유종호 외, 『한국 현대 문학 50년』, (민음사, 1995), p.81.
160) 이가림, 앞의 책, p.466.

서 곽재구도 문제적 현실을 이야기한다. 곽재구는 그의 첫 시집에서 개인의 경험[161],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아픔의 역사 인식과 그에 따른 부정적 시선을 보여준다. 사랑과 자유와 희망의 세계는 그러한 낱말들의 반복적인 사용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보다 구체적인 이미지의 힘에 의해 겨우 조각될 수 있는 세계인 것이다.[162] <추상적 정열에서 구체적 사랑으로>[163]라는 글에서 곽재구의 두 번째 시집 『전장포 아리랑』의 의의를 구체성의 획득으로 설명하면서 첫 번째 시집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시가 구체적인 사실들을 전제로 할 필요는 없지만 추상적인 메시지 전달은 독자들에게 다가서기 어려운 점이 있다. 추상적 정열은 시적 대상을 감상으로 채색하여 그것의 접근에 일정한 한계를 긋는다.[164]

시인의 기행(紀行)이 바탕이 되었음이 충분히 짐작이 되는 시이다. 곽재구는 "나라 안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모든 마을들을 내 발걸음을 찾아보고 적어도 하룻밤씩은 머물고 싶다. (중략) 그 마을들의 삶과 사랑과 꿈의 생채기를, 그 기침소리를 듣고 싶은 것이다."[165]라고 이야기한다.

물론 앞서 밝혔듯 곽재구의 시는 문제적 현실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충만한 그리움의 세계를 통해 현실의 결핍을 보여준다. 그리움의 세계를 현실 동력으로 고통스런 오늘에 굴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166]에 대한 그리움이 미래 지향적인 감정 상태의 총체라면 사랑은 현실 지향적이면서 미래를 향해 열려 있는 관심과 실천을 아우르는 감정과 행동의 총칭이라 할 수 있다.[167] 시인에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사랑이며, 사랑을

---

161) <사평역에서> 제4부는 대인동 연작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1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인동 연작 시들은 개인적 체험을 바탕으로 70년대의 빈곤과 슬픔을 보여준다. 이 밖에도 <돼지밥을 주며>, <그리움에게> 등은 개인사의 헐벗음과 아픔을 통해 현실의 상처를 성찰하는 시들이다.

162) 이가림, 앞의 책, p.467.

163) 김 현, "추상적 정열에서 구체적 사랑으로", 앞의 책, p.168.

164) 곽재구, 『침묵의 파문』(창작과 비평사, 2003), p.72.에서 눈물과 그리움, 쓸쓸함의 정조로 넘쳐나는 감상 과잉의 시편들은 '서정성'이 올바로 구현된 작품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165) 곽재구, 『참 맑은 물살』, (창작과 비평사, 2003), pp.121-122.

166) 곽재구, 『삶을 흔들리게 하는 것들』, (동방미디어, 1997), p.75.
기실, 자신과 제일 가까운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어떤 신화성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를 작가라고, 혹은 시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가.

167) 서준섭, "네 시인과 독자" 『문학과 사회』봄호 (문학과 지성사, 1991), p.355.

통해 우리가 소망하는 그리움의 세계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이다. 곽재구는 기행을 통해 서정적 주체의 주관보다는 타자들이 구성하는 사회적 현실을 더 우선하는 태도[168]를 갖게 된 것이다.

부산한 뜰 위에서
그대들은 지난 겨울을 쓸고 있었네
안부가 묻고 싶을 때
그대들은 그렇게 가고
죽는 일만큼이나 쉽게
풀잎도 재우고
약속도 날려 보내고
안개 속에서 우리들의 질문은 시작된다.
비밀스런 가지들의 흔들림 사이에서
떠나는 자를 위하여
우리는 잠들 수 없다.
무성한 말의 숲을 관통하면서
빈 뜰 위에서 우리들은
잠들지 못하는 기침소리가 된다.

<바람에게> - 전문 조병기[169]

위의 시는 자신을 둘러싼 외로움의 세계를 바람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조병기의 작품 흐름은 상실에 근원을 두고 떠남과 만남의 괴리를 통하여 문명비판적인 휴머니즘을 추구하며, 자연서정적인 기법의 이면에 삶의 고뇌와 인간성 회복을 위한 치열한 대결을 시도하고 있다.

있는 듯 없는 듯 언제부턴가
목수의 손때 묻은 잣대 위에서
희미해진 숫자 탓인지

168) 유성호, 『한국 시의 과잉과 결핍』, (역락, 2005), p.25.
169) 조병기(1940.1.9~) 장성군 동화면 출생. 1972년 『시조문학』에 이태극의 추천, 1981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시조 <숲>이 당선되어 시조시인으로 등단. 1981년 『현대문학』에 시 <사선>, <달>이 천료.되었다. 시집으로는 『가슴속에 흐르는 강』(현대문학, 1986), 『바람에게』(동학사, 1993)을 출간하였고, 이외에 『한국문학의 서정성 연구』(대왕사, 1993)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들새들 날아와 실 눈금을 쪼아 먹었는지
봄은 만질 수 없는 슬픔만큼 작아지는 듯하다
목수는 팔월의 대낮 같은 소리로
수족들 중 수제자에게
둥근 손김이 묻은 등불 들고
지극 정성스럽게 만져보고 읽어 보란다
가벼워진 것 같은 봄을
이번엔 체중계를 달아 보란다

<봄의 무게> -전문, 김인석[170]

봄은 늘 희망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은 희망보다는 추의 기울임이 반대로 옮겨가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외연적인 의미는 인간들의 잘못으로 인해 자연이 파괴되어감을 의미하고 있으며, 내포하는 의미는 지금의 현실은 날로 어려움이 배가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마음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봄은 하나의 축자적 해석이 아닌 상징이다.

반의 반쪽이라도 등 기댈 사랑 없는 이는 이리 오시라요. 살 부비며 사는 일이 어찌 사람 일이기만 한 거라요. 작은돌이 큰돌을 괴고, 큰돌은 작은돌을 받쳐 주는 돌담을 보시라요. 더 못줘 안타까운 사랑이 있다면 똑 이런 모양일 거라요. 슬프다든가 원망스럽다든가 혼자서는 외롭다든가 아님 묵은 빨래 같은 시름 따윈 까짓거 구름 널듯이 이 돌담에 널어 놓으시라요. 햇볕 속 금방금방 마를 거라요. 참, 그 돌멩이에 꽃 피는 희한한 것도 물리도록 실컷 구경할 일이라요. 사에 가면 칡꽃이 산 하나를 품고 살듯, 이 돌담 위에도 호박꽃이 실리면 으리으리한 고대광실 한 채가 두둥실 떠오르는 거라요. 그러니 반의 반쪽이라도 등 기댈 사랑 찾는 이는 이리로 오시라요. 좋은 사람 만나 오순도순 새끼 낳고 닭이나 치며, 살아가는 우리네 일이란 것도, 결국은 바로 돌담에 다름 아니라요. 서로를 받들어 온전한 제 얼굴 이룬, 돌담의 저 바람막이에 다름 아닌 거라요.

<돌담을 보며> - 전문, 손동연[171]

170) 김인석(1960. 6. 4.~) 완도군 출생. 1989년 시집『목 타는 그리움』(세종출판사)을 내면서 문단에 등단. 그 외의 시집으로는 『그대 영혼에 사랑의 수를 놓으리라』(타임기획, 1992), 『실 풀기』(믿음기획, 2000), 『봄의 무게』(현대문예, 2006) 등이 있다.

171) 손동연(1955.2.25~) 해남군 북일면 출생. 1980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시 <돌>이 당선. 1983

손동연의 시는 한결같이 은근하고 따뜻하다. 절망보다는 희망을 고통보다는 아름다움을 통하여 '순연한 삶에 꿈 꿈'을 노래한다. 또한 남도의 정서를 가장 남도적인 가락으로 잘 살려낸다는 평을 받고 있다.

1980년대 등단한 시인들의 시세계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민중시 계열, 모더니즘 계열, 순수 서정시 계열이다.

특히 광주 · 전남은 5·18 민주 항쟁이라는 크나큰 역사의 소용돌이를 직접 체험한 사람들로서 생의 가장 큰 충격 속에서 시를 쓰게 된 사람들이다. 그러기에 민중시를 쓸 수밖에 없었으며 모더니즘 계열의 시는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실현되는 일련의 경향을 띄게 됨도 볼 수 있다.

1980년대 광주 · 전남의 시문학은 한국 문단의 한 복판에 서서 이끌어 왔다고도 볼 수 있다. 1980년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킨 핵이 광주라는 공간에서 촉발되었기 때문이다.

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시조 <우리 선생 백결>이 당선. 그 이후 1985년과 1988년에 서울신문과 경향신문에 시와 시조가 당선. 1984년 대한민국 문학상, 1988년 전남아동문학가상을 수상. 시집으로 『진달래 꽃 속에는 경의선이 놓여 있다』(1988)가 있다.

제 5 장 결 론

본 논문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광주 · 전남의 시문학과 시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 특성을 밝히고, 각 시인들의 개별적 시 세계를 통하여 광주 · 전남 시문학 변천 현상을 연구하였다. 그리하여 광주 · 전남 지역 시문학의 참모습과 맥락상을 중심으로 하되 1960년대에서 1980년대 등단한 시인과 시 작품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여 그 문제들을 제기하고 이를 대상으로 하여 논의하였다.

광주 · 전남은 다른 지역에 비해 역사적으로 문학적 기반이 튼튼하였고 이러한 전통에 따라 현대에 와서도 훌륭한 작품이 많이 산출되었다. 특히, 광주 · 전남 지역만이 갖고 있는 문학적 전통의 특성과 독자성을 바탕으로 발전되어 왔을 뿐만아니라 오랜 역사를 이어오면서 시문학을 대변할 수 있는 문학 테마인 '대한민국 문학메카' 로서의 확고한 당위성을 발견하였다.

1960년대는 전통적 순수서정시 정신 바탕하에 전란의 상흔을 극복하고 4·19와 5·16을 거쳐 정치경제적으로 발전을 이룩한 시기였다. 그리고 좌・우 이데올로기의 격심한 대립으로 극도의 혼란을 겪었다. 해방 공간과 6·25의 비극적 체험을 겪고 난 뒤, 사회, 역사적 현실을 정신사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다양하고 심도있게 극복해 가는 시기에 지역문단이 결성되었다. 이때부터 문인단체의 새 보금자리를 틀어 문학인들이 소속감을 갖고 이성부, 박홍원, 오세영, 강인한, 송수권 등 순수하고 서정성이 강한 창작활동을 하며 문학발전의 초석을 닦았다. 특히 조선대학교는 전국을 상대로 하여 전국문학백일장대회를 개최하여 문학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60년대에 등단한 시인들의 활발한 동인활동으로 우수한 작품들이 많이 산출되어 지역의 자생문학에 뿌리를 내리게 하였다.

1970년대는 경제발전의 논리에 밀려 문학예술이 소외되었다. 특히 민주화를 주창하는 민족문학작가회의가 결성되어 이때부터 문단이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으로 갈리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속칭 참여문학과 순수문학이 발전하는 계기가 조성되었다. 이때 등단한 김지하, 문병란, 황지우, 양성우, 김준태 등 일부

시인들은 참여시로 왕성한 작품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활동에 제약을 받았다.

1980년대는 현실모순에 대한 문학적 대응 수단으로서 리얼리즘에 대한 비판과 궤를 같이 한다. 지나치게 현실적 · 직설적 주장을 펼친 끝에 시문학에서 요구되는 서정성이라든가 인간 보편의 심성을 바탕으로 한시적 표현이 상실되었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 시기에는 고정희, 김남주, 박노해 등 농민시 또는 민중시가 유행하는 한편 시인 개개인의 독창적인 목소리가 반영된 다양한 내용과 형식의 시들이 쏟아졌다는 것이 특성이다. 그래서 경제발전의 바탕 아래 민주화시대가 열리면서 창작 활동이 왕성하였다. 그 결과 많은 작품과 작품집이 나왔으며 문학행사도 활발하였다. 그리고 광주 · 전남의 지역마다 동인회와 지역문학 단체가 결성되었으며, 활발한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시세계를 정립하면서 지역마다 지역문학의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다.

특히 문병란의 초기 작품 경향은 생활감정의 승화와 서정을 노래했고 존재정신의 내면탐구를 언어화했다. 이 같은 경향은 대체로 1974년까지 이어지고 1975년에 발표한 <사기꾼들>에서부터 한 시대를 증언하며 슬프고 고달픈 삶 중에도 꿋꿋이 일어서는 낙천적인 광주 · 전남인의 토색을 노래하는 대표적인 경향이라고 하겠다.

1960년대 등단한 시인들의 시세계를 보면 전통적 정서와 서정을 제재로 하여 일상에서 일어난 일을 서술시의 형태로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남도 시인들의 시에는 변방의 삶에 대한 비극적 정서와 유년의 자연을 통해 자연스럽게 융화되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다. 4·19와 5·16 혁명을 체험한 세대로서 문학의 현실 참여라는 참여시 계열의 새로운 경향의 시가 나타난 점도 두드러진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1970년대 작품들은 상실에 근원을 두고 떠남과 만남의 괴리를 통하여 문명비판적인 휴머니즘을 추구하였는가 하면, 자연서정적인 기법의 이면에서 삶의 고뇌와 인간성 회복을 위한 치열한 내재가 작품으로 형상화 되었다. 그리고 강렬한 종말의식과 폐허의식 위에서 잔인한 신으로서의 태양을 꿈꾸며 초현실주의적인 상상력과 무가적인 가락으로 노래하였다.

정치적으로는 강한 권위주의시대이며,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의 성숙단계를

이루면서 산업사회에서 기인하는 인간 소외와 노동문제로 야기되는 삶의 형상들을 노동시로 쓰게 된 점도 두드러진다.

1980년대 등단한 시인들의 시세계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민중시 계열, 모더니즘 계열, 순수 서정시 계열이다.

특히 광주 · 전남은 5·18 민주항쟁이라는 크나큰 역사의 소용돌이를 직접 체험한 사람들로서 생의 가장 큰 충격 속에서 시를 쓰게 된 시인들이다. 그러기 때문에 민중시를 쓸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모더니즘 계열의 시는 발전하여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실현되는 일련의 경향을 띄게 됨도 볼 수 있다.

1980년대 광주 · 전남의 시문학은 한국 문단의 한 복판에 서서 이끌어 왔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는 1980년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킨 핵이 광주라는 공간에서 촉발되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 지역문학이 다른 지역문학을 얼마만큼 또는 어떻게 수용하였느냐 하는 문제보다는 자체의 생산능력을 어느 정도 지녔느냐 하는 점이다. 어떤 한 지역의 문학이 독자성 즉 자체의 생산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면 그 자체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구조는 다른 지역문화와의 상호관계에 의해서 규정된다. 이것을 지리 공간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지역문화의 팽창과 수축으로 설명될 수 있다. 아직 논의되지 못한 부분은 차후의 계속된 연구로 보안하겠다.

참 고 문 헌

1. 기본자료

강인한,『이상기후』가담출판사, 1966

고정희,『이 시대의 아벨』문학과 지성, 1983

고형렬,『대청봉 수박밭』청사출판사, 1985

곽재구,『사평역에서』문학사상, 1983

광주 · 전남과근대연구회,『광주 · 전남문학과 근대성 연구1』, 전남대학교 광주 · 전남문학연구단, 2007

광주문인협회,『광주문학』광주: 한림, 1994

국효문,『님이시여』현대문학사, 1988

김 종,『장미원』시문학사, 1977

김규화,『이상한 기도』시문학사, 1981

김남주,『나의 칼 나의 피』인동출판사, 1987

김만옥,『슬픈 계절』국제 출판사, 1964

김선기 공저,『포구에 부는 바람』세종출판사, 1989

김승희,『태양미사』고려원, 1979

김인석,『봄의 무게』현대문예사, 2006

김재흠,『잃어버린 풍경』향문사, 1963

김정삼,『정하물』이불출판사, 1966

김준태,『참깨를 털면서』창작과 비평사, 1977

김지하,『황토』한얼문고, 1970

_____,『김지하 전집3-미학사상』실천문학사, 2002.

김창완,『인동일기』창작과 비평사, 1978

나해철,『무등에 올라』창작과 비평사, 1984

노창수,『거울기억제』예원, 90

노향림,『눈이오지 않는나라』문학사상사, 1987
목포문학10년사발간위원회,『목포문학100년』광주: 한림, 1995
문도채,『처음써보는 사랑의 시』세운문화사, 1976
문두근,『나비를 잡으려면』고려원, 1985
문병란,『땅의 연가』창작과 비평, 1981
문정희,『꽃 숨』한국정판사, 1965
민영외 편,『한국현대대표시선 II』창작과비평사, 1993.
박건한,『우리나라 사가』동화 출판공사, 1977.
박문재,『탄벌리의 가을』1976.
박순범,『세월』세종출판사, 1979.
박주관,『남광주』청사 출판사, 1985.
백추자,『서른살』시문학, 1982.
범대순,『흑인고수 루이의 북』시사영어사, 1965.
손광은,『파도의 말』현대문학, 1972.
손동연,『진달래 꽃 속에는 경의선이 놓여있다』1988.
송수권,『산문에 기대어』문학사상사, 1980.
양성우,『겨울공화국』실천문학사, 1977.
오명규,『꽃 앞에 흐르는 말씀』현대문학, 1974.
오세영,『반란하는 빛』현대시학, 1970.
오재동,『운암리 시편』규장각, 1984.
윤재걸,『후여 후여 목청 갈아』평민사, 1979.
이성부,『우리들의 양식』민울사, 1974.
이시영,『만월』창작과 비평사, 1976.
이지엽,『아리사의 눈물』대명 인쇄사, 1979.
임　보,『임보의 시들』한국문학사, 1974.
임동학,『벽을 문으로』문학과 지성사, 1994.
장효문,『서사시 전봉준』전예원, 1982.

전원범,『달개비 꽃』교음사, 1982.
조병기,『바람에게』동학사, 1993.
조영희,『춘설』익문사, 1972.
조태일,『국토』창작과 비평사, 1983.
진헌성,『조용한 화음』관동출판사, 1969.
최봉희,『사색과 영원』한일출판사, 196
최일환,『부뭇골 뜸북새』세종출판사, 1982.
최재환,『표구속의 얼굴』시문학, 1977.
최하림,『겨울꽃』풀빛출판사, 1985.
허영만,『풀잎이 하나님에게』영언문화사, 1984.

2. 단행본

강영안,『타인의 얼굴 - 레비나스 철학』, 문학과 지성사, 2005.
고　은, 『광주 5월 민중항쟁』, 서울 : 풀빛, 1990.
곽재구,『삶을 흔들리게 하는 것들』, 동방미디어, 1997.
_____,『참 맑은 물살』, 창작과 비평사, 2003.
_____,『침묵의 파문』, 창작과 비평사, 2003.
권영민,『한국현대문학』, 민음사, 1993.
김　현,『한국문학의 위상 - 문학회학』, 문학과지성사, 1992.
김경동,『경제성장과 사회변동』, 서울 : 한울, 1983.
김남주,『사랑의 무기』후기, 창작과 비평사, 1989.
金永秀,『한국문학의 맥락』, 一志社, 1988
김인석,『봄의 무게』,광주 : 현대문예, 2006
김준태,「5월과 문학」, 광주 : 남풍, 1988.
_____,『칼과 흙』, 문학과 지성사,
김지하,『민족, 민중, 그리고 문학』, 지양사, 1985.
_____,『예감에 가득 찬 숲그늘』, 실천문학, 1999.

_____,『흰그늘의 길1』, 학고재, 2003.
김혜니,『한국 현대시문학연구』, 국학자료원, 2002
남진우,『신성한 숲』, 민음사, 1995.
문정희,『우리는 왜 흐르는가』, 문학사상사, 1987.
박태일,『인문학과 지역문학의 발견』, 청동거울, 2004.
_____,『한국지역문학의 논리』, 청동거울, 2004.
백낙청,『민족문학과 민중문학』, 지양사, 1985.
백수인,『한국 현대시의 흐름』,『소통과 상황의 시학』, 국학자료원, 2007.
_____ ,『소통의 창』, 시와 사람, 2007.
양영길, 『지역문학과 문학사인식』, 국학자료원, 2006.
오세영,『우상의 눈물』문학동네, 2005
유성호,『침묵의 파문』창작과 비평사, 2002.
_____,『한국 시의 과잉과 결핍』역락, 2005.
유종호 외,『한국 현대 문학 50년』민음사, 1995.
윤여탁 외,『한국 현대시론사 연구』문학과지성사, 1998.
이상섭,『언어와 상상』문학과 지성사, 1980.
이수광,『지봉유설』조선시대
이승하,『한국 현대시 비판 : 한국 시의 새 지평을 찾아서』月印, 2000.
이승하 외,『한국 현대시문학』소명출판, 2005
이지엽 외,『광주·전남 현대시문학 지도1』광주: 시와 사람, 2001
임헌영, 『누가 그대 큰 이름 지우랴』 문병란・이영진 엮음, 전주 : 인동, 1987.
정상균,『한국현대시문학』아세아문화사, 2003
정진홍,『종교와 신화』살림, 2003.
정현종 외 엮음,『시의 이해』민음사, 1983.
정효구,『광야의 시학』열음사, 1991.
조태일,『시인은 밤에도 눈을 감지 못한다』나남출판, 1996.
최승호,『서정시의 미메시스적 읽기』, 국학자료원, 2002.

한강희,『우리 근·현대문학의 맥락과 쟁점』태학사, 2001
한국사회학회(편),『70년대 한국사회-변동과 전망』서울 : 평민사, 1980.
허형만 외,『문병란 시 연구』광주 : 시와 사람, 2002
황하택 편저,『전남문학변천사』광주 : 한림, 1997.
_____ 편저,『전남문학대표작 선집』(시편) 광주 : 한림, 2001.
_____ 편저,『한국향토시선』광주 : 현대문예, 2002.
_____ 편저,『한국문학메카를 찾아서』광주 : 현대문예, 2005
_____ 편저,『현대문예』전권, 광주 : 현대문예, 1999~2008.

3. 논문

權寧文,“맥락과 의미에 관한 연구”. 문학박사학위논문 啓明大學校, 1996.
김수림,“김지하 · 정현종 초기 서정시의 물질적 상상력과 문체”.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2001.
박순채,“황지우의 시 연구”,『성신어문학』 6집, 1993.
沈在秋,“한국현대문학 서술방법론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1984.
李光國,“韓國文學史 서술의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建國大學校, 1979.
양영길,“한국근대문학사 서술양상 연구”, 박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1998.
_____,“제주지역 문학사 서술의 성격-근・현대 문학사를 중심으로-”
이동순,“조태일 시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2008.
이사라,“송수권 시의 기호학적 독해”,『서울산업대학교논문집』제29집, 1989.7.
임동확,“김지하 시 연구- 반근대성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2000.

4. 학술지

고형진,“전통시의 변주와 완전한 사랑노래”『문학과 의식』봄호, 1998.
권선옥,“충남시문학 개관”『푸른사상』통권 제40호 하반기, 2003.

김남주, “변혁 운동을 전파하는 시” 『문예중앙』 가을호, 1989.
_____, “변혁 운동을 전파하는 시” 『문예중앙』 가을호, 1989.
김대현, “地域 文學 연구에 대한 몇 가지 문제” 『향토문화』 제21집, 2001.12.
김병택, “지역문학의 서술 대상론” 『영주어문』 제9집, 2005
김재홍, “사랑과 존재의 형이상학” 『현대문학』.1985. 10.
_____, “반역의 정신과 인간해방의 사상” 『작가세계』 가을호, 1989.
_____, “물과 불 또는 운명과 자유” 『현대시학」 8월호, 1990.
김준오, “순수 · 참여와 다극화 시대” 『한국현대문학』 1989.
김준태, “대지적 정서와 사회의식의 결합” 『작가와 사회』 통권16호 가을호, 2004.
김지하, “풍자냐, 자살이냐” 『詩人』 6, 7월호, 1989.
_____, “촛불과 자기조직화” 『작가세계61』 여름호, 2004
김현자, “한국여성시의 계보” 『현대시』 1992. 2.
문병란, “문병란의 문학론”, 허형만 등 편, 문병란 시 연구, 『시와사람』 2002.
박주관, “光州文學의 당면과제와 그 解法 ·上” 『문학예술』 통권 제15호 겨울호, 2005.
박태일, “지역문학 연구의 방향” 『지역문학연구』 제2호, 1998.
박홍원, “광주 · 전남문단의 현황과 전망” 『湖南大學校人文社會科學硏究』 제1집, 1994. 12.
_____, 外, “광주 · 전남문학의 발전 방향” 『21세기 39('96.3)』, 1996.
방민호, “70년대 목마른 영혼과 비, 빗소리, 물-‘화개’론” 『오늘의 문예비평』 47 겨울호, 2002.
백수인, “한국 현대시의 흐름”, 소통과 상황의 시학, 국학자료원, 2007.
서준섭, “네 시인과 독자” 『문학과 사회』 봄호, 1991.
송기한, “반역과 생성으로서의 불 이미지” 『현대시』 통권 192호, 2005.
송지윤, “한국 해체시의 형태적 양상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신덕룡 外, “광주 거주 문인들이 직접 쓰는 5월 문학” 『문학정신 56('91.5)』 1991.

_____, “꿈꾸기 혹은 그리움의 미학”, 『시와 사람』1997.
양석원, “탈식민주의와 정신분석학”, 탈식민주의 이론과 쟁점,『문학과 사회』 2003.
양영길, “지역문학사 서술방법론”,『제1회 영주어문학 학술심포지엄』,2000.10.
_____, “제주 지역문학사 서술의 성격 : 근·현대 문학를 중심으로” 『白鹿語文』 17, 2001.2. 백록어문학회, 2001.
염무웅, “사회인식과 시적 표현의 변증법” 『창작과 비평』여름호, 1988.
염창권, “흔적 찾기와 흔적 되살리기”, 『비평문학』 제7집, 1993.
오세영, “80년대 한국의 민중시”,『한국현대문학회 학술발표회』자료집, 2001.
이숭원, “모순의 인식과 존재의 탐색” 『현대시학』6월호, 1992.
이승훈, “이승훈의 알기 쉬운 현대시 작법” 『한국문연』2004.
이재봉, “지역문학 서술의 가능성과 방향” 『국어국문학』제144호(2006. 12), 2006.
이형기, “고향, 전통 그리고 조국-송수권론”『문학 사상』1991.
이황직, “5월시의 문학적 위상” 『언어세계』 봄호 1996.
이희중, “날개없는 새의 꿈” 『현대시』1992. 12.
임성운, “우리 문학의 지역문학 인식 : 광주 · 전남지역문학을 중심으로” 『南道文化硏究』제6집, 1997.
_____, “남도문학의 지방문화적 성격” 『南道文化硏究』제10집, 2004.
전정구, “광주 · 전남문학의 특성” 『(창조적 민족문학을 위한)작가사회』통권 12호 겨울호, 2002.
정효구, “고정희 시에 나타난 여성의식” 『인문학지』17권, 춘망 곽동벽 교수 정년 기념호 (충북대 인문학연구소, 1999)
조창환, “존재의 모순, 그 영원한 질문” 『현대시학』3월호, 1989.
조태일, “정치는 구호일 뿐인가”, 시인은 밤에도 눈을 감지 못한다『사회비평』 1996.
최동호, “욕망을 다스리는 영혼” ,『소설문학』2월호, 1986.
_____, “광주지역 문학의 생성방식과 발현양상” 『작가마을』 2004.

5. 국외 번역서

E.V. 일렌코프, 우기동, 이병수 역『변증법적 논리학의 역사와 이론』연구사, 1990.

가스통 바슐라르, 민희식 역,『불의 정신분석』, 삼성출판사, 1984.

아지자 외, 장영수 역,『문학의 상징 · 주제 사전』,청하, 1980.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국어국문학과	학 번	20057332	과 정	박사
성 명	한글: 황하택	한문 : 黃夏澤		영문 :HWANG HA TAEK	
주 소	광주광역시 동구 호남동 13-3번지				
연락처	E-MAIL : ht3355@hanmail.net				
논문제목	한글 : 광주. 전남 현대시문학 연구 영어 : A study on the poetry of kwang-ju and cheonnam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 동의(○) 반대( )

2009년 2월 일

저작자: 황 하 택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